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A DMin Final Project Approval Sheet

This DMin Final Project entitled

**A STUDY ON CHURCH GROWTH AND THE PASTORAL
LEADERSHIP OF NAK UN SOU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AEPYEONGJEIL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Yo Ha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entor: Peter Y. Im, Ph. D

March 2019

Date _____

**A STUDY ON CHURCH GROWTH AND THE PASTORAL
LEADERSHIP OF NAK UN SOU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AEPYEONGJEIL PRESBYTERIAN CHURCH**

태평제일교회의 성장과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 연구

By

Yo Han Kim

A DMin F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March 2019

ABSTRACT

Kim, Yo Han

2019 “A Study on Church Growth and the Pastoral Leadership of Nak Un Su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aepyeongjeil Presbyterian Church.”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62 pp.

This study identifies how mission-based leadership has contributed principles for the growth of Taepyeongjeil Presbyterian Church.

This paper consists of seven chapters. Chapter 1 deals with a general overview of this study including research methods, its coverages, background, purpose, and its importance etc. Chapter 2 considers especially McGavran, Wagner and Van Engend related to theories of School of Church Growth. Chapter 3 deals with Dr. Cliton’s study, “THE MAKING OF A LEADER”. Chapter 4 identifies the pastoral leadership of Nak Un Sung and its formation process of pastoral philosophy, based on Dr. Clinton’s research index. Chapter 5 reports the growth of Taepyeongjeil Church and the leadership philosophy of Pastor Sung. Chapter 6 covers the current status of Taepyeongjeil Church’s church planting and its vision. Chapter 7, as a conclusion, contains a summary of this study and researcher’s proposal. Through this study we could find out that how God managed pastor Sung’s entire life, by letting him have passion to devote himself to broaden the Kingdom of God. We also found that this pastoral leadership created by God truly made a meaningful development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 of his church itself.

Mentor: Peter Y. Im, Ph. D

190 words

개요(ABSTRACT)

김요한

2019 “태평제일교회의 성장과 성낙운 목사의 목회리더십 연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62 pp.

태평제일교회 성낙운 목사는 교회 개척의 선구자이다. 본 논문은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교회개척과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 그 형성과정을 클린턴(Clinton)박사의 “영적지도자 만들기”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그의 철학, 특별히 교회개척과 선교지향적인 목회철학이 태평제일교회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봄으로 선교중심적 리더십과 이에 따른 교회의 성장 원리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 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및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살펴 보았다.

제2장은 교회성장학파를 중심으로 교회성장(Church Growth)에 대하여 특별히 맥가브란과 피터와그너 그리고 벤 앵겐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은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THE MAKING OF A LEADER)를 연구하였다.

제4장은 성낙운 목사의 목회리더십과 목회철학 형성과정을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5장은 태평제일교회 성장과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을 살펴보았다.

제6장은 태평제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들의 현재 상황과 비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및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성낙운 목사의 삶 전체를 다루시고, 생애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열정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그의 목회철학이 태평제일교회를 성장시켰으며,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Mentor: Peter Y. Im, Ph. D

184 words

헌정(DEDICATION)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평생을 사셨던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고 김희진 목사님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을 유산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잘해라~ 잘해라~”

유언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늘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낙운 원로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을 지도해 주신 임윤택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임윤택 교수님은 논문지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게 해 주셨으며, 언제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주셔서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지도에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의 길을 걷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고 김희진 목사와 어머니 권순옥 사모 그리고 장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변치않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후원해준 사랑하는 아내 김민정 사모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허락하신 성동리와 예나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중을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양지아름다운교회 모든 성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	ii
개요(ABSTRACT).....	iii
헌정(DEDICATION)	v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vi
목차(TABLE OF CONTENTS).....	vii
표 목록(LIST OF TABLES).....	xi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xii
지도 목록(LIST OF MAPS)	xiii
제 1 장 서론(INTRODUCTION).....	1
연구의 배경(Background)	3
연구의 목적(Purpose).....	3
연구의 목표(Goals)	4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4
연구 중심 주제(Central Research Issue)	4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4
연구의 방법(Methodology)	5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6
연구의 개관(Research Overview)	6
요약	8
제 2 장 교회성장의 신학적 관점.....	9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해	10
교회성장운동의 발전	11
도널드 맥가브란	11
피터 와그너	13
벤 엥겐(Van Engen).....	15
교회 성장의 의미	17
교회 성장의 세 종류	18
생물학적 성장(biological growth).....	18
이동 성장(transfer growth)	19

회심 성장(Conversion Growth)	20
교회 성장의 방식	20
내적 성장	20
평창 성장	21
확장 성장	21
가교 성장	21
교회 성장의 주요원리(Principles)	21
성경적 원리	21
하나님의 뜻 원리	24
충직성 원리	25
신앙부흥 원리	27
민족집단 원리	29
전도우선의 원리	30
복음에 대한 수용성 원리	31
동질집단 원리	33
세계적인 안개이론 원리	34
교회개척의 원리	36
하나님의 다리 원리	36
담대한 전도계획 원리	38
교회 성장형 리더십 철학	42
리더십의 정의와 형태	42
리더십의 단계	44
요약	46
제 3 장 클린턴 교수의 영적지도자 만들기	47
삶의 조감도	48
리더십 개발의 일반적 단계와 패턴확인	48
개발 단계	49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가로막는 여섯 가지 장애물	52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의 다섯 가지 강화 수단	53
자신의 개발 단계 확인하기	54
지도자의 첫걸음	54
진실성 검증(Integrity check)	55
순종 검증(Obedience check)	57
말씀 검증(Word Check)	58
요약	61
사역의 성숙 단계	62
초기 사역 하부 단계	64
진입 과정	64
중반기 사역 하부 단계	68
훈련 과정	68
후기 사역 하부 단계	72
관계 학습 과정	72
분별 과정	78

요약	84
제 4 장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 형성과정.....	86
성낙운 목사의 단계별 사역과정.....	86
클린턴의 여섯 단계	88
성낙운 목사의 여섯 단계	90
제1단계: 신앙의 기초 파평 생활	91
제2단계: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	96
제3단계: 사역의 성숙 단계	97
제4단계: 삶의 성숙 단계: 태평제일교회 사역	99
제5단계: 수렴단계, 교회개척	107
제6단계: 회상단계	108
요약	111
제 5 장 태평제일교회 성장과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	114
태평제일교회의 이해	114
교회가 속한 지역 및 사회적 연구.....	115
태평제일교회의 역사적 연구	117
태평제일교회 현재적 상황	120
조직 구성 현황	120
태평제일교회 사역 연구	122
리더십 철학	122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	123
태평제일교회 성장	125
헌신을 통해 본 태평제일교회의 내적성장.....	125
태평제일교회의 양적성장	126
예배의 풍성함	126
다양한 전도 방법과 선교 확장	127
교회정착 및 신앙성장 프로그램	131
교제 활성화	131
봉사의 다양화	131
요약	132
제 6 장 태평제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들의 상황과 비전.....	134
교회 개척 의미	134
교회 개척 필요성	135
교회 개척의 장점들	136
새로운 교회가 기존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136
새로운 교회가 전통교회보다 더 잘 복음화한다.....	137
지도자들은 새로운 교회에서 더 빨리 신임을 얻는다.....	137
전통교회에 있는 지도력을 가정함	137
개척된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정함	138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의 변화에 더 열려 있다.....	138
‘낡은 부대’의 문제.....	139
‘새 가족부대’ 해결책.....	140

교회개척과 본 교회 성장에 영향.....	140
교회 개척 방법	141
전통적인 방법	141
식민화(Colonization)	142
입양(인수).....	142
교회 분립	142
위성 모델	143
다원적 회중모델(Multicongregational)	143
다원적 캠퍼스(Multicampus).....	144
소달리티 모델들(Sodakity Models).....	144
태평제일교회의 교회 개척방법.....	144
교회 개척의 효과	145
양지기념교회	146
이천기념교회	148
교회개척 당시 태평제일교회.....	150
교회개척 후 교회 돌봄	152
교회개척을 통해 받은 은혜	152
요약	154
제 7 장 결론	155
요약	156
결론	157
제언	157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158
약력(VITA)	162

표 목록(LIST OF TABLES)

<표 1> 리더십 개발의 일반적 6단계	49
<표 2> 초기, 중반기, 후기 사역의 하부 단계와 과정 항목	63
<표 3> 사역 과업 연속선의 설명	65
<표 4> 은사 개발의 기본적 패턴	70
<표 5> 은사 개발의 두 가지 보완 패턴	71
<표 6> 영적 권위의 십계명	74
<표 7> 리더십에 대한 반발의 8단계	78
<표 8>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	87
<표 9> 리더십 개발의 일반적 6단계	88
<표 10>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개발의 일반적 6단계	90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그림 1> 교회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3
<그림 2> 검증 항목의 중복 현상에 대한 그림(2017, 107).....	60
<그림 3> 맨 앞에서 벽돌을 옮기는 성낙운 목사	105
<그림 4> 경기도 총인구 및 시군별 인구 현황	116
<그림 5> 성남시 인구 통계	117
<그림 6> 성낙운 목사 부임 초기 태평제일교회	120
<그림 7> 태평제일교회 조직도	121
<그림 8> 태평제일교회 예배안내	127
<그림 9> 태평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밥차	128
<그림 10> 웃음치료 운영 실태	130
<그림 11> 태평제일교회에서 세운 양지기념교회	147
<그림 12> 태평제일교회에서 세운 이천기념교회	149
<그림 13> 기념교회 개척 당시 태평제일교회	151
<그림 14> 현재(2018.12.30) 태평제일교회 교육관 모습.....	153

지도 목록(LIST OF MAPS)

<지도 1> 태평제일교회 위치 115

제 1 장

서론(INTRODUCTION)

한국교회는 1960부터 1990년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1990년대에 한국 개신교인의 수는 1200만명 정점을 찍은뒤 가파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 교회 성장의 둔화추세는 분명하다.

기독교교문사가 출판한 1993년 「기독교 대연감」에 의하면 1990년에는 개신교 신자수는 11,427,485명으로 연평균 10.8%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는 12,091,837명으로 연평균 5.8%로, 1992년에는 12,571,062명으로 연평균 4.0%로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실대 2002, 4)

한국 통계청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1991년 한국개신교 신도는 전체인구의 18.6%를 차지했고, 1994년에는 18.2%로 0.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에서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199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는 신도수에 있어서 성장둔화 내지 성장정체 내지 성장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2, 6-7)

교회성장이란 말은 이미 오래전에 사용한 말이 되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있는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 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으며,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 열심 없는 힘겨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리고 그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호종교로 치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명 즉, 교회의 복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 현실 앞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다. 맥가브란은 이러한 극단적 상황이 존재하게 된 교회의 차이를 지상 최대명령을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Rainer 2009, 380).

필자는 이러한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맥가브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성낙운 목사의 복음적 목회철학을 통해 한국교회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성남 태평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한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그리고 연구의 개관을 기술한다.

성낙운 목사는 복음적 교회성장형 리더이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평생에 걸쳐 개발하신다(Clinton 2017, 38). 하나님께서는 성낙운 목사를 평생에 걸쳐 개발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성남 태평동에 태평제일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낙운 목사를 준비시키신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또한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 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성을 보게 된다(2017, 20).

태평제일교회는 연약한 제단이었다. 성남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태평동에 세워졌다. 처음 태평제일교회의 본래 이름은 탄리제일교회였다. 초대 교역자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니 당시 동네 사람들은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전임 교역자의 사례와 퇴직금도 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교회였다. 그러나 올해 49년을 맞이한 태평제일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 성장의 배경에는 복음 전파, 특별히 교회개척과 선교적 교회를 꿈꾸었던 성낙운 목사가 있었다. 성낙운 목사는 “교회의 목적은 전도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평공동체는 영혼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성낙운 인터뷰 2018.11.12)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성낙운 목사의 목회 핵심철학은 전도(선교) 복음선포였다.

성낙운 목사는 개척의 선구자이다. 성낙운 목사의 목회사역에 있어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교회를 개척과 안정적인 복음선포에 집중했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교회개척을 지향하는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을 분석한다. 먼저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 태평제일교회 성장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성낙운 목사가 개척한 교회인 양지기념교회, 이천태평제일교회, 캄보디아 꺼꿍교회를 분석할 것이다.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이 교회개척 및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선교 확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성남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태평제일교회의 성장 배경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본 장은 성남에 소재한 태평제일교회 중심으로 한다.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에 관한 논문의 개관으로서,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 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그리고 연구의 개관을 기술한다

연구의 배경(Background)

본 연구의 장소적 배경 중심은 성남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태평동에 위치한 태평제일교회이다. 이 교회는 2018년 말 기준으로 700여명의 장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형교회이다. 특별히 태평제일교회는 가난한 태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본교회 수리나 건축보다는 선교와 교회 개척에 힘썼음에도 빛 하나 없는 건강한 재정구조를 지니고 있는 보기 힘든 교회이다. 이 교회를 담임했던 성낙운 원로목사는 35년의 성역을 마감하고 지금은 돕는 목회와 기도하는 목회에 힘쓰며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불태우고 있다.

성낙운 목사의 선교적 목회철학을 바탕으로한 교회개척사역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는 희망과 소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질적 모습을 갖게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다.

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성낙운목사의 목회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풀러선교대학원의 리더십교수였던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를 도구로 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그의 선교지향적인 목회철학을 심층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훈을 찾고자 한다.

성낙은 목사의 선교지향적 교회개척, 목회철학이 태평제일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교회 성장에 어떻게 기여해왔는가를 살펴봄으로 한국교회의 올바른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표(Goals)

본 논문 연구의 목표를 다음 다섯 가지로 귀결한다.

첫째, 올바른 목회철학을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을 연구한다.

둘째, 맥가브란과 피터와그너 그리고 벤엥켈의 교회성장 신학적 관점을 연구한다.

셋째,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를 연구한다.

넷째,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의 관점에서 본 성낙은 목사의 목회철학 형성과정을 연구한다.

다섯째, 태평제일교회의 성장과 성낙은 목사의 목회철학을 연구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논문 연구의 중요성을 다음 네 가지로 귀결한다.

첫째, 목회자에게 목회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교회성장과 목회자 목회철학의 상관관계를 정립한다.

셋째,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 그리고 벤 엥겐의 교회성장학 관점을 정립한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교회개척과 목회철학을 정립한다.

연구 중심 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논문의 중심 연구 주제는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 태평제일교회의 성장과 성낙은 목사의 목회 리더십 철학에 대한 선교목회학적 기술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본 논문은 여섯 가지 연구 질문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 교회 성장학의 정의와 원리는 무엇인가?
2. 교회 성장학의 대표적인 도널드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 그리고 벤 앵겐의 교회성장 이론의 정의와 원리는 무엇인가?
3. 클린턴 교수의 영적지도자 만들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4. 클린턴교수의 영적지도자 만들기의 관점에서 본 성낙운목사의 목회리더십 철학의 형성과정은 어떠한가?
5. 태평제일교회 성장과 성낙운목사의 목회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의 방법(Methodology)

본 연구 방법은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교회성장의 정의와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회성장에 미치는 목회철학의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인터뷰 방법론을 택하였고, 2차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리더십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기반으로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에 대하여 클린턴의 영적지도자만들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바탕위에 그가 목회하였던 태평제일교회의 성장과 그가 개척한 교회를 평가하고 분석한다.

인터뷰 방법론은 면접법으로 사회과학과 행동과학 연구에 있어서 관찰법, 설문지법과 더불어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자료수집 방법 중 하나이다.

면접은 보통 두 사람 간의 언어적 대화를 기반으로 하여 면접자가 피면접자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그러나 면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피면접자의 경험담이나 생활사,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등 언어적 진술내용뿐 아니라 감정, 태도, 표정, 어투 등 비언어적 특성도 포함된다. 면접법은 관찰법이나 설문지법과는 달리 직접적인 방식으로 피면접자로부터 개인적이고 심층적인 자료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김아영 외 2018, 180)

문헌연구는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위주로 하여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에 대해 접근하였다.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본 논문의 중심주제인 태평제일교회 성장과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특히 성낙운목사의 목회철학에 관한 연구방법은 클린턴의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의 평생에 걸쳐 형성된 목회인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시킬 것이다.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리더십에 관한 연구서들은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소개나 리더십의 성공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특별한 연구방법론인 영적지도자만들기는 리더십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리더로써 목회철학을 어떻게 형성해 가시는 지에 대해 더 주목한다.

따라서 클린턴의 영적지도자만들기로 성낙운목사의 목회철학을 분석한다는 것은 성낙운목사의 목회철학 자체뿐 아니라 그의 목회철학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형성시켜오신 하나님의 지속성과 섭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이렇게 형성된 성낙운목사의 목회철학을 통하여 발휘되는 영향력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성낙운목사를 영적 지도자로 형성시켜 가시는 과정과 그의 목회철학 그리고 교회개척사역 또한 태평제일교회의 성장을 통하여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고 계심을 밝히고 드러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더 높은 기대감을 갖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첫째, 연구대상은 현재 태평제일교회 원로목사인 성낙운 목사에 관한 것이다.

둘째, 성낙운 목사의 목회 철학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셋째, 성낙운 목사가 담임목사로 약 35년을 섬겼고, 현재 원로목사로 섬기고 있는 태평제일교회의 역사와 성장 배경을 연구할 것이다.

넷째, 교회성장학 관련 신학자들의 교회성장원리를 연구할 것이다.

연구의 개관(Research Overview)

본 논문의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필자가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연구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개관을 다룬다.

제2장에서 교회성장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교회성장학에 대해 정의하고, 교회 성장학의 세 거장인 도널드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 그리고 벤 앵젠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성장의 의미와 유형, 주요 원인, 그리고 교회성장과 목회철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회철학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4장은 본 연구의 실제로서 성낙운목사의 목회철학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분석한다. 먼저 성낙운목사의 리더십 형성과정은 시간선에 따른 단계별 사역과정과 리더십 개발 과정상의 주요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의 리더십에 대하여 목회철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은 태평제일교회의 성장과 교회현황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성낙운목사의 목회철학이 태평제일교회의 성장과 교회개혁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알고자한다. 또한 교회개혁에 힘쓴 선교중심적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은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 가운데 세워진 개혁된 교회가 현재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7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 연구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성낙운목사의 은퇴 이후 사역과 현재 태평제일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전망하며 이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요약

본 연구는 성낙운 목사의 목회 리더십에 관한 연구로서 태평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개관 등을 기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성장 신학적 관점을 풀러의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 그리고 벤 앵겐의 관점에서 기술할 것이다.

제 2 장

교회성장의 신학적 관점

본 논문은 교회성장신학적 관점에서 본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에 관한 연구이다. 풀러의 교회성장신학은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을 분석하는데 하나의 틀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교회성장신학적 관점에 대해 다룬다. 먼저 풀러신학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을 발전시킨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 성장신학을 기술하고, 교회성장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교회성장학을 전파하였던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의 교회성장학을 기술한다. 그리고 교회성장신학을 완성시킨 벤 앵젠(Charles E. Van Engen)의 교회 성장신학을 기술한다.

교회성장은 맥가브란이 성서적 근거들을 통해 천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성서는 교회성장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약성서는 외적으로는 수적성장을 말하지만, 내적으로는 질적성장을 함께 이루는 생동적인 교회성장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맥가브란은 언제나 성경과 십자가를 강조했으며, 교회성장이해에서 교회성장에 관한 원리를 열 두 가지로 정리하고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성낙운 목사는 교회성장형 리더이다. 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서 발전하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순종이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교회 개척과 성장을 자연스럽게도 모범적으로 이루어 가게 하셨다. 그러므로 필자는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 그리고 벤 앵젠의 교회성장신학을 분석하는 것은 성낙운 목사의 교회성장신학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해

오늘날 교회성장이란 단어는 세상적 가치와 혼재되어 긍정적 의미 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먼저 다가오며 많은 오해에 둘러싸여 있다. 단편적으로 교회성장이라 하면 성도가 늘어나는 현실적 ‘성장’ 혹은 ‘성공’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교회의 대형화를 이루거나 외적으로 성장시킨 목회자만이 목회의 성공자로 인식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로인해 교회성장은 곧 교회 규모확장 혹은 대형화 이미지로 자리잡혀진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성장을 말하면 목회자는 교회의 대형화를 꿈꾸는 야망을 지닌 지도자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는 그래서 성장목회를 꿈꾸는 리더와 목회를 앞둔 잠재적 리더에게 교회성장은 신앙적 갈등과 고민의 대상이 된다.

교회성장이란 단어적 의미가 현대 물질사회의 영향으로 교회성장이라는 본질적 의미와는 다른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성장에 대한 본질적 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교회성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잃은 자들을 찾고 구원하도록 보냄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잃은 자를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은 교회성장을 단지 인류의 진보를 위한 행위로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의 확장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교회성장은 성도의 충성심이기 때문이다(McGavran 2017, 30).

맥가브란은 “1988년 현재 50억의 인구 중 약 30억 이상이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음을 말한다. 또한 그 30억의 사람들이 40억을 넘어, 2000년에는 거의 50억에 육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2017, 90). 인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주를 알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요. 교회의 우선과제가 된다.

교회성장운동의 발전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20세기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했던 선교사이며 선교학자다. 또한 그는 교회 성장 운동(*Church Growth Movement*)의 아버지이다.

맥가브란은 자신의 교회성장 신학을 ‘하나님의 전략’과 ‘교회성장의 이해’를 통해 나타낸다. 특별히 맥가브란이 창시한 교회성장운동은 20세기의 선교역사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선교와 교회성장운동을 주도해 왔다. 교회성장운동의 발단은 1955년에 맥가브란이 쓴 *하나님의 가교(The Bridges of God)*라는 출판물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를 비롯한 폴리신학교 세계선교대학원의 교회성장학과의 주도로 교회성장학은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왔다(McGavran 2017, 6-8).

도널드 맥가브란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 1897-1990)은 1897년 12월 15일 인도의 다모(Damoh)에서 삼대째 선교사인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다(McGavran 2017, 5).

그의 부모 존 그래프톤 맥가브란과 헬렌 앤더슨 맥가브란은 거기에서 선교사였고,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선교사이었다. 맥가브란은 예일과 콜롬비아대학을 졸업하였고 그는 히말리야를 등반하였고,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한 선교단체의 책임자였고, 나환자병원을 관리하였으며, 하브다(Havda)에서 선교학교 체도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상처를 입은 호랑이와 일대일로 맞닥뜨린 적도 있고, 전투 중에 어떤 야생 멧돼지를 만나기도 하였다. 그는 힌디어와 차티스카르히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또한 유행성 콜레라를 퇴치한적이 있고, 한 유명한 선교 연구기관의 초대원장이기도 하였다. 선교와 교회성장에 관해 23권의 책을 쓴 그는 전 세계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여행을 하였다.

맥가브란은 교회 성장 운동(*Church Growth Movement*)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이 교회 성장 운동의 발상은 그가 인도에서 기독교연합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의 사무국장과 회계로 일하던 193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80명의

선교사, 5개의 병원, 여러 개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복음전도 사업, 그리고 나환자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쏟은 선교 사역의 결과는 고작해야 20-30개의 작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것뿐이었다(2017, 7).

이토록 부진한 성과는 당시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단체들이 흔히 겪는 일이었다. 그 당시 인도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인도는 복음전도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므로 이곳에서는 많은 회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일반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맥가브란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많은 교회를 확산할 수 있는 선교방법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한, 작동하지 않는 교회성장 이론들을 버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하나님의 권속을 증가시키는 생산적인 패턴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는 이후 행정직을 떠나 17년간 걸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며 그 결과 인간적인 의미에서 약 1,000명의 인도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맥가브란의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던, 교회의 성장과 비성장에 대한 확신이었다. 이 확신을 통하여 1955년에 *하나님의 가교(The Bridges of God)*를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교회성장운동을 알리는 획기적인 저서로 평가된다. 그의 책에서 맥가브란이 주장하는 주요 논쟁점에 대하여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요약한다.

첫째, 신학적인 문제로 선교의 중심적인 목표는 전도이어야 하며 이러한 전도활동은 단순한 복음 선포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17, 8).

둘째, 윤리적인 문제, 실용주의에 관한 것으로 맥가브란은 기독교적 청지기직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모든 활동을 성과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선교학적인 문제로 맥가브란의 종족 운동(people movement) 이론과 관련 있으며, 전도는 개인적인 전도 방법이 아닌 종족에 따른 집단적이고도 상호 의존적 개종과정(a multi-individual, mutually interdependent conversion)을 통해 전도하여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종족운동으로 보았다. 이 종족운동의 추론 결과로 동질집단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이 나온 것이다. 맥가브란은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인 장벽을 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말하며 가능하면 사회적 이동이 적게 일어나는 방식으로 개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넷째, 절차상의 문제는 기독교화의 두 단계, 즉 제자화(discipling)와 완전화(perfecting)의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제자화는 믿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화란 신자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 진행되는 영적·윤리적인 발전과정을 의미한다. 맥가브란은 전세계 인구의 70%가 아직 제자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적한다. 선교란 완전화의 과정이 아니라 제자화하는 과정으로 전세계의 교회들이 더욱 제자화에 노력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맥가브란은 1950년대에 어느 정도 교회성장 운동의 이론적 기초작업을 마무리한 후, 맥가브란은 1961년 오리건주 유진에 있는 노스웨스트 크리스천 대학(Northwest Christian College)에 교회성장연구소(Institution of Church Growth)를 설립하였다. 1965년에 그는 이 연구소를 풀러 신학교로 이전하고,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 및 교회성장연구소의 초대학장으로 취임한다(McGavran 2017, 11).

피터 와그너

교회성장 운동은 197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다. 맥가브란이 창립한 풀러신학교 세계선교대학원은 교회성장운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 무렵 초창기 교수진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성장학과와 동일시된다. 그들은 맥가브란, 랠프 윈터(Ralph Winter), 아더 글라서(Arther F. Glasser),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 앨런 티펫(Alan Tippett),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등을 말한다.

이 풀러세계선교대학원 그룹은 교회성장운동을 주도하면서 선교학적이고 신학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와그너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선봉에서 교회성장학을 보존시키는데 있어 큰 영향을 끼쳤다.

와그너는 1930년 8월 15일 미국 뉴욕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었다. 종교는 와그너 가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 아내인 도리스 윌러와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와 선교사역에 대한 헌신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는 1950년 10월 15일 도리스 윌러와 결혼하였고, 1955년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서 16년간에 걸친 선교사역을 세 번의 근무기간에 걸쳐 봉사하였으며, 1968년 선교학석사를 풀러선교대학원에서 받은 후 1971년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전임교수가 되었다(Rainer 2009, 54-56).

와그너는 1981년 교회성장과 총체적 복음(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의 출판으로 교회성장운동을 핵심적 위치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대변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와그너는 폭넓게 기초를 둔 교회목회를 통하여 교회성장학을 발전시켰으며 여러방면의 신학적, 선교학적, 교파적 계통들에서 높은 선명도를 유지하고 뛰어난 저술작업을 함으로 교회성장학에 공헌하였다.

와그너는 교회성장의 옹호자로서 여러가지 위치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1974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 위원회 50명 창립멤버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와그너는 연이어서 6년간 봉사한 실행위원에 선정되었다. 와그너는 로잔언약과 그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와그너는 또한 교회성장을 위한 북아메리카협회를 창설하는데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았고 1984년 이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맥가브란이 교회성장운동의 선구자라면, 와그너는 교회성장운동의 최대 판매원, 핵심적인 위치에서 가르치고 말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와그너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술활동이었는데, 1956년이후 700종류의 글들을 출판하였다. 이 중에는 교회성장원리의 실천적 적용을 설명하는 40권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 와그너의 중요한 공헌은 그의 책들이 미국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2009, 61).

또한 맥가브란이 선교지 교회개척을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을 강조하였다면, 와그너는 지역교회 확장중심의 교회 성장을 강조하였다.

피터 와그너는 ‘교회성장’(Church Growth)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였다.

교회성장은 그리스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효과적인 수행을 ‘모든 족속들을 제자삼음’(마 28:18-20)에 관계시킬 때, 그 교회들의 성격·확장·개척·배가·기능·건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교회 성장 학도들은 교회 확장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연구적인 신학적 원리들을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해 이룩된, 바탕적 공적의 초기 참고 골조로 사용하면서 현대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의 최상첨단통찰과 종합시키려 한다. (Wagner 1987, 114)

벤 앵겐(Van Engen)

벤 앵겐(Van Engen)은 조직신학자이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선교의 백성, 선교하는 회중, 선교하는 교회로 정의한다. 그는 선교적 교회에 탁월한 선교적 통찰을 제공한다(Van Engen 2014, 25). 자신의 교회 성장 신학을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통해 기술하였다.

벤 앵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역 교회가 어떤 선교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이해와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귀중한 선교적 통찰을 얻게 된다.

첫째, 벤 앵겐은 스스로 어느 특정 집단에도 종속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이것이 벤 앵겐의 특징이다. 그는 그 모습 그대로 독특하고, 신앙적이며, 학문적이고, 언제나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 신앙에 깊이 헌신되어 있는 그리고 신앙고백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2014, 9).

둘째, 벤 앵겐의 교회론 특징은 편협하지 않다. 그는 학문적 연구 결과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논쟁적이지 않다. 그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구의 폭이 넓고 그가 다루는

주제들에 학적 풍성함과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 그는 신앙을 변호하는 목적을 견지하면서도 개인적인 비판이나, 전체를 단정적으로 정죄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셋째, 벤 엥겐은 본질을 중시한다. 그는 오랫동안 개혁주의 신학 전통의 배경을 가졌다. 그러나 유럽이나 북미 개혁신학의 특징들을 원형 그대로 주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제3세계 신학자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항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실천하게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전세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분별하게 한다. 그는 진리에 도전하는 잘못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식했고, 동시에 성령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그들의 예배와 생활, 사역에 대해 성경으로부터 적절한 통찰력을 계속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모든 교회들이 모두 동일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더라도 각 교회가 선교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벤 엥겐은 보편적 교회의 본질을 거듭 강조한다(2014, 10).

넷째, 벤 엥겐은 선교학자이다. 그는 선교현장 경험이 풍부했다. 멕시코에 파송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두 나라 언어가 가능했다. 타문화 선교의 경험이 풍부한 그는 교회와 선교의 복잡한 문제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으로 다루는 어리석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사로서의 학문적 자세가 그의 신학적 사고에 신중함과 신뢰감을 더해 준다. 그는 역지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생동과학자들의 논리를 이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교회성장학 저술가들이 ‘철저한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성경에서 멀어져 갔던 비극적인 실수를 그는 범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상황화(contextualizaion)를 인정하지만 교묘한 조작(Manipulation)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철저히 신봉하면서 우리와 함께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도 귀를 열어야 함을 권면한다. 벤 엥겐은 서구 신학 방법론만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교회가 속해 있는 어떠한 문화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토착적인’ 비서구적 신학 방법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열려있어야 됨을 말하는 균형잡힌 신학자이다.

다섯째, 벤 엥겐은 지역 교회가 핵심임을 말한다. 모든 선교학적 사고의 핵심이 되는 지역 교회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벤 엥겐은 블라우(Johannes Blaow)의 중요한 선언을 강조하고 인용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며,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2014, 12)

벤 앵젠은 이처럼 블라우를 인용한 것은 우리가 성경전체를 바라보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뜻과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숙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벤 앵젠은 블라우의 제안을 실천에 옮겨 지역 교회에 연결한 것을 보게된다. 또한 벤 앵젠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교회를 믿는 학자들이 1960년대부터 쓴 방대한 선교학적 자료들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벤 앵젠이다.

교회 성장의 의미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의 본질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맥가브란은 “기독교회의 성장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먼저 교회 성장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임을 알아야 한다”(McGavran 2017, 30) 하였다. 이것은 교회성장이해에 대한 출발점이 하나님 중심의 본질적 사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대답으로부터 교회의 성장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곳이다.

그러면 맥가브란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여러 소원 중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잃은 자들을 되찾는 것,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일종의 거룩한 되찾음(a divine finding)이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큰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성경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함이라”(눅 19:10)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말씀하셨다(2017, 55).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선교의 많은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았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제자를 보내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우선된 일은 제자삼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이란 바로 이 제자삼는 일을 말한다. 제자 삼는 일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며, 교회성장을 통하여 제자삼음은 더욱 활발해지고 확장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못이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확장되며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봉사 사역과 교회개척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는 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선교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봉사와 전도의 비율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최대치를 되찾음(maximum funding)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교회성장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후에 충실한 돌봄이 따라와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권능가운데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하는 그 자체가 교회성장인 것이다(2017, 56).

교회 성장의 세 종류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은 세 가지 종류의 교회성장에 대해 “생물학적 과정을 통한 성장과 이동을 통한 성장, 회심을 통한 성장으로 구별된다.”고 말한다(McGavran 2017, 135).

생물학적 성장(biological growth)

생물학적성장(biological growth)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시작된다. 공동체는 반드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아야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생물학적 성장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또 어떨 때는 정상적인 인구

증가율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일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인 삶에 매몰되거나 결혼을 통해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성장의 성장비율을 맥가브란은 25%로 잡는다. 다시 말하면 한 교회가 10년간 25%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한것도 퇴보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Wagner 1997, 89).

생물학적성장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생물학적성장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과 신앙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쇠퇴를 지연시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체계적이고 올바른 신앙교육을 함으로 생물학적성장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것이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미 고령화되었다. 이는 한국교회가 생물학적성장이 멈추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출산을 감소뿐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통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McGavran 2017, 136).

이동 성장(transfer growth)

이동성장(transfer growth)에 대해 맥가브란은 “어떤 회중이 다른 회중들의 희생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말한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시골교회에서 도시교회로 이동하는 것, 혹은 작은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라 할수 있다. “다른 교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교회들의 성장을 의미한다”(McGavran 2003, 159).

이러한 이동성장은 몇몇 교회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동성장이 교회성장의 정당한 범주에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이동성장은 결코 교회를 확장시키지 못한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성장 방법이다(McGavran 2017, 136).

회심 성장(Conversion Growth)

회심성장(conversion growth)은 교회 밖에 있던 세상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교회 성도가 됨으로써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 와그너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교회성장이란 용어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해 주며, 책임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데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Wagner 1997, 10)

회심성장이야 말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적합한 모습의 성장이며 온전한 교회성장이다. “이러한 회심성장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까지, 그리고 땅 끝의 지역들에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종류의 성장이다” 말한다(McGavran 2003, 160). 심지어 맥가브란은 “회심을 선교의 기본 사명으로 본 개념은 교회성장 운동에 필수적이다” 말한다(Rainer 2009, 30). 그러므로 맥가브란이 분류한 세 가지의 성장형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고 진정한 의미의 교회성장은 회심 성장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생물학적 성장이라 말할 수 있다(McGavran 2017, 136-37).

그래서 교회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장, 이동성장, 회심성장이 어떻게 또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다. 또한 진정한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장의 종류인 회심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 성장의 방식

교회성장이 일어나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내적 성장(internal growth), 평창 성장(expansion growth), 확장 성장(extension growth), 가교 성장(bridging growth)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McGavran 2017, 137)

내적 성장

내적성장(internal growth)이란 기존 교회에 속한 하위집단들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속적으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 곧 성경을 알고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도 또는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적 성장을 ‘질적 성장’(quality growth)라고 말하기도 한다.

평창 성장

평창 성장(expansion growth)이란 각 교회가 비그리스도인들을 개종시켜 교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이동해온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임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 성장

확장 성장(extension growth)이란 각 교회가 근처 또는 다른 지역에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지교회를 개척함으로써 성장하는 유형을 말한다.

가교 성장

가교 성장(bridging growth)이란 교회와 교단은 다른 사회 영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다리를(the bridges of God)을 넘어가 그곳에 헌신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회 성장의 주요원리(Principles)

교회성장의 원리(Principles)에 대하여 교회성장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맥가브란은 그의 저서 교회성장이해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공통적인 이유를 12가지로 설명하고, 이 12가지의 성장의 이유들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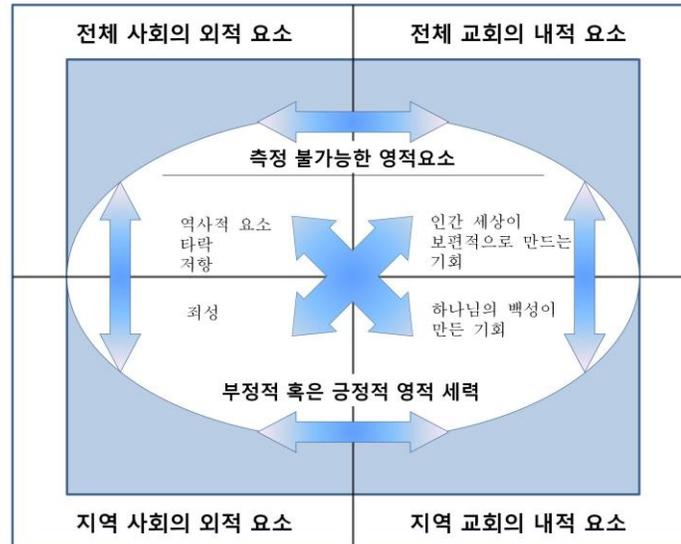
성경적 원리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은 확고한 신학적 확신과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맥가브란은 그의 책 *교회성장 이해*에서 교회성장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이유는 교회성장 신학은 성경적 근거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성장 신학에 대한 오해에 대해 게리 맥킨토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교회성장은 성경적 개념이며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에서부터 도출되고 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교회 성장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인정받기 시작할 때 많은 저자들은 교회성장의 기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교회 성장에 관한 실용적인 문제만 다루는 책들을 많이 출판하였다. (McIntosh 2004, 5)

맥가브란의 교회성장 신학에 대해서 벤 앵겐은 구체적으로 그의 신학을 설명한다. 벤앵겐은 맥가브란이 강조했던 교회와 주변 환경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구분하였다. 첫째는 전체 사회의 외적요소, 둘째는 지역 사회의 외적요소, 셋째는 전체 교회의 내적요소, 넷째는 지역 교회의 내적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또는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 차원까지 고려한다면 그 상황은 훨씬 복잡해진다.



<그림 1>

교회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Van Engen 2009, 169)

벤 엔겐은 맥가브란의 선교신학을 반영하여 “교회성장 신학의 다섯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의 틀을 제시한다. 지금 제시될 다섯 가지 명제는 맥가브란의 선교관을 반영하여 교회성장 신학을 체계화하였다(2009, 173):

첫째 기둥,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기둥, 창조(전체 사회의 외적 요소):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 사역의 장이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기둥, 예수 그리스도(지역사회의 외적 요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넷째 기둥, 성령(전체 교회의 내적 요소): 성령은 교회성장을 이끄는 주도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사역’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섯째 기둥, 교회(지역 교회의 내적 요소): 교회는 교회성장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과정상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부르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기둥을 지지하고 있는 토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다섯 기둥을 묶어 주는 상부 구조는 맥가브란이 정의한 선교의 정의 즉,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제이다. 이러한 기본 구조물 위에 창조적이고, 청지기적이며, 교회성장을 위한 과감한 계획과 실천, 상황이나 문화적으로 적합하며, 성경적으로 충실한 복음 선포가 층처럼 올려진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해 교회성장 신학을 만들어 낸다(2009, 193).

맥가브란은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말한다.

교회성장은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자세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방향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 그러한 신학적인 자세는 사도행전 4:12, 요한복음 14:6과 이와 비슷한 많은 귀절들이 참되다고 믿는다. 그것은 성경에 따라서 이해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교회성장은 확고한 신학적 확신 가운데서 발생한다. (McGavran 2003:34-35)

교회성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원리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잃은 양을 찾아 나설 때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이연주 2018, 33).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의 문제들은 그의 계시된 뜻 가운데서 고찰되어야만 한다. (2003, 56-57)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야만 한다는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즉 성경의 증거가 인간은 “길을 잃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 이해한다.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속적인 관계에 이르게 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의 집안의 식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양들이 산 위에서 낙오된 채로 있으며, 혹심한 바람에 떨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보다 많이 발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2003, 58)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선교의 특성은 다른 것으로 대체 될 수 없다. 즉 선교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것이다. 중요하고도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선교의 한 목적은 교회 성장이다”(2003, 58).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있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대신할 수는 없다.

섬김은 선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찾음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보내셨다. 또한 섬김이 전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불균형스럽게 강조되어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길을 잃은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섬김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적정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성장의 정도가 항상 고려되어야만 한다. (2003, 58)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잃은 자들을 되찾는 것,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McGavran 2017, 55). 하나님 마음을 알아 잃은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이연주 2018, 33).

충직성 원리

맥가브란은 하나님께 대한 충직성을 강조한다. 익은 곡식이 들판에서 기다린다. “교회가 충성하지 않으면, 곡식이 익은 들판에서 많은 곡식들을 수확할 수 없다”(임윤택 2009, 341). 하나님께 대한 충직성이 곧 교회성장임을 분명히 한다. 즉, 맥가브란은 충직한 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교회에 연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린다고 이해한다. 교회 성장은 충직성의 결과이다(이연주 2018, 34).

교회성장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개신교회의 성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기독교인은 그의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얻는 것 보다도 잃은 자를 찾는데 있는 것이다. 교회성장이란 자비의 행위이다. 즉 강한 자들이 약한자들의 짐을 지고, 굶주린 자들에게 생계의 수단이 되는 빵을 공급하는 일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은 교회성장을 인간애로써 행해지는 한 행위로 보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확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다. 교회성장이란 충성심이다. (McGavran 2003, 31)

기독교인들이 “사랑에 못이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밀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구주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경우에만 교회는 확장되고 증대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은 충성함이 없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일에 충성함을 보이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잃은 양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 되시는 목자는 증거를 찾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 그는 그의 양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2003, 32).

그의 목적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먼 나라에 있는 아들에게 우유가루나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집 문안으로 걸어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교회성장은 또한 발견된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교회성장이란 잃어버린 자들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경우에 발생한다. (2003, 32)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곡식이 익은 들에서 많은 이삭들을 거둘 수 없다”(2003, 39). 교회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을 명령에 충실하여 순종할 때 교회는 성장과 확장이 이루어진다.

즉,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그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고 양떼를 먹일 때에 교회는 증대된다”(2003, 32).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귀한 결단을 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방황하고 표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포와 발견하는 일에 충실한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이후에 충실한 돌봄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발견된 자들 사이에는 말씀은 먹이는 일에 충실함이 있어야만 한다”(2003, 32).

맥가브란은 “성경으로 양육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의 증대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의 것(sin qua non)이다”(2003, 32) 라고 말한다.

맥가브란은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이웃의 삶의 차이를 우려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간격은 성도들이나 교회의 모습을 고립화시켜 복음의 확장성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폐쇄적이거나 고립된 형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웃과 친척들과의 삶 가운데서 성육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2003, 32-33).

결론적으로 맥가브란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어 교회에 연합시키고, 그들을 교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며, 그들의 거룩한 삶이 다시금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되는 하나님의 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교회는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성장이라고 말한다.

신앙부흥 원리

교회성장은 부흥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신앙부흥은 교회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McGavran 2003, 286). “부흥과 선교적 확장은 상호작용을 한다. 부흥해야 선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임윤택 2009, 335).

그들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회심할 때마다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말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부흥운동은 무엇보다도 기존 교회를 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려깊은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신앙부흥운동은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활기를 부여하고 정의와 자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의 계획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수단들을 의미한다. (McGavran 2003, 287)

복음적 각성(Evangelical Awakening)은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의 성령의 활동이다”이며 “복음적 각성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언제나 동일하다. 즉 먼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열렬한 기도”가 있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도를 선결조건으로 한다. 맥가브란은 기도가 부흥을 가져온다 말한다(임윤택 2009, 335).

부흥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의 성령의 활동”이고,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개는 그것을 열렬히 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기도가 부흥을 가져왔다. 먼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열렬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2009, 335)

한국교회에서의 부흥의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McGavran 2003, 287-89).

1907년 1월 첫째 주로 접어들었다. 모두가 하나님이 이 공동기도 주간 중에 그들에게 특별히 축복을 내려 주시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즉 여덟 번째 날이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나타나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주일인 이날 저녁에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중앙장로교회에 회집하였다. 하늘은 뜻처럼 보였다. 정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기구한 성령을 부어 주지 않으실 것인가? 그런데 모두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다. 그 교회의 지도자인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나는 야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지 않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을 맞아 나를 자기 집으로 부르더니, ‘길 목사, 이제 나는 가려네. 자네가 내 집 재산을 관리해 주었으면 하네. 내 아내에게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말게, 내 그렇게 함세’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망인이 된 친구 아내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난 교묘히 100원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난 내일 아침 그 100원을 그 미망인에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2003, 293)

막혔던 붓물이 터졌으며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청중을 휩쓸었다. 그 집회는 주일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월요일 아침 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끝이났다. 그 사이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가 차례가 돌아오면 일어나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 [죄는] 감춰져 있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방해했지만 밖으로 드러나자마자 그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해에 한국에서 열린 모든 신앙부흥집회들이 다 그런 양상을 띠었으며 정서적 반응들이 수반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죄의 고백과 죄에 대한 배상은 때로는 신앙부흥의 관문이고, 때로는 신앙부흥의 결과이다. (2003, 293-94)

죄에 대한 고백, 회개는 엄청난 부흥과 회복을 가져다준다. 부흥은 엄청난 능력을 경험케한다. 그리고 “신앙부흥은 복음을 전하려는 충동을 유발시킨다”(2003, 294-95). 부흥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전한다.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원한다. 부흥은 소명감을 고취한다.

성령이라는 선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할 수 있게하고, 죄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고, 악습을 고칠 수 있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납득시킬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하고, 교회를 튼튼히 성장시킬 수 있게 한다. (2003, 297)

“신앙부흥운동의 동력이 매우 크고 그것이 교회성장을 위해 갖는 잠재력이 매우 엄청나기 때문에 선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부흥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2003, 309).

신앙부흥과 교회성장 간의 일곱가지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교회 내에서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나 동질단위의 다른 성원들을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다른 민족들을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보다 더 큰 교회성장을 가져다준다”
2. 교회 내에서 “신앙부흥운동은 회심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올 때 교회성장을 가져다준다”
3. 폐쇄된 도시교회 내에서의 신앙부흥운동은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기존 교회 밖에서 재생산력이 강한 회심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 교역자들이 교회 성장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는 경우. 둘째, 교역자들이 전심으로 교회성장에만 헌신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일관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셋째, 교회의 선교기관들이 성령이 교회성장을 위해 사용하셨던 방법들에 비추어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4. 인간집단 운동과 거미줄 조직 전도운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은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면 큰 교회성장을 일으킨다. 첫째, 수용성이 높은 인간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둘째, 새로운 회심자 가운데 리더를 발굴하여 훈련하는 경우.
5. 신앙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이, 부흥에 대한 준비성, 성령을 방해하지 않고, 교회사역의 우선순위 등을 알게 될 때 신앙부흥운동은 교회성장을 낳는다.
6. 신앙부흥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 신앙부흥운동은 교회성장을 낳는다.
7. 신앙부흥과 지식의 결합이 한층 중요한 것으로 생각될 때 신앙부흥은 교회성장을 낳는다(2003, 309-12).

맥가브란은 신앙부흥이 교회성장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신앙의 부흥운동은 교회성장을 시작하게 한다(이연주 2018, 40).

민족집단 원리

민족집단을 분별하고 그에 적합한 효과적인 전도계획을 세우라! 맥가브란은 이것을 모자이크 이론(The Mavelous Mosaic)으로 말했다.

인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으며, 각 조각은 다른 조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종종 불쾌하게 보이는 각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McGavran 2003, 337)

세계 모든 민족을 모자이크로 본다면 우리는 선교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봐야 할 것이다. 숨겨진 민족들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 “숨겨진 민족들이라는 용어는 매력적인 용어이다. 이 용어는 소홀히 되고 있는 인류의 다수에 주목한다”(2003, 125). “이 놀라운 모자이크에서 수많은 단편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는 상당히 다양하다”(2003, 116).

맥가브란에 따르면, 윈터(Ralph D. Winte)는 로잔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전도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전도를 E-0, E-1, E-2, E-3의 네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그가, 인류가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선교학에 대한 그의 탁월한 공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E-0은 기존 기독교인들을 갱신시키거나 재회심시키는 데 목적을 둔 전도를 가리킨다. E-1은 기독교인들의 언어와 관습이 유사한 비기독교인에 대한 가까운 이웃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가리킨다. E-2는 인종, 언어, 문화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전도를 가리키며, E-3는 그러한 간격이 매우 큰 사람들에게 대한 전도를 가리킨다. (2003, 111)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민족들(복수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갖기 원하신다”(McGavran 2013, 105).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려면 교회를 통해 이러한 모자이크 조각을 맞추어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진정한 교회성장이 이루어진다(이연주 2018, 42).

전도우선의 원리

맥가브란은 효과적인 우선적 전도를 강조한다.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가 전제하고 있는 교회성장은 전도의 긴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되며 그때가 되어야 끝난다. 이 시간적 한계가 전도의 긴박함을 준다. 더욱이 우리의 선교적 상황이 급변하고 전도의 기회들이 상실되고 있음을 깨달을 때는 더욱 전도의 긴박감을 느끼게 된다.

맥가브란의 전도에 대한 긴박성은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 선교의 필요성과 다양한 방법의 변화와 적용을 가져온다. 그리고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해 사회학, 문화인류학, 타문화 연구 등의 여러 학문들을 통합 사용하는 것은 그에게 당연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전도의 긴박성을 통해서 교회성장의 구체적인 적용 원리인 “효과적인 복음전도”, “수용성의 원리”, “전도우선의 원리”, “제자우선의 원리”, “동질집단 원리” 등의 원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효과적 전도는 교회가 성장할 만한 지역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전하는 방식의 오류 때문에 교회성장이 정체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교회성장의 정체는 잘못된 방법에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목자가 빈손으로 돌아올 때 그 이유는 양들이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고 목자가 다가갈 때 도망가기 때문인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때때로 헛수고는 습관적인 것이며, 그 원인은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느낀 나머지, 복음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면서 양들이 없는 산골짜기를 기웃거리고 다니는 데 있다. 때때로 그 원인은 수십년 동안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데 있기도 하다. 많은 교회들과 선교회들은 그러한 원인들을 제거할 때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McGavran 2003, 90-91).

복음에 대한 수용성 원리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수용성을 강조한다. 특별히 “전도를 통해 교회성을 이룩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수용성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만 한다”(McGavran 2003, 371).

우리 주님은 복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수용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현저한 측면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차이는 도시와 시골, 진보된 사회와 미개사회, 교육받은 사람들과 문맹자들 간에도 나타난다. 그러한 차이는 선교의 모든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회성장을 이해하려면 그러한 차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003, 367)

우리 주님은 씨를 뿌린 후 수확할 수 있도록 곡식이 익은 밭에 대해 말씀하셨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때때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밭은 과거보다 씨를 뿌린 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드문 것 같다. 하지만 때때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속히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성장하는 회중들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2003, 367)

교회성장과 관련하여 민족의 수용성은 변화무쌍하였다. 수많은 요인들이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수용성에 차이를 가져다주는 공동 요인들을 주의깊게 연구하는 것은 교회성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2003, 371).

1. 새로운 개척자들: “새로운 이주자들은 공동체를 찾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결단을 하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개종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해야만 한다(2003, 372).
2. 돌아온 여행자들: 참전 군인들, 노동자로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2003, 373).
3. 피정복자들: “때때로 피정복자들은 정복자에 대하여 원한을 품으며, 그래서 복음전도는 심각한 거절에 직면한다”(2003, 374).
4.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교회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15명이 기독교인들이었으며, 그들중에는 탁월한 기독교 목사들이 끼어 있었다. 교회는 억압받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구심점이 되었다. 민족주의적인 입장에 근거를 둔 교회의 전도는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현저한 교회성장을 이루게 하였다. 민족주의는 교회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McGavran 2003, 375)

5. “통제로부터의 해방: 통제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방해한다. 통제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수그리스도의 요구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2003, 380).
6. 사회화(acculturation): “사회화는 다른 사회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 사회가 그 문화를 변경시키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혁신적 조치들을 받아들이고 그 제도를 수정하는 동적인 과정이다”(2003, 382).

“교회성장의 복잡한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수용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목적은 수용성이 얼마나 유동적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지적인 기쁨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양성을 앎으로써 우리의 청지기 직분과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충성되게 하려는 데 있다”(2003, 383). 그러므로 교회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이연주 2018, 46).

동질집단 원리

맥가브란의 동질집단 원리는 교회성장학의 핵심이론이다. 맥가브란은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민족들(복수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갖기를 원하신다”말한다(McGavran 2003, 105).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교회성장을 위해 인간집단, 동질집단, 놀라운 모자이크 이론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된다. 맥가브란은 인간집단은 더 세부적이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한 국가 안에도 여러 민족들이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 안에서도 문화, 교육, 경제, 언어, 신분 등의 인간 계층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류는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인간집단들이 모인 모자이크와 같다(2003, 108).

인간집단은 질적 동일함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동질집단에 대한 표면적 모습이며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설명될 때에 더 잘 이해되며, 자신들과 같이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 들어가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선교 전략으로 적용하는 것이 동질집단원리이다(2003, 343). 즉 원리는 간결하다. “모든 사람들은 장벽을 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한다” 이것을 동질집단의 원리인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학적 통찰이 필요하다. “인간들은 언어적, 계급적, 인종적 장벽을 헐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훌륭한 청지기직인 것이다”(2003, 366). 그래서 이 특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여러 동질집단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들은 회심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교회들이 증가하면, 교회들은 전이 성장에 의해서 성장할 것이다”(2003, 366). 이러한 동질집단을 이해하는 것이 훌륭한 청지기이며, 이것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한 원리이다.

세계적인 안개이론 원리

맥가브란은 교회들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성장은 신비에 싸여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는 물론이고, 교회성장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무지를 교회를 뒤덮고 있는 안개로 표현한다. 교회성장에 대한 연구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선교의 현장에서 연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맥가브란은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교회성장에 대한 무지는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한다(McGavran 2003, 130).

그는 교회성장을 가리는 것을 보편적 안개라 정의하였고, 7가지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안개를 형성한다고 분석했다.

첫째 원인은 통계적인 요소들이다. 즉, 교회성장은 수치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인들의 수를 부정확하게(대략적 보고, 누락 및 교인의 정의) 보고하기에 그 수치를 통해 교회성장을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원인은 행정적인 요소들이다. 즉, 선교단체에 대한 지원이 실제적인 필요와 효율보다는 형평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선교행정은 다른 부서와의 균형에 교회성장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셋째 원인은 해외에서의 문화적인 편견 요소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선교사들의 문화적 편견과 강한 종파심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들 수 있다. 선교지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성장의 원인과 과정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자신이 경험한 방법만을 강요할 때 교회는 문화적 편견과 차이에 의해 안개에 휩싸일 수 있다.

넷째 원인은 의미상의 요소들이다. 교회, 전도, 사업, 증거 등과 같이 많은 의미를 지닌 모호한 용어들이 이러한 안개를 증가시킨다. 즉, 위의 단어와 같이 그 단어들 속에 많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될수록 교회들의 실제적인 증가의 관점에서 정확한 결과들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다섯째 원인은 심리적 요소들이다. 교회성장을 이루지 못한데서 오는 자기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교회성장을 오히려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하거나, 교회의 정체를 질적성장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여섯째 원인은 선교후원 촉구로 인한 요소들이다. 선교 후원을 촉구할 때 빈번히 발생하는 요소이다. 교회성장에 대한 정확한 보고보다는 회심에 대한 희귀한 사례를 일반화시키거나, 다른 사업을 강조하므로 교회성장을 초점에서 벗어나게 한다.

일곱째 원인은 신학적 원인들이다. 엄청난 신학적 변화는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흔들리게 하였다. 예를 들어, 교회 자체의 가치보다는 도구에 불과하기에 교회의 성장은 무의미하다는 신학적 입장과 교회선교의 방법이 복음전도 보다는 봉사과 섬김으로 보는 선교에 대한 재해석 입장,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의 종교 간의 대화가 현대 선교의 방식 라는 입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안개의 결과로 선교에 대한 개념의 혼란이 생겼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선교적 명령은 단순한 씨 뿌리는 선교, 다른 사업적 선교 활동으로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었다. 또한 안개는 선교지에 균등주의를 야기해 효과적인 선교적 지원을 가로막았으며, 교회성장에 대한 현명한 행동을 방해하였다. 맥가브란은 위와 같은 모호해진 선교의 개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독교 선교의 대치될 수 없는 주요한 목적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책임있는 교인들이 되게 하는데 있다”(2003, 151).

또한 맥가브란은 우리들의 교회를 뒤덮고 있는 안개를 인식하고 그 안개를 몰아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3, 136-51).

교회성장은 사회, 인문과학의 학문을 세속적인 학문으로 취급하여 거부하지 않는다. 성경에 배치되지 않는 한 오히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와그너는 이것을 신성한 실용주의라 부르며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려는 과제에 접근하고 있다”(Wagner 1984, 111)

교회개혁의 원리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은 교회개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교회개혁은 많은 복과 유익을 경험하게 한다.

교회개혁은 전체적인 하나님나라 성장에 유익할 뿐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는 큰 환상이 있는 지역 교회에도 유익하다. 후원은 교회는 새로운 교회에 교인들과 재정을 보낼 수 있고, 또 후원하는 교회는 그 헌신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청지기직의 기본적인 이해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것에 복을 주심은 새로운 교회들이 시작될 때 분명하고, 새로운 교인들에게 후원하는 교회는 그 신바람으로 인해 매력을 갖게 된다. (Rainer 2009, 48).

사도바울은 헌신적으로 자신을 투자하여 교회개혁을 하였다(McGavran 2003, 621).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이 땅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환상적인 교회개혁이 발생하는 것이다”(2003, 622). 맥가브란은 교회개혁이 계속되기를 기도했다. 교회 개혁은 교회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다.

맥가브란은 복음 전달을 격하시키는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교회개혁의 결여’를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한다.

교회 세력의 증대에 대한 두려움, 전후 유럽에 있어서 용기의 감소, 제국상실의 충격, 교회보다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한 세심한 배려, 교회개혁의 결여에 의해 도입된 방어적인 사고, 여타의 모든 요소들이 성직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실질적인 전달을 위한 계획들을 격하시키도록 유혹한다. (2003, 621)

교회개혁이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 맥가브란은 “복음전도는 교회의 개혁이다”(2003, 620) 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인 교회성장은 교회개혁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 개혁을 통한 새로운 교회의 탄생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성장 방법이다.

하나님의 다리 원리

맥가브란은 “모든 인간 사회는 유리한 곳에 다리가 건설된 강 한편에 있는 도시와 같다. 시민들은 다른 장소들에서도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러나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말하며 하나님의 다리에 주목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리를 찾아 사용함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한 청지기들은 다리들을 기억하고 그 다리들을 통하여 왕래해야 한다. “다리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좋은 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우수한 전략이다. (McGavran 2003, 567)

*The Bridges of God*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광순은 *다리원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이연주 2018, 50).

하나님은 전세계에 복음을 전할 임무를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나뭇의 선교전략까지도 세워주셨다. 그 선교전략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을 연결로 연결해 주는 다리를 통해서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에서 그리스와 로마로 건너가는 다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바울은 이 다리들을 가장 잘 이용한 선교 전략가였다. (McGavran 1993, 9)

하나님의 다리가 핵심이다.

The Bridges of God 이 책에서의 선교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면서도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 저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전략이 바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살마들을 통한 집단적인 개종이다. (1993, 10)

맥가브란은 “기독교 신앙은 친척에서 친척, 가까운 친구에서 가까운 친구에게로 가장 잘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McGavran 2003, 567-68).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다리들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친척과 친지들의 네트워크는 교회성장을 위한 최상의 대로이다. 다리들을 사용하라(2003, 589).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다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예루살렘의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친척, 친지들에게 전도하였다. 박해로 피난하였을 때 다른 촌락에 사는 친지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교회는 그들은 친지들에게 주 예수에 관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구원의 길에 관하여 말하였다. 유대의 농부들 가운데서 대단히 성장하였다. 룻다와 샤론 부락은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지는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구브로였다. 바울은 첫 번째 저도 여행지로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을 방문하였다. 바울의 아버지는 이 도시들에 사는 유대인들과 사업적 거래를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출신의 유망한 젊은 랍비로 인식되었기에 가는 회당마다 강연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2003, 569)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다리들의 명백한 증거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비록 로마에서 산 적이 없지만 로마에 사는 26명의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그리고 그는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알았다. 이들 중 몇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의 친척도 있었다. 그는 루포의 어머니를,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다리는 친척들만인 것은 아니다. 훌륭한 친구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연적인 의사전달의 통로가 된다(2003, 574).

인간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교회성장 전략 가운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자연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교회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 가운데 교회주변을 복음화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된다”(2003, 588). “친척들과 친지들의 네트워크는 교회 성장을 위한 최상의 대로이다. 다리들을 사용하라”(2003, 589).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내 이웃과 친구들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대한 전도계획 원리

맥가브란은 효과적인 교회성장 위해, 일반적인 심각한 오류를 없애려고 한다면 담대하고 과감한 전도계획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교회성장은 그를 위한 과감한 계획없이 는 좀처럼 이룩되지 않는다”(McGavran 2003, 622). 전도를 위한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노력이다. 기독교인들이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수행하고자 할 때 그들은 교인들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노력을 주된 과제에 초점을 두게 한다. 목표의 설정은 요구되는 사실들을 확립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책임들과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그들의 우선 사항들을 바르게 배열하도록 그들에게 작용한다. 그것은 그들의 목표에 붙잡아 맨다. (2003, 590)

그리고 이러한 목표 설정에는 유익함이 있다.

목사들과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선 사항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일치시키도록 돕는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직업 및 선행의 유지라는 정글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그것은 선교학자들로 하여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이 확고한 목표가 되지 않는한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뜻에 반하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모호한 인도주의 또는 지적인 탐구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다. (2003, 591)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을 위한 목표설정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목표설정은 교회의 기본적인 책임과 이용가능한 자원들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계획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며, 교회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어야만 한다. 즉 와그너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추종자들의 숫자로 증가되어야만 하는 것,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교회성장의 목표이다(2003, 603).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2003, 609).

1. 복음전도가 철저하게 성경적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목표설정은 측정할 수 있는 교회 성장이 성경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시작한다(2003, 609).
2. 과거의 성장을 도표로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도표는 50년까지 소급해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정도면 충분하다. 교인들이 어떻게 하여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람직이며, 교인들의 분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생물학적 성장, 전입성장, 개종성장 등을 살펴보라. 미래의 성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는 연간 평균 성장률(AAGR)이다. 절대 수치를 이해하는 것에 더하여 지도자들은 그 교회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였는가를 알아야 한다(2003, 609-12).
3. 신앙에 입각한 기획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또는 교단에 어떠한 성장을 허락하시는지 헤아리라(2003, 610).

전도를 위해 과감한 계획을 세우고 선교의 각 단계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이연주 2018, 56).

1. 연구조사의 단계이다.
2. 훌륭한 지원을 받은 전초기지의 단계이다.

3. 교회들의 힘있는 군락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복음에 응답하는 지역 사람들은 성령의 문화적 충동 또는 기타 행동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복수적인 개인 결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McGavran 2003, 634).
4. 주민들의 본질적 기독교화가 이루어진다. 주민의 3분의 1, 절반, 혹은 10분의 9가 기독교인이 된다(2003, 635). “하나님의 이 단호하신 목적을 수행할 의욕적이고 과감한 계획들이 필요하다”(2003, 648).

지금까지 언급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의 원리 12가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는 지도력의 원리이다. 교회는 헌신된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데 맥가브란은 구체적으로 12가지 성장이유중 6항목이상을 지도자의 지도력에 연관을 두어 설명하였다. 그는 성장하는 교회들은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영성을 통하여 개척 및 전도, 회개, 은사체험 등을 하게 되며 이러한 헌신적인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는 수용성의 원리이다. 수용성의 원리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종족과 복음에 저항적인 종족이 있는데 복음을 수용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원리이다. 맥가브란은 더불어 이러한 수용적인 종족에 토착선교원리와 인간운동원리를 적용하여 토착민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로 여겨지게 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는 환경적 요인이다. 교회성장에 유익한 교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을 잘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심어 주어 교회의 성장이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2003, 247-48).

맥가브란이 제시한 12가지의 교회성장원리 중 절반 가량 차지하는 주제는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다. 즉 목회자가 어떤 리더십과 충직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목회철학을 가지고 성장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교회성장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와그너는 또한 성장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표적에 대하여 일곱가지 표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사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둘째,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발전시켜서 성장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셋째, 교회는 교인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넷째, “대예배”(Celebration)와 “모임”(Congregation)과 “세포조직”(Cell), 이 세 가지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가 상황에 적합한 균형을 유지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Wagner 1997, 147).

다섯째, 교인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질 구성 단위에서 형성되어야 된다.

여섯째, 전도 방법은 “제자”를 만드는 데 그 기초를 두어야 된다.

일곱째, 우선순위 들은 성경적인 순위대로 정렬되어야 된다.

와그너가 제시한 교회성장의 일곱가지 요소들이 교회성장에 있어 모두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그중에서도 와그너가 우선적으로 제시한 교회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맥가브란이 강조한 것처럼 목회자의 리더십 철학에 대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게리 맥킨토시(Gary L. McIntosh)는 “생명을 주는 교회는 지상최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동역에 충실히 임하는 목회자들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McIntosh 2004, 121)라고 주장하면서 목회자의 리더십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존 맥스웰(John C. Maxwell)은 리더십의 중요성 강조하며, “모든 일의 성패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고, 또한 “리더십 성공의 열쇠는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말한다(Maxwell 2005, 13). 그러므로 목회자의 리더십 철학은 교회성장의 원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 성장형 리더십 철학

교회성장에 있어서 리더십 철학은 그 무엇 보다 중요하다. 교회성장학자들은 목회 리더십 철학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에디 깁스(Eddie Gibbs)는 “인물 숭배를 초래하는 슈퍼스타식 해결방법과 스타 부재시에 겪어야 하는 중한 질병에 대해 부정한다 할지라도 리더십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회피할 수 없다”(Gibbs 1991, 278)고 하였다.

리더십 철학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교회성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리더십 철학은 교회성장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됨과 동시에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우리는 흔히 교회성장의 핵심을 목회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성장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한 회중의 담임목사로 이해되기 쉽다. 지역의 상황이나 교회역사, 교회의 규모 같은 요소들이 성장의 잠재성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교회를 비성장에서 성장으로 움직이는 힘은 목회적 지도력이다(Rainer 2009, 226).

여기에 대해서 와그너는 “일반적으로 지도력, 특히 목회적 지도력은 교회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2009, 225)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을 이루기 위한 여러가지 원리와 원칙들이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의 리더십 철학이야말로 현대 교회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리더십의 정의와 형태

클린턴(Clinton)이 영적지도자 만들기에서 말한것과 같이 엘리스턴(E. J. Ellistion)도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리더십은 언제나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갖는다. 그것은 리더,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이다” 라고 정의한다(Leith 2005, 67). 리더십은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이며 이 관계가 리더십을 형성한다. 이에 대하여 맥스웰은 좀 더 명확하게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2005, 23)라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말하는 리더십 영향력은 클린턴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능력보다는 리더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리더십의 정의를 볼 때 목회 리더십 철학이란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교회 지도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회 리더십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유능한 교사로서의 리더십이다. 개신교 교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지도력 모형은 유능한 교사이다. 교사는 성경을 가르친다. 여기에서 리더는 교사 역할을 감당한다. 이때 리더십은 이론적으로 가르치는데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오히려 삶 속에서 현장학습을 통하여 이끌어 나가야 한다.

둘째, 격려하는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이다. 이 형태는 카톨릭교회 혹은 정교회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지도자는 그가 목회하는 목회사역을 전생애에 걸친 소명으로 여기며, 독신의 서약을 하고, 개신교보다 더욱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에 머무를 수 있다.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은 족장 전승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부권적 독재의 형태를 떠나, 아버지로서 자식을 격려하듯이 안정적인 형태의 리더십으로 나타난다.

셋째, 돕는 형제로서의 리더십이다. 형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즐겨 사용한 용어이다. 형제란 용어가 나타내듯이, 아버지로서의 리더십과는 달리 “친족유대”를 형성한다. 사도바울의 사도직은 교인들을 형제되게 하는데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다. 형제가 되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는 리더이지만,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목회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고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는 상호작용이 되어야 한다. 형제에는 지도자와 교인이 삶의 고통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며 서로가 베푸는 격려와 도움을 누리게 해준다.

넷째, 순종하는 종의 리더십이다. 목회리더십은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노력하나, 절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였고, 예수님 역시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므로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적 모형이 다른 교인들이 행하고 있어야만 하는 모든일들을 대신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지도자는 모범을 보이는 종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Gibbs 1991, 286-94).

위 네 가지 리더십 모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단지 각 지도자의 개성과 인격,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지배적인 모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형태의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지도자는 리더십의 단계에 따라 성숙되어 간다.

리더십의 단계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단계를 다섯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1단계는 직위(당신의 직위에서만 리더십이 발휘된다)의 단계이다. 이 단계의 리더십은 직함에서 나오는 것뿐이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도자는 환경으로 인한 기득권, 의례, 전통, 조직 등에 의존한다.

사람은 어떤 지휘에 임명됨으로써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는 그 지위를 통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위를 능가한다. 그것은 기술적인 훈련을 받거나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그 이상으로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기꺼이 따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리더십이란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만 배웠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직책 때문에 나를 따르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할 때 얼마만큼 즐거워하고 성공하느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리더십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2단계는 허용(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된다)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지도자를 위해 일하게 된다.

프레드 스미스(Fred smith)는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신을 위해 하도록 만드는 역량이다”라고 말했다. 이 영향력이라는 리더십은 두 번째 수준에 올라갈 때만 가능하다.

리더십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결코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더 많은 규칙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 허용이다. 그러나 견고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은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음을 곧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장하지 않고 이 단계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면 결국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3단계는 성과(일의 성과가 달성된다)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성과와 성장의 유익을 말한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성과물들로 인해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 좋은 일이 생기고, 수익이 증가한다. 사기가 올라간다. 이동률이 낮아진다.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며 목표가 달성된다. 이러한 성장에 수반되는 것이 있다. 커다란 힘, 영향력이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문제가 해결된다. 조직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신선한 전략에 대해 토론한다. 모든 사람들은 결과 지향적이다. 사실상 결과를 얻는 것이 활동의 주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성과는 지도자를 따르고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4단계는 인물 개발(뒤를 이을 지도자를 개발한다)이다.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피지도자가 지도자의 훈육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할 때 그 극치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성립된다.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피지도자는 지도자를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면 피지도자는 지도자를 존경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비로소 피지도자가 지도자에게 충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도자가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잘 도와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지도자를 통하여 또 다른 지도자들이 배출된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인격(더 이상의 리더는 없다)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소수만이 누리는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인정받는 리더십을 위한 평생의 노력만이 이 수준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Maxwell 2005, 30-39).

맥스웰의 리더십의 다섯 단계는 좋은 지도자로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요약

본 장에서는 교회성장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성장 방안들에 대하여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 그리고 벤 앵겐을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학파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리더십 철학이야말로 교회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교회성장의 의미를 파악하므로 왜 교회성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성장의 유형과 성장의 주요원인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결과 교회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회자의 리더십 철학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본 연구의 중심주제인 교회성장과 목회자의 목회철학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다음장에서 필자는 리더십 철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일반적인 리더십 분석방법이 아니라 풀러 선교대학원의 리더십 교수였던 클린턴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이론은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본 리더십 연구로써,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점과 지도자의 전 생애에 개입하시고 인격과 목회철학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에 주목해 보게 한다.

필자는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과 태평제일교회의 성장 및 교회개척이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있었음을 이 이론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의 중심주제인 사역의 발전단계와 리더십 개발 과정상의 항목 점검, 그리고 사역철학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제 3 장

클린턴 교수의 영적지도자 만들기

본 장에서는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의 중심주제인 사역의 발전단계와 리더십 개발 과정상의 항목 점검, 그리고 사역철학에 대해서 기술한다.

로버트 클린턴은 약30년 전에 6년에 걸쳐 5백여 명의 지도자들의 삶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영적 지도자 만들기(The Making of a Leader)* 초판을 저술한 다음 25년 이상,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례연구자료를 종합하였다(Clinton 2017, 22). 클린턴은 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하여 그리스도인 특히 지도자의 성장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하여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를 훈련시키시며 효과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2017, 25).

영적지도자 만들기의 개념은 삶의 과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된다. 각 사람의 삶은 다양하고 독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패턴 즉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클린턴은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을 연구하였다. 또한 리더들의 생애를 사역의 시간선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리더십은 전 생애를 통한 학습이므로 몇 개월이나 몇 년의 교과 과정으로 끝내거나, 스스로 하는 온라인 강좌식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된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가를 주의하여 볼 때 우리는 교훈들을 추려내고 배울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그들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시간선(timeline)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정리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개발하고 리더십을 강하게 하는데 사용하셨던 많은 방법들을 보게 되며,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패턴들도 알게 된다. 시간선이란 많은

사역자들의 생애를 분석 연구하고 종합하여 만든 일반적인 시간선이다. 그리고 수평선 위에 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표기한 일생의 선상(線上) 분류를 말하는 것이다. 이 시간선이 리더의 생애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도구이자 조감도이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전 생애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개발시키셨으며,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배울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본받을 만한 귀한 가치들을 배우게 된다(2017, 61-66).

삶의 조감도

한 사람의 생애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패턴, 과정 그리고 원리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패턴은 한 생애의 전체적인 틀 혹은 큰 그림을 말한다. 과정이란 전체적인 패턴 안에서 리더를 인도하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말한다. 원리란 리더에게 넓게 적용되어온 과정들과 패턴들 속에 나타난 기본적인 진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Clinton 2017, 64)

그래서 패턴을 연구할 때 시간선은 장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 아주 유용하다. 과정을 연구할 때 그 과정 항목들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보면,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들과 특별한 개입, 사람들, 그리고 내면적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교훈들이다. 과정 항목은 또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리더십의 역할을 확인하고, 잠재적 리더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역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원리들은 패턴이나 과정과는 다른 것으로 그것은 기본적인 진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17:64).

리더십 개발의 일반적 단계와 패턴확인

하나님께서서는 리더를 평생에 걸쳐 개발하시는데, 한 사람의 생애를 선으로 분류하는 도표인 시간선(timeline)은 리더의 생애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왜냐하면 시간선을 통해 한 생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반적인 패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일반적으로 6단계로 생애의 선상을 분류한다.

<표 1>

리더십 개발의 일반적 6단계
(Clinton 2017, 66)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주권적 기초단계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	사역의 성숙단계	삶의 성숙단계	수렴단계	회상(혹은 축제) 단계

클린턴은 사람의 생애에서 한 시기의 단위를 표현해 개발 단계라 말한다.

우리는 한 시기별로 단위를 분류할 때 한 리더의 삶에 나타나는 개발의 특성이나 개발의 방법에 근거하여 확인한다” 이 중요한 시기들의 단위들에 각각 라벨을 붙여 ‘주권적 기초 단계’,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 ‘사역의 성숙 단계’, ‘삶의 성숙 단계’, ‘수렴 단계’ 그리고 ‘회상(축제) 단계’로 명명했다. (2017, 66)

개발 단계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이렇게라도 구분해 보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주어진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2017, 66).

다음은 클린턴이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다루어 가시는 개발 단계 6단계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개발 단계

1단계인 ‘주권적 기초 단계’(Sovereign Foundations)은 하나님께서는 잠재적 리더의 출생과 함께 가정, 환경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생애에 기초를 놓아줌으로써 리더를 개발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적인 작업이다. 잠재적 리더는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기초 단계에서 그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권적 기초 단계에서 그들은 어떤 의미 있는 영적 진입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다(Clinton 2017, 67).

잠재적 리더가 진입하는 다음 단계는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보다 깊게 더 가깝게 사모하는 단계로, 클린턴은 이 시기를 2단계로 정의하여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라고 명명했다. 이 시기에 리더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별, 이해, 순종 가운데 성장함으로써 검증을 받게 된다. 이 초기의 검증은 매우 중요한 검증으로 리더가 리더십에서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결정적인 경험과정이다. 보편적으로 잠재적 리더는 대개 어떤 형태로든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 행함을 통한 이 학습 과정에서, 즉 순종함으로 그는 새로운 내면적 삶의 교훈들을 얻게된다.

이 단계에서 리더십의 잠재력이 확인되며, 하나님께서는 검증의 경험, 시험을 통해 잠재적 리더의 성품을 개발시키기 시작하신다. 중요한 점은 이때 잠재적 리더가 신실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근본적인 교훈들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만일 리더가 이때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같은 분야에 대하여 다시 검증을 거치게 된다. 또한 이 검증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통과하면 사역이 확장되거나 더 큰 책임을 맡는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2017, 68).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눅 19:17).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3단계인 ‘사역의 성숙 단계’에서 잠재적 리더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장한 지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기 시작한다. 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 실습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역의 접목이며 리더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목표를 맞추는 일과 개인의 사생활에 나타나는 부적합한 일들에 주의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통하여 리더가 은사를 파악하게 하고 사역의 기술을 확인하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하며 더불어 그 지도자의 인격을 개발시킨다는 점이다. 3단계 사역단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품에서 사역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기를 원하신다(2017, 68).

4단계는 ‘삶의 성숙 단계’이다. 리더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서 그의 영적 은사를 파악하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리더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최고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도 이해하게 된다. 리더는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 또한 자신이 겪게 되는 고립, 위기 그리고 갈등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 더 나아가 “리더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성숙해지면서 ‘사역은 사람 됨됨이(성품)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원리가 새로운 의미로 깨달아진다”(2017, 69).

이 단계에서 리더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발전된다. 주님과 의 교통이 항상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교통을 사역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사역체가 더욱 현실적이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개발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 순종 반응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욱 깊게 해주며, 하나님의 사역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하는 근거가 되게 된다. 이 ‘삶의 성숙 단계’를 거쳐 리더는 수렴단계로 나아가게 된다(2017, 69-70).

5단계인 ‘수렴(집중) 단계’는 하나님께서 리더를 그의 은사 조합을 맞추고, 사역 경험에 있어서는 극대화 시키는 단계이다. 리더는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사역에 활용하는 때이며 그의 은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이다. 이 시기 동안에는 삶의 성숙과 사역의 성장이 함께 만나 절정을 이루는 황금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이르면 지도자의 잠재력은 최대 한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수렴(집중)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인격적인 개발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소속 단체에서 제한된 직책을 계속 맡김으로써 더 이상 리더로서 크지 못하게 가로막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생애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리더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직책과 역할로 이끌어주는 일이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에 평온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자질들을 함께 구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한다. 즉, 이 수렴 단계는 리더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나타나게 된다(2017, 70-71).

마지막 6단계인 ‘회상 단계(혹은 축제 단계)가 있다. 이 단계는 리더의 전 생애를 통한 사역의 열매와 성장이 하나로 융화되어 인정받는 시기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회상 단계에서 지도자들은 긴 생애를 통하여 형성되어온 수많은 관계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꾸준히 따라온 그 리더들의 인생 행로를 따라 가려고 할 것이다. 또한 생애 전반에 걸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얻은 지혜의 경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축복이 될 것이다. 이 6단계에서는 신경써야 할 개발적인 과업은 없지만, 전 생애를 다루시어 사역자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일생에 걸쳐 삶의 성숙과 발전을 허락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 6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는 지도자는 아주 적은 숫자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클린턴은 영적지도자 만들기 마지막 부분 부록에서 언급한 여섯가지 장애물을 기술한다(2017, 71).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가로막는 여섯 가지 장애물

1. 재정(Finances): 권력의 지위를 가진 리더들은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재정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하고, 결국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탐욕에 눈이 먼 자는 결국 재정적

비리와 부정을 범한다. 그런데 수많은 리더들이 돈에 연루된 이슈들 때문에 리더십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2. **권력(Power):** 효과적인 리더들은 그들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권력 기반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오른 리더들은 지휘에 따른 특권의식을 갖고 권력을 유용하고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책무관계를 갖지 못함으로 유종의 미를 방해하게 된다.
3. **교만(Pride):** 교만(부적절하고 자기중심적)은 리더를 결국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 리더는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가 사역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잊지말아야 한다.
4. **성(Sex):** 리더들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해 몰락하게 되는 것을 성경과 오늘날의 다양한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5. **가정문제(Family):** 배우자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아니면 형제들 간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리더의 사역을 망칠 수 있다.
6. **침체, 정체기(Plateauing)** 이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잘 극복하지 못한 지도자는 그 사역을 잘 마무리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어느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된다. 삶을 마무리 하는 그 순간까지 지도자로서 장애물에 걸려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 늘 깨어 있어야한다. (Clinton 2017, 319-20)

클린턴은 이처럼 여섯 가지 장애물을 언급하며 리더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클린턴은 유종의 미를 거둔 리더들에게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다섯 가지 강화수단을 소개하고 있다.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의 다섯 가지 강화수단을 기술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의 다섯 가지 강화수단

1. **안목(Perspectives):** 리더는 사역에 대해 평생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효과적인 리더는 현재의 사역을 평생의 안목으로 바라본다. 그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도움을 준다.
2. **갱신(Renewal):** 성장하는 리더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특별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도전과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인식해야 하며, 사역을 지속해 나갈 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반복적인 갱신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힘이 된다.

3. 영적 훈련(Disciplines): 리더에게는 모든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영적 훈련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게한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습관을 형성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4. 배움의 자세(Learning Posture): 정체기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바로 잘 개발된 배움의 자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우는 자세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리더들은 평생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멘토링(Mentoring): 유종의 미를 거둔 리더들은 그들 곁에서도와준(멘토링)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두고 있다. 어떤 리더든지 상관없이 리더십 평생 개발을 위해서는 언제나 멘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평생에 걸쳐 삶과 사역 가운데 성장하도록 경고와 함께 조언을 해 주는 멘토를 찾아 멘토링 받는 것이 중요하다. (2017, 322-27)

자신의 개발 단계 확인하기

개발 단계가 바뀔 때마다 리더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단계가 달라지면 과정 항목의 종류도 달라진다.

둘째, 각 단계는 구체적인 경계선 항목과 함께 끝난다.

셋째, 개발 단계가 바뀌면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영향권)도 달라진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리더를 개발하기 위해 섭리적인 사건, 사람들, 그리고 환경을 사용하셔서,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또한 삶의 어떤 항목들은 리더십의 개발에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있다(Clinton 2017, 72).

지도자의 첫걸음

클린턴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말한다. 그리고 워렌 위어스비는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성품을 제쳐둔

사역은 단지 종교적 행사일 뿐이고, 더 못된 것은 그것이 바로 종교적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Clinton 2017, 86).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것은 진실성(Integrity)일 것이다. 이것은 어떤 명예로도 성품을 대치할 수 없다. 워어스비가 경건한 본질을 ‘진실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리더의 개발에 있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초기에는 성품을 쌓는데 초점을 두고 시간과 영향력을 집중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2017, 87).

하나님께서서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지도자의 전 생애를 통하여 각 단계마다 중요한 과정상의 항목을 거쳐서 삶과 성품을 발전케 하시며 성장하도록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중요한 과정 항목을 가지고 잠재적 리더의 성품을 시험하신다. 이 단계 과정 가운데 세 가지는 시험의 성격상 검증(check)가 있는데, 클린턴은 이것을 ‘진실성 검증’(integrity check), ‘순종 검증’(obedience check) 그리고 ‘말씀 검증’(word check)라 부른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인 사역 과업은 빈번하게 이 내적인 삶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것도 시험 과정의 하나이지만, 사역에서 잠재적 리더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2017, 87-88).

진실성 검증(Integrity check)

진실성 검증이란 리더의 성품을 다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를 평가해 보려고 사용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 진실성 검증은 리더의 영향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약대 역할을 한다.

지도자의 성경적 자질을 말할 때 이 진실성 개념은 반드시 포함이된다. 진실성이란, 도덕 규범과 그 방법에 대한 집착, 신실성 및 정직성 등 가치관에 대한 비타협적인 집착, 그리고 속임수나 인위적인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웹스터 사전). 하나님께 부여하신 지도 능력에는 은사와 인격(성품) 이 두가지가 있다. 이 진실성은 성품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 (Clinton 2017, 88)

잠재적 리더는 진실성 검증을 통해 진실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이 진실성 검증에는 세 분야가 있다. 즉, 내적 확신의 지속성에 대한 도전, 그 도전에 대한 바른 반응,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사역 확대이다.

다니엘서 1장 8-21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 놓으면서 뜻을 정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 검증에 대한 바른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른 대응 자세를 보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관장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즉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또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케 하심으로 정부의 고위직을 맡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성 검증을 통하여 심각한 압박 가운데 내적 신념을 지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귀하게 보셨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념 위에 굳게 섰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와 같은 경험은 후에 삶의 더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때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대처하도록 해주었다. 바로 이것이 진실성 검증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므로 진실성 검증은 효과적인 리더에게 있어서 꼭 거쳐야 되는 단계인 것이다. 클린턴의 일곱가지 진실성 검증 샘플을 소개한다(2017, 88).

- 가치관(자신의 내적 신념을 결정한다).
- 유혹(자신의 내적 신념을 시험한다).
- 사역 비전에 대한 갈등(자신의 믿음을 시험한다).
- 두 갈래로 나뉜 인도함의 상황(자신의 소명을 시험한다).
- 핍박(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시험한다).
- 충성(자신의 충성심을 시험한다).
- 보상(자신의 정직성을 시험한다).

검증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어떤 것은 약속이나 서원의 실천 유무를 시험하고, 사역이나 비전에 대한 헌신을 확인할 때 사용되지만 내면이 성품의 강인함을 재확인할 때, 그리고 믿음을 세우고자 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다른 것들은 내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순종을 가르치는 데,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채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데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리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쓰임받는 증거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만드는 과정 항목인 것이다.

물론 진실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리더를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진실성 검증은 리더에게 필수적 요소이다. 특히 사역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진실성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초석이다. 그것은 리더의 성품에 초기에서부터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리더십 개발에서 이 진실성 검증을 무시한다면 장래에 더 큰 위험을 맞이하게 된다(2017, 91-94).

순종 검증(Obedience check)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순종 측면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순종 검증이란 하나의 과정항목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게 된다. 리더는 자신을 개발하는 순종 검증의 초기에 이것을 직면하게 되며, 생애 가운데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진리에 대하여 리더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시험하신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전형적인 순종 검증이 등장한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1-2)

순종 검증이 어려운 것은 클린턴이 어떤 지도자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제단에 뭔가를 놓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고무칼을 가지고 제단 앞에 갈 뿐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고, 어떤 전제가 깔려있는 순종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짜 칼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이삭을 살려주셨다. (Clinton 2017, 95)

“그것이 이치에 맞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몰라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문제는 달라진다. 순종은 이해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이삭을 죽이는 문제는

윤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다”(2017, 95).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 이것은 하나의 순종 검증인 동시에 진실성 검증임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압박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격(성품)의 한 부분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히브리서 11장17-19절은 이것에 대하여 증언하며,

아브라함의 복합적인 경험이 성공적인 순종 검증에 대한 패턴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그분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신다. (2017, 9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말씀대로 반응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이삭의 생명을 보호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건없는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을 검증하셨다.

순종 검증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역사에 자주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의 리더십 개발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어떤 예는 소유하는 것과 나누는 것을 배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면을 배우는 것이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받기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다른 예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용서하는 것, 잘못을 자복하는 것, 옳고 그른 것에 빨리 반응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포함된다. (2017, 96)

리더가 먼저 자신이 이끄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본을 보임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지도자 자신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순종 검증은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에서 검증 패턴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된다. 즉, 순종은 제일 첫 번째로 리더가 먼저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2017, 94-98).

말씀 검증(Word Check)

리더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말씀을 받는 능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2017, 98).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은사는 영적 권위를 세우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필수적 요소이다. 영향력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진리를 분명하게 해석하는 능력은 소위 ‘말씀의 은사’라고 부르는 영적 은사군의 본질이다. (Clinton 2017,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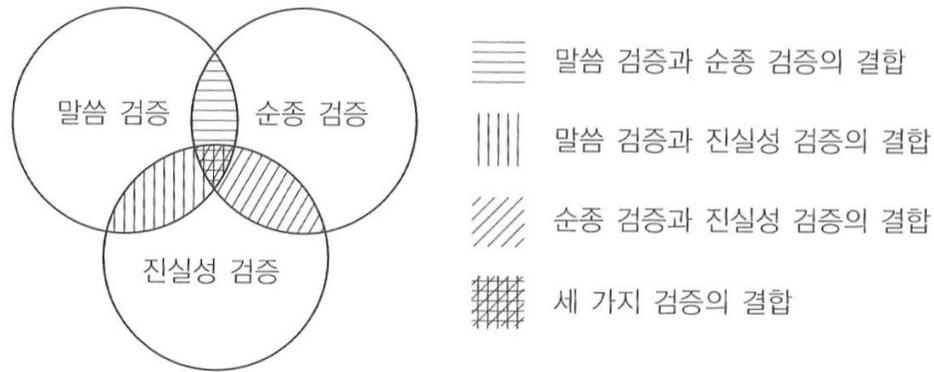
리더는 그들의 복합 은사와 함께 최소한 한 가지 말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된 말씀 은사에는 “가르치는 은사, 예언 은사, 그리고 권면의 은사가 있고, 이차적인 말씀 은사에도 사도, 전도, 그리고 목회 은사 등이 있다. 리더들은 이 말씀 은사를 사역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2017, 98).

경건한 리더는 진리를 사랑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부지런히 먹여 성장시킨다.

말씀 검증은 하나의 과정항목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진리에 대하여 감사하며, 진리를 취하는 습관을 키워주시고,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서 매일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개발을 설명해 주는 데 사용되는 과정을 ‘말씀 검증’이라 한다.

말씀 검증이란 “하나님께서로부터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거나 혹은 이해하는 리더의 능력을 시험하는 과정 항목”이다(2017, 99). 이 말씀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 더 많은 진리로 이끌림 받는다. “진리는 잠재적 리더의 역량을 인도하도록 재확인해 주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적 권위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려준다”(2017, 98-99).

이 말씀 검증은 진리성 검증, 순종 검증과 함께 자주 복합적으로 중복해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계시된 진리가 진실성과 순종을 동시에 시험하기 때문이다.



<그림 2>

검증 항목의 중복 현상에 대한 그림(2017, 107)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도 이 말씀 검증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기 동안에 사무엘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그 무대이다. 사무엘상 3장1-10절에 사무엘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네번 부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아들의 죄 때문에 엘리 집에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을 보여주신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사무엘은 다음 날 아침에 이 모든 것을 엘리에게 말했고, 엘리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온 분명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2017, 100-1).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삼상 3:19-21)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거둬 확인하신다. 특별히 잠재적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음을 유지하는 것은 리더가 영적 권위를 얻는 길이다.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확인시켜 주시며, 사역은 확장된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한 것은 모든 잠재력 리더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이다(2017, 101).

이 말씀 검증을 통해 개인적으로 받는 교훈은 곧 그가 속한 집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디딤돌이 된다(2017, 108).

요약

내면의 삶 성장 단계에서는 중요한 전반적인 패턴을 보게 된다. 이 패턴은 검증을 거치게 되고, 시험 통과하면 사역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된다. 진실성 검증, 순종 검증, 말씀 검증은 하나님께서 잠재적 리더를 시험하시는 수단들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의 ‘검증’에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그 결과는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사역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경건한 리더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룹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적인 삶의 성장 시험, 즉 진실성 검증, 순종 검증, 말씀 검증은 리더의 역량과 책임감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성품(인격)은 리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초석이 된다. 그래서 이 검증들은 주로 잠재적 리더를 위한 것이다. 성품의 열매, 즉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리더의 개발과정에서 다리를 놓아 길을 여는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일생동안 배워야 할 학습의 첫번째 과목들이며, 귀중하고 매우 유익한 심각한 것들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세가지로 기술된다.

첫째, 진실성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초석이다. 그것은 리더의 성품에서 초기에 반드시 가르쳐야 하며 습득되어야 한다.

둘째, 순종은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그런 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

셋째, 리더십 은사는 우선적으로 말씀 은사가 포함되며, 먼저 말씀 검증을 통해 드러난다.

이 일반적인 시간선에 따른 내면의 삶 성장 단계를 다루시며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키우시기 위해 가장 먼저 그의 인격(성품)을 다듬는 일을 하신다. 진실성은 내면적 삶을 알아보는 진정한 측정 기준이다. 성품 개발은 사역보다 우선하는 일이다. 우리는 진실성

검증, 순종 검증, 그리고 말씀 검증을 시험하는 패턴들을 보았다. 이 검증들은 리더십의 잠재성을 확인해 주고, 잠재적 리더로 하여금 사역에 진입하게 한다. 잠재적 리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잠재적 리더가 받기만 하던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개발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과정 항목 두가지, 기초 사역 패턴(foundational ministry pattern)과 은사 발견 패턴(giftedness discovery pattern)을 기술하고,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Clinton 2017, 114).

사역의 성숙 단계

잠재적 리더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네 단계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의 리더십 역량을 개발시키신다.

- 1단계: 진입(entry)- 하나님께서는 잠재적 리더를 사역 안으로 도전하신다. 이것을 ‘진입’이라 부른다.

- 2단계: 훈련(training)-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기술과 영적 은사들을 개발시켜서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향상시키신다. 이것을 ‘훈련’이란 부른다.

- 3단계: 관계 학습(relational learning)- 그분은 리더를 움직여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다. 이것을 ‘관계 학습’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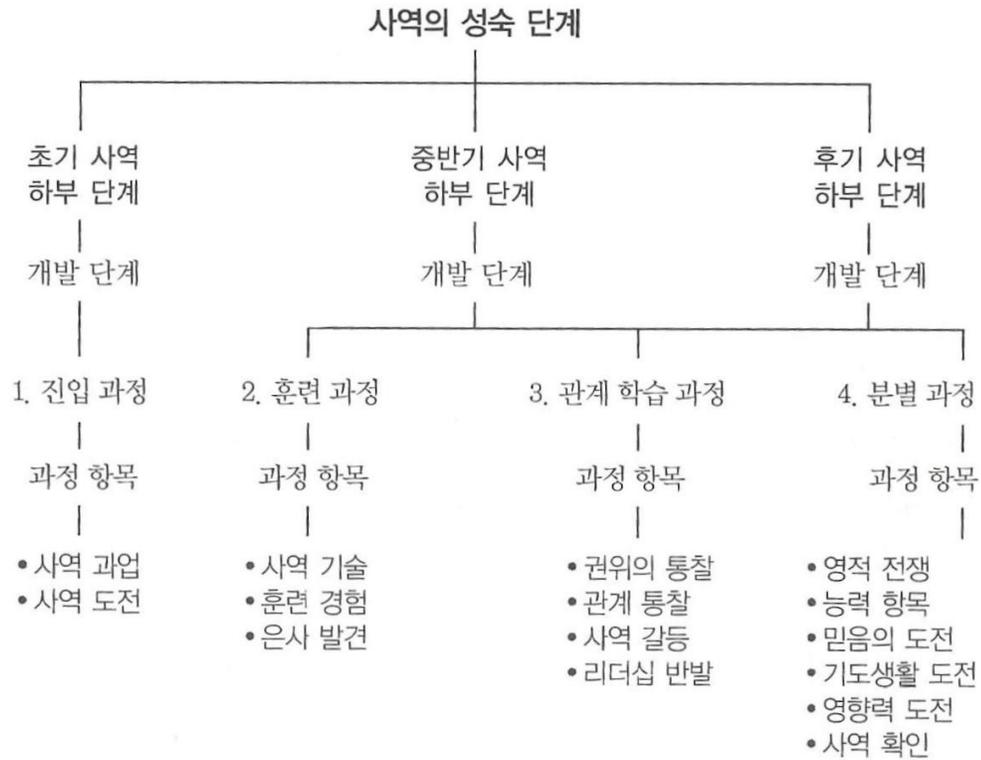
- 4단계: 분별(discernment)-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그분을 기쁘게하는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을 ‘분별’이라 부른다.

이 개발은 오랜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때로는 많은 해가 걸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다시 여러 개의 하부 단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각각 초기 사역, 중반기 사역, 그리고 후기 사역이라 부른다. 이 하부 단계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을 그룹으로 모아놓은 단계다. 이 개발 단계를 분명하게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은 배우는 과정에서 더러 중복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훈련 단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때는 관계 학습이나 분별 과정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각각의 하부 단계는 다른 과정 항목 세트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초기 사역 하부 단계에서 나타나는 과정 항목은 사역 과업(임무)과 사역도전이다. 중반기 사역 하부 단계에서의 과정 항목은 사역 기술과 훈련 경험 그리고 은사 발견이다. 후기 사역 하부 단계의 과정 항목은 사역 구조의 통찰과 능력 항목이다. 그밖에 여러 가지 과정 항목들이 사역의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믿음에 대한 도전, 권위에 대한 통찰력, 사역 갈등 그리고 사역 확인이다. 이 여러 가지는 복잡하게 들리지만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2>

초기, 중반기, 후기 사역의 하부 단계와 과정 항목
(Clinton 2017, 116)



초기 사역 하부 단계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잠재적 리더를 선발하여 과업을 주시고 도전하심으로써 사역이 시작된다. 잠재적 리더는 여기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배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사역 기술을 습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책임감이 따르는 새로운 과업을 그에게 주신다. 리더의 좋은 반응이 새로운 경험과 추가적인 기술을 배우도록 이끌어간다. 맡겨진 일을 올바르게 수행해야겠다는 자세는 사역 기술을 더 잘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Clinton 2017, 116).

진입 과정

진입 개발 단계는 두 가지 사역 과정 항목을 포함한다. 하나는, 사역 과업이다. 이것은 리더가 내면의 삶 성장 단계에서 사역의 성숙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사역 도전이다.

사역 과업

첫째, 사역 과업은 진실성 검증, 순종 검증, 그리고 말씀 검증에 이어 네 번째 시험 항목에 있어서 인격(성품)을 점검하고 사역에 대하여 가르친다. 그것이 경계선 과정 항목으로, 내면의 삶 성장 단계와 사역의 성숙 단계사이에서 변화의 시기를 표시해준다.

사역 과업이란 과업에 있어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하여 성실성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로서 시작과 끝, 책임과 평가가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초기사역단계에서, 잠재적 리더들은 멘토나 스승 또는 감독자 같은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들은 떠오르는 잠재적 리더들에게 어떤 과업을 수행하도록 도전하며, 어떤 크거나 종류에 매임 없이 자유로이 과제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업들은 잠재적 리더들의 충성심과 복종을 시험하며, 그들의 은사와 주도권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된다.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비록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과업이 부여되고 주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과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리더가 책임져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사역 과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은 성숙을 나타내는 표시다.

사역 과업은 일반적으로 사역 경험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역 과업이 곧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성해야 하고 평가해야 할 특별한 과제다. 사역 과업은 잠재적 리더의 유용성, 성실성, 그리고 기술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패턴은 작은 사역 과업으로부터 시작하신다. 리더가 그것들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에게 점점 더 큰 책임을 맡기신다.

사역 과제의 궁극적 근원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적인 안목에서 과업은 어쩌면 일상적이고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업이 인간의 권위를 통하여 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 때 커다란 열정이 생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성취감이 생기게 된다. 사역 과업을 맡기는 리더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역 과업은 인격 형성과 사역 훈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그 과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2017, 116-22).

<표 3>

사역 과업 연속선의 설명
(Clinton 2017, 122)

	사역 과업 타입	맡겨진 인물	기본적인 기능
A	눅 9:1-6 (주로 리더를 위한 과업임)	열두 제자	치유와 축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믿음 시험, 순종 시험, 영적 권위 경험
B	눅 10:1-12 (따르는 자보다 리더를 더 위함)	칠십인 성도	수용성 시험, 믿음 시험, 하나님 나라 과시, 영적 전쟁과 영적 권위에 대한 경험
C	행 11:22-23 (바나바와 안디옥 성도를 위한 것이 거의 동등함)	바나바	바나바의 말씀 검증, 기독교의 이방인 형태 판결, 영적 권위에 대한 경험과 발전, 삶의 양식의 모델과 가르침

D	행 13:1-3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것보다 새로운 이방인 성도를 더 위함)	바나바, 바울	복음의 상황화 체험과 이방인 성도의 삶의 양식, 이방인 복음화, 교회 개척
E	빌 2:19-23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능가함)	디모데	사람들 목양, 연합, 바울의 가르침 나누기
F	빌 2:25-30 (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함)	에바브로디도	격려, 연합, 연보 사역 확인

사역 도전

사역 도전은 사역 과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역 과업은 마쳐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과제로, 그것은 잠재적 리더와 그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사역 도전은 그의 사역에 대한 리더의 수용성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더나 잠재적 리더가 새로운 과제의 필요와 수용에 대한 느낌을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Clinton 2017, 122-23).

사역 도전의 원천은 외부적일 수도 있고, 내부적일 수도 있다. 또한 도전은 누군가를 통해서 오거나, 리더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온다. 내적인 도전들은 잠재적 리더들의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난다.

사역 도전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과 둘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오는 기쁨이다.

지역 교회에서 초기 사역 하부 단계 동안에 나타나는 도전들 가운데 교회학교 교사 임명, 위원회 위원 선임, 다른 사람의 봉사에 대한 지원,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 전도, 심방, 어떤 기관에 대한 후원, 사회적인 기능을 위한 단체 구성, 수련회 준비 등은 아주 전형적인 외부적 도전의 예에 해당한다. 선교 단체에서의 전형적인 사역 도전의 예는 캠퍼스 전도, 제자 사역, 성경공부 그룹 인도, 청소년 사역, 여름 수련회, 도시 빈민가 봉사 사역 등이다. (2017, 124)

사역 도전이란 리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새로운 과제를 수용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세 가지 하부 단계에서 사역 과제로

진입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미 확증된 사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지휘를 받아가는 외부적 도전이다.

이러한 세 가지 하부 단계 가운데 가장 진입이 드문 사역의 패턴은 새로운 사역의 역할과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자가 주도하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대부분의 리더들은 일반적인 진입 패턴에 따라 등장한다.

- 진입 사역의 패턴이 자가 주도권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상위의 리더십에 대한 강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리더의 개발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역 도전이나 사역 과업에 퇴보 현상을 보여준다는 뜻이다(2017, 125).

지도자의 리더십에 중요한 책임은 잠재적 리더를 선발하고 개발하는 일이다. 원숙한 지도자라면 구체적인 필요와 사역 기회가 있을 때 공개적이고 또한 의도적으로 잠재적 리더에게 도전해야 한다. 지도자로서 잠재적 리더를 선발하고 도전하는 일에 열심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다. 반면에, 성장하는 지도자는 잠재적 리더의 등장에 언제나 자극을 주게 된다.

자가주도적인 사역 도전 혹은 과제는 보다 높은 차원의 리더십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자가주도적인 리더들은 종종 기존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자기 상위에 있는 지도자의 권위를 위협한다. 이런 갈등의 결과로 자가 주도의 잠재성이 있는 좋은 리더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자질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런 잠재적 리더에 대하여 깨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017, 125)

아직도 평범한 사역 도전과 사역 과제들에 만족하거나, 지금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기꺼이 수용할 의욕이 없으며, 그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리더가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역에 대해서 신선한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2017, 125).

중반기 사역 하부 단계

잠재적 리더는 많은 형태의 훈련을 통하여 사역 기술을 배우게 된다. 잠재적 리더는 이제 자신에게 약간의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도 갖게 된다. 그는 자신의 은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볼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의 도전과 과업(임무)에 도전하게 된다(Clinton 2017, 117).

훈련 과정

초기 사역 하부 단계의 진입과정에는 두가지 과정항목, 즉 사역 과업과 사역 도전이 있다. 사역 과업은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에서 사역의 성숙 단계로 가는 전환기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사역 도전은 초기 사역의 하부 단계들을 주관하고 중반기 사역의 하부 단계를 줄여주며, 이것은 후기 사역 과정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초기와 중반기 사역 하부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사역 시술과정은 추진력을 제공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리더의 민감성이 곧 그(혹은 그녀)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준다. 훈련 과정 항목에는 사역 기술, 훈련 경험, 은사 발견 항목이 있다(Clinton 2017, 126).

사역 기술

사역의 성숙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발의 국면 가운데 하나는 사역을 완수함에 있어 리더를 도와주는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술들을 초기 사역 단계에서 얻는데, 특별히 중반기 사역 하부 단계인 훈련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다. 이 기술들은 유대 관계에 관한 것, 그룹 운영에 관한 것, 조직에 관한 것, 그리고 말씀 활용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다. 이런 요소들은 리더가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것과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자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사역 기술 과정 항목은 리더가 사역 과제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확인 가능한 기술을 하나 이상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리더는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상급자와 동료, 그리고 하급자들과 조직에서 유대 관계를 갖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관리 기술은 특별히 중반기와 후기 사역 단계에서 필요하다.

훈련 단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원하시는 다른 기술로는 말씀, 성경공부 방법,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기술 등이 있다. 리더십 은사는 항상 말씀 은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향상시키는 기술은 리더에게 필수적이다.

정체기를 일찍 맞은 리더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마지못해 새 기술을 배우며, 고의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흘려보낸다. 그들은 이전의 경험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사역 기술 개발 과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도전을 제시해준다.

- 1) 사역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며, 그 기술은 하나님의 장기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 2) 배움의 기회를 통해 유익이 되도록 탐구자의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2017, 128).

훈련 경험

중반기 사역 하부 단계의 초기에는 대부분의 기술은 경험, 관찰, 그리고 자체 공부를 통해 얻어진다. 훈련 경험 과정 항목이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를 계속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리더에게 심어주는 일종의 확인 형태의 훈련 과정이다. 이 항목은 소위 영향권, 리더십의 책임감, 혹은 자기 자신감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리더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그 훈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지는 않다.

형식 훈련(formal training)이라는 말은 어떤 훈련 기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지 사역지를 떠나야 하는 요구가 발생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식과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빨리 습득되는 경향이 있다. 이 형식훈련은 집중적이고 유익하지만, 리더십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비형식 훈련(Informal Training) 과정이란 매일의 일상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배우는 일이며, 무형식 훈련(Nonformal Training)이란 워크숍이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어떤 기회를 통해 배우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리더는 비형식 또는 무형식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2017, 126-30).

은사 발견

리더가 일반적인 리더십 기술을 습득한 뒤 사역 성숙 단계의 중반기 하부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장 중요한 개발은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여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다. 영적 은사란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독특한 역량을 말한다.

클린턴은 자신의 책 *영적 은사들*에서 은사를 열아홉 가지를 기술한다. 아래는 기본적인 은사 개발 패턴이다.

<표 4>

은사 개발의 기본적 패턴 (Clinton 2017, 131)

1. 사역 경험→2. 은사 발견→3. 그 은사 사용의 증대→4. 그 은사 사용의 효과→
5. 다른 은사의 발견→6. 은사 조합의 확인→7. 은사 집단의 발전→8. 수렴

은사 발견 과정 항목(giftedness discovery process item)은 영적 은사를 발견해서 사람이나 행사에 활용하게 하는 어떤 중요한 발전을 뜻한다.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이나 기독교 기관의 리더들에게는 대개 영적 은사가 한 가지 이상 나타난다. 은사 조합(gift-mix)은 리더가 사역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영적 은사의 세트를 말한다. 은사 집단(gift-cluster)은 다른 은사들의 지원을 받아 강하게 나타나는 은사 조합을 말한다. 은사 집단 안에서 지원하는 은사들(supportive gifes)은 주된 은사들(dominant gift)과 조화를 이루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2017, 13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3단계(은사 사용의 증대)까지는 도달한다. 4단계(은사 사용의 효과)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이들 두 경우 모두 은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대개 은사가 쓰임받는 사역을 보고 직관적인 관찰을 통해

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전임 사역자들은 대개 5단계(다른 은사의 발견)에 도달하며, 거기서 다른 은사도 발견한다. 또한 단순한 지역 교회 사역자의 위치를 넘어서서 지역이나 국가나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은 6단계에 도달한다(은사 조합 확인 단계). 가끔 그들은 7단계인 은사집단의 발전 단계에 오르는데, 이때에는 역할이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그들의 은사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한다. 이 단계에서 수렴 단계로 가게 되며, 이 단계는 아주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사역 시기다.

리더가 그들의 영적 은사를 초기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 즉 기본적인 은사 개발 패턴을 보완하는 두 가지 패턴은 아래와 같다(2017, 131-32).

<표 5>

은사 개발의 두 가지 보완 패턴
(2017, 132)

패턴	설명
유유상종 패턴 (Like Attracts Like)	잠재적 리더는 직관적으로 같은 영적 은사를 소유한 리더에게 매력을 갖는다.
은사표류 패턴 (Giftedness Drift)	잠재적 리더는 아직 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신의 영적은사에 맞는 사역 도전과 과업에 직관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단계씩 성숙 발전하도록 마련하신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실성에 관한 패턴을 보아왔다. 이 패턴은 각각의 하부 단계에서 나타나며, 모든 사역 성숙의 초석이 된다. 이 패턴은 사역 과업과 도전에 성실히 반응하는 것이 시험에 바르게 대처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의 영향권을 확대시켜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성실성은 각각 새로운 사역의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계속해서 도전받게 된다.

이 성실성 패턴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발전하는 원리에 따라 반복적으로 형성되는데, 이것을 클린턴은 ‘작은 것-큰 것 원리’라고 한다. 작은 것에 성실한 것은 더 큰 책임이 주어져도 성실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2017, 135-36).

후기 사역 하부 단계

리더는 관계 학습 단계와 개발의 분별 단계에서 다양한 관계에 대한 학습을 배우게 된다. 가끔은 힘든 과정을 통해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발전하고 있는 리더는 대개 선임 지도자와 갈등이 있다. 순종을 배우는 것은 권위가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따라서 잠재적 리더는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사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분별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가? 갈등은 개성이나 사역에의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될 수도 있다. 갈등 속에서 경건한 방법으로 유대 관계를 이루는 것을 배우는 것은 사역 관리의 영적 원리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리더들 모두가 이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건강한 유대 관계는 효과적인 사역에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이다(Clinton 2017, 117-18).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고자 다루시는 성숙 단계 방법을 클린턴은 세 가지 하부 단계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네 가지 개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설명한다. 그 첫 번째 두 과정인 진입 단계, 그리고 훈련 단계에 대하여 앞서 초기 사역 하부단계와 중반기 사역 하부단계에서 기술하였다.

이번 후기 사역 하부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리더에게 통과하시게 하는 네 가지 개발 단계의 나머지 두 과정, 관계 학습과 분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관계 학습과 분별 과정은 중반기 사역 하부단계와 후기 사역 하부단계에서 함께 나타난다. 특별히 권위문제는 관계 학습 단계에서 나타나며, 나머지 영적 전쟁, 정체 장애, 그리고 사역 철학 등 세 가지 문제는 분별 단계에서 나타난다.

관계 학습 과정

리더란 특별한 사람들의 집단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따라서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사람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는 또한 기존의 조직

안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며,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이 기본적인 개념은 관계 학습 개발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주로 중반기와 후기 사역 하부 단계 기간에 나타난다. 이 단계는 권위 통찰, 관계 통찰, 사역 갈등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반발 등 네 가지 과정들이 전체 그룹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순종 훈련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리더에게 사역 훈련에 매우 중요한 권위 문제에 대해 다루어 가르쳐준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순종 훈련을 사용하여 리더로 하여금 다른 유대 관계를 배우게 하신다(Clinton 2017, 144).

권위 문제

지도자 평생 개발에 있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교량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은 특히 권위 문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리더들은 그들의 사역을 위한 권력 기반으로 영적 권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것은 직책이나 지위에서 오는 권위와는 전혀 다르다.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스스로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 도전은 그들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며, 리더가 성숙해감에 따라 더욱 민감하게 다가온다. 결정된 사항이 타당할 때에는 누구나 복종할 수 있지만, 그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거나 그것이 잘못된 것일 때에는 복종하기가 어렵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복종이라는 시험을 가장 크게 치르게 된다. 이에 대해 클린턴교수는 워치만 니의 책에서 발견한 원리 ‘영적 권위의 십계명’이라 부른 열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 순종 훈련을 가르쳐주신다고 설명한다. 아래에 영적 권위의 십계명을 설명하고, 관계 학습 과정의 네 가지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Clinton 2017, 144-46).

<표 6>

영적 권위의 십계명
(2017, 146)

계명	원리 요약
1계명	사역을 위한 권력 기반으로서 영적 권위를 배우고 싶어하는 리더는 반드시 모든 권위의 본질적인 근원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
2계명	영적 권위를 가진 리더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리더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리더는 다만 통로일 뿐이다.
3계명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 권위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느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
4계명	리더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다.
5계명	리더는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이지, 권위가 전달되는 통로에 맹종한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6계명	리더는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아야 한다. 반항하는 사람은 인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7계명	리더는 항상 영적 권위를 살피고 인식하며 자원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8계명	리더는 영적 권위는 절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9계명	영적 권위를 가진 리더는 순종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따르는 자들의 도덕적인 의무이다.
10계명	리더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심을 알아야 한다.

권위 통찰

지도자의 권위 통찰과 관련된 예를 성경 곳곳에서 볼수 있다.

누가복음 7:1-10의 백부장, 마태복음 20:20-28에서 야고보와 요한, 누가복음 8:22-25에서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의 제자들, 누가복음 5:17-26에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의 바리새인, 율법교사, 그리고 제자들, 민수기 12:1-16에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에서의 미리암과 아론 등 여러 실례가 있다. (Clinton 2017, 146-47)

예수님의 권위는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복음서 전반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주제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그분의 가르치는 사역에서 지혜, 지식, 예언을 통하여 나타내셨다.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영적 권위를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장은 사역 전반에 걸쳐 분명하게 나타난다.

권위를 개발하는 궁극적 목적은 “리더에게 영적 권위야말로 리더십 영향력의 주요 기반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2017, 147) 이것은 합법성 있는 다른 종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 적절한 전망을 하도록 해준다. 사역 성숙 단계에서 삶의 성숙 단계로의 전환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권위 통찰 과정이란 영적 권위의 사용을 가르치는 모든 것, 즉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역 학습을 말한다. 이것들은 권위에, 권위 구조에, 권력 기반의 신뢰성에, 권위 갈등에, 그리고 권위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순종 학습이다(2017, 147).

관계 통찰

권위 문제는 지도자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지도자, 동료들(동역자), 그리고 그의 추종자(성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영향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보통 부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요 기술이다.

관계 통찰의 과정은 관계에서 리더십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과정을 통한 리더의 개발은 단지 권위 문제를 푸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의 큰 뜻이 있다. 또한 그것은 권위에 대한 논쟁을 거쳐 사역에 도움이 된다.

관계 통찰 과정이란 지도자가 사역을 하면서 크리스천이나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말한다. 관계 통찰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교훈들은 앞으로의 리더십 행사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Clinton 2017, 150).

사역 갈등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무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는 갈등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특히 사역의 성숙 단계에서 더 확실히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결정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면으로든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들은 아직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가늠자 수정을 거친 결정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 갈등 과정이란 리더가 그의 영적 생활 또는 사역에서 겪는 모든 갈등을 말한다. 갈등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리더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

사역 갈등 과정이란 지도자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배우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교훈들로 갈등의 본질, 갈등 퇴치, 갈등 해소 방안, 갈등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의 내면적 삶을 개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갈등을 배우게 하신다. 리더가 이러한 교훈을 붙잡느냐의 여부는 장차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Clinton 2017, 152)

리더의 내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은 불신자들로부터, 혹은 신자들로부터 온다. 때때로 신자들로부터 오는 갈등이 리더에게 더욱 힘든 것은 리더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기대치를 갖기 때문이다.

사역 갈등은 일반적 갈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개인적 성숙도를 시험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위기 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갈등 과정은 문제의 해결책을 배우는 것보다는 성품을 드러내는 면에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상황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사역 성숙 단계에서 사역 갈등이 갖는 위치는 내면의 삶 성장 단계에서 진실성 검증 과정이 갖는 위치만큼이나 중요하다”(2017, 153).

권위 통찰과 관계 통찰은 사역 갈등 과정과 아울러 순종 훈련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들은 권위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갈등 상황을 떠나서는 결코 배울 수 없다.

갈등 과정 가운데는 간혹 끝맺음이 약할 때가 있다. 갈등은 하나의 경험을 완결시켜 그것을 과거지사로 돌리고 또한 미래를 위한 교훈들을 얻음으로써 끝맺게 된다.

사역 갈등은 성공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해소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종결이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교훈들을 배우기 힘들 것이다.

사역의 성숙 단계에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리더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갈등 자체를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이 갈등 과정을 통과하고도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들 교훈에서 도출해낸 원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역의 성숙 단계에 있는 리더는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 훈련 과정은 순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려는 의지에 대한 통찰력으로 구성된다. 즉 리더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사역 성숙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리더는 권위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2017, 152).

리더십에 대한 반발

순종 훈련의 네 번째 과정은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다. 이는 사역 갈등의 특수한 경우로써 지도자가 리더십에 대한 반발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이 네 번째의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사역에 응용하는 분별이 포함된다.

리더십에 대한 반발 과정은 따르는 자들의 부정적 반응, 공동체 안에 다른 리더들의 부정적 반응,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크리스천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포함한다. 리더십의 대한 일반적인 반발 단계 8가지는 아래와 같다(Clinton 2017, 153-55).

<표 7>

리더십에 대한 반발의 8단계
(2017, 155)

단계	원리 요약
1단계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다.
2단계	따르는 자들이 이 비전에 대하여 설득된다.
3단계	집단(공동체)이 주어진 방향으로 움직인다.
4단계	집단이 꾀박, 어려움, 사탄의 공격, 즉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경우는 보통이다.
5단계	이때 집단에서 반발이 일어난다.
6단계	지도자는 이 반발에 충격을 받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확인 과정을 밟는다.
7단계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분의 존재와 의도를 보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신다.
8단계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르는 지도자 혹은 자신이 세운 지도자를 지지해 주신다.

분별 과정

하나님께서서는 리더를 성숙시키기 위해 사역의 영적 역동성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신다. 이를 통해 리더는 물리적인 세계의 배후에 영적 세계(영적 전쟁)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아울러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리더는 “믿음, 기도, 영향력, 그리고 신령한 체험 및 사역 과정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 듣는 법도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이 분별의 능력은 리더의 전 생애를 통해 필요로 한다”(Clinton 2017, 157).

분별 단계의 핵심은 리더의 시각에 대한 확장 혹은 확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역 성숙의 단계 전체를 통해 분별력을 개발하시며, 그 개발의 절정은 후기 사역의 하부 단계에 있다. 영적 전쟁과 관련된 과정들은 영적 실체의 분별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적 확대 과정에는 믿음 도전, 기도 도전, 그리고 영향력 도전 등 여러 도전 집단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면 분별 단계에서의 과정항목을 아래에 기술한다(2017, 157).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과정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리더가 겪는 사역 갈등의 주된 요인과 그 본질이 주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분별을 말한다. 리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그의 리더십의 역량(그의 영적 권위)이 나타나고 확장된다. 이 과정은 리더가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를 소요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한다. 영 분별의 은사를 지닌 리더는 자연적으로 영적 실체를 보다 빨리 보고, 그것이 영적 전쟁 상황임을 분별할 수 있다. 리더라면 일상 생활 속에서 영적 실체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특별히 영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적 전쟁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중보기도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 대해 과소 평가도, 과대 평가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클린턴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마음을 열어 배우려 한다면 필요한 분별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Clinton 2017, 157-59).

능력 항목

능력 과정 항목은 은사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 대결, 조직 능력 등 네 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능력 그룹의 궁극적 목적은 리더로 하여금 평소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는데 있다.

은사적인 능력이란 리더가 성령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특별한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도의 능력 과정은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상황이나 필요를 말한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자의 영적 권위에 대한 진정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응답된다.

영적 대결 과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다른 초자연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결을 가져오는 위기 상황을 말한다. 여기에 쟁점도 역시 능력이며, 하나님의 진실성이 걸려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비범하게 과시함으로써 신뢰성을 나타내신다. 조직 능력(네트워킹 능력 과정)은 하나님께서 멘토나 다른 성숙한 지도자를 사용하여 지도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줌으로써, 다른 지도자들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그물망 같은 조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Clinton 2017, 160-61).

정체 장애물 돌파하기

지도자가 두 번째로 분별력을 발휘해야 중요한 분야는 사역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끌 역량에 대한 분별력을 확대하게 하신다. 기도 도전, 믿음 도전, 그리고 영향력 도전 등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반응하는 것은 분별의 기능에서 중대한 발전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지도자는 이 여러 도전들에 대해 분별하고 대처하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모든 지도자는 사실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역량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량을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 개발시키기를 원하신다. 지도자들이 사역의 성숙 단계 중 후반 과정에서 성장이 저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정체 장애물(plateau barruer)이라 한다.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개발이 끝나는 지도자가 있다. 그들은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역을 계속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쓰임받지 못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 역량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그를 이끄시고 도전하신다. 때때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를 격려하도록 인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역량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시는 분야는 기도의 도전, 믿음의 도전, 영향력의 도전 등이 있다(Clinton 2017, 163).

기도의 생활 도전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과 지도자의 소통이다. 지도자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전에 어떤 집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만 한다.

지도자는 분주한 사역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누는 활기있는 의사소통이 소홀히 될 수도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행위(doing)”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됨됨이(being)”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 도전은 개인이나 사역의 필요에 따른 압박감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본질은 그러한 필요에 대한 응답 이상임을 알아야 한다. 곧 기도는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향상시키고, 사역의 비전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 도전 과정이란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를 말한다. 리더가 이 도전 앞에 바르게 응할 때 긍정적인 추후 사역이 가능하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다. 선교 역사에 등장하는 뛰어난 인물들(허드슨 테일러, 조나단 고포드 등)을 연구하면 이 원리의 중요성이 증명된다. 이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 시간을 따로 가졌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리더에게 기도하도록 도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경에서 주님께서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 앞에서 반드시 이 기도의 도전 앞에 반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중으로부터 떠나 아버지 하나님과 홀로 함께 했던 기도 시간은 그를 강하게 해주었고, 앞으로의 사역을 향한 비전을 주셨다.

이 기도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리더 스스로 기도는 단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참 자유이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특권임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사역에 대하여 지도하고 있음을 깨닫는 분별력을 얻는 데 있다(Clinton 2017, 165).

믿음의 도전

사역에서 믿음을 키우는 것은 지도자가 직면해야 할 가장 강력한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믿음의 도전은 믿음의 영적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예외없이 항상 현재의 이해를 초월하여 다가온다.

믿음의 도전은 효과적인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지도자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비전과 희망으로 자극해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리더가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결코 이룰수 없다.

믿음의 도전 과정이란 리더가 사역에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그 보상으로 주시는 기적적(하나님의 방법)인 체험을 하고 사역을 성취하는 경우이다. 믿음의도전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된다(Clinton 2017, 166).

- 1) 장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
- 2) 이 계시에 근거해서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도전과 그에 대한 지도자의 자각.
- 3) 이 견고한 확신에 근거하여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려고 결심하는 마음의 자세.

영향력의 도전

영향력의 도전 과정은 지도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어 다루시는 경우를 말한다. 영향권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 감당해야 할 사람들의 숫자를 말한다. 영향력에의 도전은 규모의 확대, 집중력 강화, 또는 영향력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오게 된다.

영향력 범위와 영향력에의 도전을 이해하는 것은 분별하는 일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올바른 영역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 다른 영향력의 범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하는 것이다(Clinton 2017, 167-68).

사역 확인

모든 지도자에게는 사역 확인이 필요하다. 전임 사역자로서 훈련받은 잠재적인 리더도 가끔 사역에 좌절하여 사역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전임 사역자가 아닌 리더에게도 일어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일차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리더를 어떻게 개발하시는지를 아는 분별력에 있다.

좌절과 중도 포기하는 경향을 방지하는 두 번째의 수단은 사역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리더를 격려해주고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다.

사역 확인 과정은 특수한 종류의 과업 또는 경험을 통하여 리더에게 접근하도록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지도자의 목적에 대해 새로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사역 확인의 방법에는 환상, 기적, 성공적인 사역의 일,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감사 표시, 내적 만족,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진급, 영향력 범위의 확대 등이 있다. 환상, 기적, 그리고 진급은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별은 리더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내적인 만족 따위의 별로 극적이지 않은 확증을 통해 하나님의 보장을 체험할 때 성장하게 된다(Clinton 2017, 168).

사역 확인은 일종의 격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안내)에 대한 확증이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신비한 방법을 통한 사역 확인은 리더가 고립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매달릴 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금식 기간이나 기도 기간에 필요한 확인되기도 한다. 사역 확인이 필요함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미래의 사역에 대한 동기 부여와 갱신의 전조 역할을 하는 데 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 사역 확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마 3:17; 요 11:41-44).

사역 철학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 철학이다. 사역 철학이란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안내 지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의 사역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아이디어, 가치 기준, 또는 원리를 말한다. 효과적인 사역 철학은 사역 성숙 단계 동안에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배운 일이 없고,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리고 또한 사역 철학의 정립이 장차 사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리더들은 자주 분명한 사역 철학 없이 사역을 추구한다. 사실 리더가 정체 상태에 그대로 머무느냐 삶의 성숙 단계를 거쳐 수렴 단계로 계속 발전하느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Clinton 2017, 170).

사역 성숙 단계의 마무리

사역 성숙 단계를 마무리 짓는 데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 두 가지 패턴은 사역 단계에서 정체되는 형태이고, 나머지 한 패턴은 삶의 성숙 단계로 이끌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역 성숙 단계에서 발전이 멈추는 지도자들은 다음의 두 부류이다.

첫째는, 사역 역량이 일정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며 사역이나 영적 성장이 비교적 더딘 지도자이다.

둘째는, 사역이 위축되거나 제한이 온다든지 해서 그 사역으로부터 물러나게 되는 지도자이다. 이 두 부류의 지도자는 중도 포기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패턴은 가장 모범적인 형태인데, 사역의 의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 등을 살펴보고 사역의 본질에 관련된 중요한 철학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능력(doing)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로부터 사람 됨됨이(being)에서 비롯된 효과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자세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도자 자신과 그 주변의 사람 그리고 사역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봄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계선(boundaries)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현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특히 사역 성숙 단계와 삶의 성숙 단계 사이 경계에서 더욱 절실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다분히 심리적이며, 전환은 과업, 장소, 역할 또는 다른 대부분의 경계선 과정과 연관된 일반적으로 보이는 변화처럼 전환이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역이 활동 중심의 사역에서 인격 사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적 권위는 주된 권력의 기반이 된다. 삶의 성숙 단계로 인도하는 경계선 과정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Clinton 2017, 170-71).

요약

하나님께서서는 잠재적 리더를 사역으로 인도하실 때 네 가지 개발 단계를 통과 하게 하신다. 먼저는 잠재적 리더를 사역 안으로 도전하는 진입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역과업과 사역 도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두번째는 리더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과 영적 은사를 개발시키는 훈련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역 기술, 훈련 경험, 그리고 은사 발견을 하게 하신다. 세번째는 관계 학습 과정으로 리더가 사람들을 동기 부여하고 영향을 주도록 유대관계를 맺게 해주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권위의 통찰, 관계 통찰, 사역 갈등, 리더십 반발을 겪으면서 리더의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 마지막으로 분별 단계은 리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사역해나가는 영적 원리를 알게 도와주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영적 전쟁, 능력 항목, 믿음의 도전, 기도생활 도전, 영향력 도전, 사역 확인을 하도록 하신다. 특별히 분별 개발 단계에서 리더는 두 영역에서 분별을 배워야 한다. 하나는 영적 실체에 대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확장에 대한 것이다.

특별히 리더가 자신이 배운 교훈들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역의 철학을 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장래에 결정을 내리는 데 하나의 기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역 성숙 단계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수의 지도자만 이 단계를 통과하며, 다음 단계로 들어가느냐에 여부가 이 사역 성숙 단계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Clinton 2017, 173).

이번 장에서 클린턴의 사역 성숙 단계의 중요성과 그 이론을 다루었다. 다음장에서는 클린턴의 사역 성숙단계 과정에 성낙운 목사의 삶을 대입함으로써,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 형성과정

본 논문 3장에서 클린턴 교수의 영적지도자 만들기를 연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잠재적 리더를 다루셔서 사역을 초대하시고 그 사역자를 지도자를 세우시는 과정과 개발시켜 나가시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내용만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지도자의 삶과 리더십의 형성과정, 그리고 지도자의 삶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다루심과 일하심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중심주제인 성낙운 목사의 목회리더십의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먼저 성낙운 목사의 삶의 과정과 목회리더십 형성과정을 대하여 분석한다.

성낙운 목사의 단계별 사역과정

성낙운 목사는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룬 목회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지역적 한계와 한순간 터전을 빼앗겨 마음의 심리적 상실감이 컸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룬 모범적인 교역자이다.

먼저 성낙운목사의 영적인 리더십을 분석하기 위해서 리더십 전문가인 클린턴교수의 ‘영적지도자 만들기’에 소개된 검증항목을 대상으로 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성낙운목사의 저서를 참고 근거로 삼는다.

리더십은 생애 전체를 통한 학습이다. 그것은 몇 개월이나 몇 년의 교과 과정으로 끝내거나, 스스로 하는 통신 강좌식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주의하여 볼 때 우리는 교훈들을 추려내고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성낙운 목사의 목회리더십을 알아보기 위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클린턴의 시간선(timeline)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클린턴은 하나의 지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는 지도자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이 설명한다(임윤택 2009, 65).

<표 8>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
(2009, 65)

$$L = f(t, p, r)$$

L= 역학관계(시간, 훈련과정, 반응)

도식에 나타난 ‘L’은 클린턴 자신이 개발한 ‘지도형성 이론’(Leadership Emergence Theory)을 통하여 한 지도자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회리더십형성 이론, 즉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형성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식에 나타난 ‘f’는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의 핵심 개념들의 상호 역학관계(function)를 통해 지도자 형성 이론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낙운 목사의 목회리더십이 이루어지는 역학관계를 말한다.

도식에 나타난 ‘t’는 시간선(time line)을 사용하여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성낙운 목사의 목회리더십 형성과정을 말한다.

도식에 나타난 ‘p’는 훈련과정(processiong)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말한다. 성낙운 목사의 목회리더십 형성과정에 대하여는 본 장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도식에 나타난 ‘r’은 훈련과정(Processing)에 대한 지도자의 반응(response)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성낙운 목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회리더십 형성과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시간선을 따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클린턴이 리더십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선 방법론은 리더의 전 생애를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특정 지도자를 시간선을 따라 분석하다 보면 그의 생애 전반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2009, 66).

리더십은 생애 전체를 통한 학습이다. 그것은 몇 개월이나 몇 년의 교과 과정으로 끝내거나 통신 강좌식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주목하여 볼 때 우리는 교훈들을 추려내고 배울 수 있다. 그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시간선(timeline)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개발하고 강하게 하는데 사용하셨던 많은 방법들을 뽑아낼 수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게 될 것이다. (Clinton 2017, 61)

목회자의 목회리더십 연구를 위해 시간선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클린턴의 시간선 개념을 성낙운 목사의 생애에 적용해 보면 그의 생애 전반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이루어진 목회리더십 발전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임운택 2009, 67).

클린턴의 여섯 단계

클린턴은 리더의 발전단계를 여섯 단계로 분류하였다. 발전단계란 개인 생애를 특징짓는 각 단계를 말한다.

우리는 발전단계를 분류할 때 한 지도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성이나 발전의 방법에 근거하여 파악한다. 이 중요한 시기들의 단위들을 판별하여 ‘주권적 기초 단계,’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 ‘사역의 성숙 단계,’ ‘삶의 성숙 단계,’ ‘수렴 단계’ 그리고 ‘회상(혹은 축제) 단계’로 명명했다(2017, 66)

<표 9>

리더십 개발의 일반적 6단계 (2017, 66)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	-----	-----	-----	-----	-----

주권적 기초단계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	사역의 성숙단계	삶의 성숙단계	수렴 단계	회상(축제) 단계
-------------	-----------------	-------------	------------	-------	--------------

• 제1단계인 ‘주권적기초단계’(Sovereign Foundations)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에 기초를 닦는 단계이다. 특정 잠재적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리더십 기초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환경,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불신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섭리하시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이나 환경을 통해 섭리하신다. 리더십의 기반을 제공하는 주권적기초단계는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2009, 67).

제2단계인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단계이다. 리더는 하나님께 기도와 그분의 음성 듣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그는 분별, 이해, 순종 가운데 성장함으로써 검증을 받게 된다. 이 초기의 검증은 리더가 리더십에서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결정적인 경험이다. 잠재적 리더는 행함을 통한 이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내면적 삶의 교훈들을 얻게 된다. 이 단계에서 리더십의 잠재력이 확인된다.

제3단계인 ‘사역의 성숙 단계’는 잠재적 리더가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단계이다. 성장하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기 시작한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더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 하나님의 훈련목표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도자의 인격을 다루시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009, 68)

제4단계인 ‘삶의 성숙 단계’는 리더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역에서 만족을 주는 그의 영적 은사가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단계다. 그는 자신의 은사를 최고로 사용하는 위해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더는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중요성은 물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의 중요성도 결정한다.

제5단계인 ‘수렴(집중) 단계’는 하나님께서 리더를 그의 은사 조합에 맞추고 사역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단계이다. 리더는 자신이 제안한 최선의 것을 사역에 활용하는 때이다. 삶의 성숙과 사역의 성숙이 함께 절정을 이루는 황금기다. 이 시기 동안에 리더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직책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

제6단계인 ‘회상 단계(혹은 축제 단계)’가 있다. 이 단계는 전 생애를 통한 사역의 열매와 성장이 하나로 융화되어 인정받는 시기이다. 이 때 리더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 회상 단계에서 지도자들은 자신이 사역하며 살아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생에 걸쳐 발전을 허락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Clinton 2017, 71)

이제 클리턴의 여섯 단계를 염두해 두고 성낙은 목사의 목회리더십 여섯 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낙은 목사의 여섯 단계

성낙은 목사의 리더십 철학 발전 과정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난다. 성낙은 목사의 리더십 철학은 다음 여섯 단계를 통해 형성되었다.

<표 10>

성낙은 목사의 리더십 개발의 일반적 6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주권적 기초단계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	사역의 성숙 단계	삶의 성숙 단계	수렴단계	회상단계
파평생활	군중병	신학생과 전도사로	태평제일교회 사역	교회개척	회상단계

- I.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의 인생(1946-1958)
- II. 군중병 시절(1966-1969)
- III. 신학생으로 전도사로(1969-1979)

IV. 태평제일교회 시절(1979-2015)

V. 교회개혁(2004-2011)

VI. 은퇴 이후(2015-현재)

제1 단계: 신앙의 기초 파평 생활

하나님께서서는 성낙운의 생애에 기초를 닦는 단계이자, 잠재적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리더십 기초단계의 연단과정을 성의영 장로와 남상순 권사의 아들로, 또한 파평에서의 생활로 시작케 하셨다.

파평 생활

성낙운은 1946년 7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28-4번지 농촌에서 출생했다. 당시 파평면 서기로 일하는 아버지 성의영씨와 어머니 남상순 여사의 8남내 중 3번째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파평면 두포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보다는 3.8선을 앞두고 있는 북한과 가까운 시골이었다. 성낙운 목사는 독실한 신자인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어린 소년시절 성낙운 소년은 여느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썰매나 갖치기 하며 건강하게 자랐다. 공부를 잘 하였고, 특히 집과 가까운 교회에서 울젠을 치며 놀기를 좋아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7)

어린 시절 성낙운은 아버지 성의영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특별히 성낙운이 출생한 1946년에는 친부 성의영가 당시 자신의 집, 초가4간에 예배당을 건립하였을 때였다. 그 교회가 지금 파평교회이다

아버지는 비상한 장사꾼

성낙운의 아버지 성의영 장로는 몸은 약했지만 머리가 비상하셨다. 당시 보통학교를 졸업후 행장¹을 꾸려 장사에 나섰으며, 성루 포목²도매상에서 포목을 받아 행상³을 했다.

서울 포목도매상에서 포목을 받아 행상을 했다. 초보 장사꾼이 어설픈데도 잘 팔리니 신기했다. 한 푼 두 푼 돈을 벌다 보니 장사가 재미있었고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나는 재미를 느꼈다. 촌에만 있던 나에게 서울은 만화경 같은 곳이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각양각색의 사람들, 길을 가로지르는 전차며 구경할 것이 무궁무진했다. 그랬는데 점차 서울도 눈에 익으니 다른 곳은 어떨지 궁금했다. 우연한 기회에 기차를 타고 함흥으로 자리를 옮겨 포목을 팔게 되었다. (성의영 2018, 28)

성낙운의 아버지는 이후 더 크게 장사를 했다. 그러다 장사를 위해 1942년 중국 북간도(만주) 도문에 있을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였다. 당시 그의 부모가 친구의 소개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고 같이 가지고 하여 함께 찾아 간 곳이 도문중앙교회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부흥회는 깡패 목사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가 주재한 것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평양을 주름잡는 깡패 두목이었는데 술독에 빠져 지내며 온갖 폭력을 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미국인 선교사의 전도와 설교에 감동받아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2018, 34)

김익두목사의 설교는 그날 성낙운목사의 아버지 성의영장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난 이날부터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모하게 되었다

한때 거친 삶을 살다가 회개한 목사가 이끈 부흥회였기 때문이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것처럼 끌렸고 예수님을 평생의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내가 그날 이후부터 교회에 계속 나가게 되었다. (2018, 34-35)

주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어김없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다. 설교 말씀이 다 좋게 느껴졌고 마음을 파고들었다. 길을 걷다가도 성경책을 끼고 교회가는

1 행장(行裝)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2 포목(布木) 베와 무명.

3 행상(行商) 여기저기 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

사람만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고 찬송가 소리만 들어도 춤추고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 그때 내 행복과 평온함의 원천인 예수님을 평생토록 믿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복음전파에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1945년 하나님의 은혜로 소를 팔아 파평교회를 창립하였으며, 이후 초가 4간의 예배당과 일자교회를 세웠다. 이때 교회중심, 하나님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부친 성의영장로와 모친 고 남상순권사의 8남매 중 셋째, 둘째아들로 자신의 집 초가 4간에 예배당을 세우는 당시에 성낙운이 태어난다. 이 사건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사역의 기반이 되며, 목회적신앙 자세와 교회개척이라는 독특한 상황적 이해를 경험하게 계기가 된다.

죄인입니다

성낙운의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도문중앙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국후 문산중앙교회에 출석하며 소를 팔아 채마밭에 파평교회를 창립했다(성의영 2018, 135). 초가 4간에 예배당을 건립했고, 6.25전쟁 중에 천현면 동문리로 피난때는 피난처에서 2칸짜리 일자교회를 세웠다. 수복 후 피난후에 돌아와 폐하가 된 파평교회를 재건했으며, 파평교회에서 장로가 되고난 후에는 밤고지에 현대식 교회를 신축했다. 이것이 지금의 파평교회이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돌이켜보건대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는데 이 부족한 불충불효한 죄인은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치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성의영 2018, 116)

성낙운 목사 역시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가능하면 책임은 자기에게로, 공로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적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신앙적 영향을 이어받은 것이다.

가훈, 요긴한 사람이 돼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눅 10:27).

예수께서는 첫째 계명으로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봉사와 헌신을 넘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성의영 2018, 87).

아버지 성의영 장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자녀이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잘못된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낼 수 있으니 늘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했다.” 공부보다는 도덕적 정결성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요긴한 사람이 되기를 말하였다. 그의 아버지에게 배운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라” 귀한 교훈은 성낙운의 신앙을 건강하고 균형있게 만들었다.

교회가 저의 집입니다

성낙운의 아버지 성의영 장로의 시간선을 보면, 성낙운이 태어나기 한해전, 1945년 소를 팔아 파평교회를 창립했고, 태어나는 해인 1946년에는 친부 성의영가 당시 자신의 집, 초가4간에 예배당을 건립하였다.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 온 가족이 천현면 동문리로 피란을 떠났고, 그곳에서도 2칸짜리 일자교회를 세웠다. 피난처에서 돌아와서 1954년에는 폐허가 된 교회를 재건했다. 즉 성낙운은 평생을 교회개척을 위해 자신의 집과 가산을 드린 아버지를 보며 자랐고, 그렇게 세운 교회는 곧 자신의 집이자 교회였다. 성낙운에게 그곳은 자신의 놀이터요, 자신의 가정이요, 자신의 예배의 처였다.

큰 아버지 사랑밭이 첫 예배 처소였는데, 아버지는 서원한 소를 팔아서 채마밭에 처음으로 파평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중 피난처에서 일자교회를, 수복 후 폐허가 된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또한 현재 파평교회가 위치한 반고지로 확장 이전하면서 네 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 자손들은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의영 2018, 135)

용기종기

소년 성낙운의 아버지 성의영 장로는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절약했지만 공부시키는 데는 아끼지 않았다.

나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아이들이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보냈다. 교육은 아이들의 각자의 소질을 발견하게 하고 좋은 재목으로 자라게 하는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했다. 공부를 중시했지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훈계를 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성공하기를 바란 적도 없다. 다만 각자가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하길 바랐다. (성의영 2018, 72)

소년 성낙운은 아버지의 희생과 배려로 두포리 과평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 당시 성의영 장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서울로 보내면서 “젊은 시절 고향 두포리를 떠나 서울을 구경했을 때 느꼈던 그 희열감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기를 기대했고, 도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새로운 곳에서 삶을 변화시킬 만한 일을 만나게 되길 소망했다”

소년 성낙운은 서울 해방촌에 기와집 한 채를 준비한 아버지의 희생으로 거기서 살며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된다. 당시 그 집에 방 2칸은 월세를 내 놓아 그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했고 쌀과 부식 등은 집에서 갖다 먹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큰아버지의 자녀인 사촌들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웃이 한집에서 용기종기 지내며 살았다. 소년 성낙운은 그곳 서울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용기종기 모여 서로 부딪끼며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공동체의 정신을 배우게 된다.

탐욕이 없는 공동의 돈통

성낙운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남에게는 후하게 대하지만 자신에게는 매우 인색한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다.

일찍부터 아버지 성의영은 자녀들을 두 가지 원칙으로 가르치고 길렀는데, 첫째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으로 가르쳤다.

나는 일찍이 자식들을 서울로 보냄으로써 가정에서 독립시켰지만 가정교육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 스스로 알아서 하게 가르쳤다. 아이들이 썰매나 자치기 등을 만들 때도 아주 막히는 경우가 아니면 완성할 때까지 혼자 하도록 기다려 주었다. (성의영 2018, 74)

둘째는,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공동의 돈통을 만들어 쓰게 하였다.

용돈도 따로 정하지 않고 각자 필요한 만큼 가족 공동의 돈통(장판 바닥을 들추면 있었다)에서 알아서 꼭 필요한 것에만 꺼내 쓰게 했다. 자녀들이 내 뜻을 헤아리고 잘 따라주어 이 방식이 유지될 수 있었다. 기분이나 감정에 따르지 않고 이성과 절제심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2018, 74)

이는 소년 성낙운에게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질에 정직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제2 단계: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

잠재적 리더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만나는 단계이다. 이시기를 클린턴은 제2단계로 정의하며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라 하였다. 이 순간은 성낙운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그분의 음성 듣는 것에 중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며, 이 순간을 통해 그는 분별, 이해, 순종 가운데 성장함을 검증받게 된다.

이중확인

클린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색다른 안내(인도)를 이중확인이라 했다(Clinton 2017, 188). 중·고등학교를 지난 성낙운에게도 이런 경험이 일어난다.

성낙운의 아버지는 꿈에서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성낙운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고백하고 결단했다. 그리고 군대갈 때와 자대로 배치되는 버스 안에서 성낙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면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낙운 청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단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울젠을 치고 놀며 스스로 배운 능력을 사용하셔서 군중병이 되게 하셨다.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를 결단하고, 군대갈때 동구밖에(마을밖을) 벗어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대로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 11. 25)

이는 특별한 섭리이며 응답이자 리더의 전생애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예비된 만남

청년 성낙운은 기도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병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 군종병의 생활은 군내 장병들의 신앙을 살피고 교회를 돌보며 군종목사의 사역을 돕는 것이었다. 군종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등학교 시절 목사가 되기를 결단한 서원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과 안내를 위해 예비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 군종병으로 있는 3년동안 성낙운 목사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3분의 군종목사를 그때 만난 것이다. 이 기간은 청년 성낙운에게 목회 훈련이 시작이 되었고, 직접적으로 신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3 단계: 사역의 성숙 단계

군종병으로 전역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 시기 동안 생애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교회에 대해,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체인점 같은 구멍가게

성낙운의 아버지 성의영장로는 군인이었던 둘째 아들 성낙운이 군종병으로 제대한 후 목회자가 될 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 시작이 결혼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성낙운 목사는 홍은순사모와 결혼하였다. 그 당시 가정과 공부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아들을 위해 성의영 장로는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멍가게를 마련해 준다.

시골의 전답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터전을 잡으려 하니 서울 중에서도 번두리인 구로동 하천변의 허름한 지역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 구멍가게를 차렸다. 내가 주로 가게에 나가 있었지만 셋째 딸도

열심히 도왔다. 군에 있던 둘째 아들은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멍가게 2호점을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련해 주었다. (성의영 2018, 79)

성낙운은 배고프고 어렸었던 시절 아버지의 지원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당산동 교회

신학생인 성낙운은 신학교에 다니면서 첫 사역을 나가게 된다. 당산동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것이다.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혼자서 이리뛰고 저리뛰며 정신없이 교회를 섬겼다. “토요일과 주일은 아침일찍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서 저녁 늦게 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은 충만했습니다”(성낙운 인터뷰 2018.11.25).

성낙운 전도사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형태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 사역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 감사한 것은 매일 일상적으로 행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과정 가운데 작은열매를 보게 된다.

토요일과 주일 아침 새벽처럼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늘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한 것은 제가 맡은 중고등부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왔었는데 그 수는 성인예배 인원보다도 많았습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25)

이러한 경험은 성낙운 전도사에게 열정을 식지 않게 만들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성취감을 더욱 고취시켰다. 그리고 작은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셨다.

과천교회: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하던 성낙운 전도사는 과천교회 전임교역자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목사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게 된다. 성낙운 목사는 과천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처음 전임교역자로 섬기는 현장였지만 성낙운 목사는 성실하려고 애썼다. 그러던 중 황태주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인해, 담임목회를 하게 된다. 굉장히 바쁜 삶이 이어졌다. 당시 과천교회는 시골,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였지만 200명이 넘는 견실한 교회였다. 뜻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인생에 중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성낙운 목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렇게 그곳에서 2년의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때 성낙운 목사는 또 한번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제4 단계: 삶의 성숙 단계: 태평제일교회 사역

성낙운 목사는 당상동교회를 거쳐 과천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남 탄리제일교회(현 태평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과천교회에서 목회할 때, 친구인 공용준(광주 양문교회) 목사의 소개로 당시 탄리제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지 그리고 좋은 교회를 찾아갈줄도 몰랐습니다. 당시 소식이 들려온 것이 이곳이었고, 그 소식 앞에 계산하거나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다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하시느 이곳으로 오게된 것입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25)

성낙운 목사는 그의 말처럼 계산할줄 모르는 사람이다. 다만 기도하고, 자신이 섬겼던 과천교회보다 좋은 것이 하나없는, 오히려 훨씬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그는 당시 탄리제일교회가 자신에게 허락한 목양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부임을 결정하게 된다

발을 가는 꿈

성낙운 목사가 성남 탄리제일교회에 부임할때에 아버지 성의영 장로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탄리제일교회에 아들이 부임하기 전 소가 목은발을 가는 꿈을 꾸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탄리제일교회에 가서도 소처럼 우직하게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계시 같았다. (성의영 2018, 80)

성낙운 목사는 아버지의 꿈과 같이 소처럼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

교회중심 목회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목회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성낙운 목사는 교회밖에 모르는 목사였다. 가정보다도 언제나 교회중심이었다. 부친

성의영 장로가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여 한평생을 보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성낙운 목사 역시 가정보다는 교회 중심, 목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탄리제일교회를 잘 알아가게 된다.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가정은 늘 뒷전인 경우가 허다했다.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자녀들과도 함께하는 시간 역시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 당시 교회의 재정구조가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먼저 지출하고 나면 사례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례를 늦게 받다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방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로 인해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낙운 목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또한 그의 가정은 건강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였고, 그의 자녀들을 기르셔서, 예수님 잘 믿는 목사와 안수 집사로 세워 주셨다.

어려운 목회현장1

성남 탄리제일교회는 탄리라는 지역이름을 딴 교회이다. 성낙운 목사가 부임하여 사역하는 목회현실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탄리제일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부임 당시 교인은 50명 정도 되었으나 대부분 노인이었다. 교회 재정이 채워질 수 없는 구조였고, 이미 교회 재정은 어려워져 전임자의 퇴직금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았다. 그래서 성낙운 목사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전임자 퇴직금을 마련해 주었고 교육관과 사택도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장만하였다. 자신의 것을 다 드려 아무런 대가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돌본 것이다.

어려운 목회현장2

탄리제일교회는 경제적문제 뿐아니라 해패한 소문에 시달렸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떠났다’ 등의 소문이 들려왔다. 전임목사가 암으로 인한

갑작스런 별세 후에 동네 사람들은 입으로 입으로 목사가 죽은 교회, 하나님이 떠난 교회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소문은 성낙운 목사가 목회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가 되었다.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흉흉한 소문은 계속되었고, 교회에 오는 사람보다는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25)

성낙운 목사는 이러한 목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교회 이름을 태평제일교회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장수하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성도들에게 흠어졌던 교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비전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잃은 양 찾기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방관자였던 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이 새로워진 교회의 소문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교회는 부정적인 이미지 벗어나 긍정적이고 활력있는 교회로 바뀌었다.

설교 중심 목회

성낙운 목사는 부임후 가장 크게 신경쓴 부분 중에 하나가 설교이다. 그는 설교 준비를 잘해야 교회는 성장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설교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도들을 교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설교 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 역시 설교입니다. 설교 때문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 11.7)

성낙운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본문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한 설교를 성도들과 나누었다. 성도들은 그의 설교를 좋아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설교하는 군더기 없는 그의 설교에는 힘과 능력이 있었고, 경제적 낙망중에 있는 지역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다

분별: 성장의 한계

성낙은 목사는 교회가 점진적인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성장에 가속화를 더하기 위해서 전도폭발 훈련, 썬엘 성서, 무디 성경공부, 일대일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중직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교회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당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교인들 생활고의 장벽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의 장벽에 가로 막혀 실패하였다(성낙은 2001, 2).

지금 성남 시민의 생활수준은 예전에 비하면 현저하게 좋아졌다. 물론 여전히 태평제일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삶의 여유는 없는 편이다. 많은 수의 가정이 아직도 맞벌이를 하고 있다. 예전의 생활모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성낙은 목사는 외적으로는 진행되었던 사역들이 성도들의 현실 상황, 즉 생활의 여유가 없이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외면하고 적용한 결과로 성도들이 많이 동참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겪으면서 성낙은 목사는 내적으로는 영적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체험과 은혜가 있어야 됨을 고백하게 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29).

성낙은 목사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성장을 막는 현실적 요인들이, 성낙은 목사의 성장을 돕는 직접적 과제는 믿음 도전, 기도 도전, 그리고 영향력 도전 등으로 성낙은 목사의 시각을 넓게 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기도하는 목사

성낙은 목사가 목회를 통해 여러가지 상황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낙은 목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목회 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히는

일들이 있을때마다 기도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때마다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음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여러가지 문제, 교인과의 갈등, 심지어 땅을 구입하는 것, 교회 자리를 옮기는 과정, 교육관을 지을때도 할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밖에 없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 11. 7)

성낙운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이다. 그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됨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음에 감사한다.

어려운 자를 못지나치는 목사

성낙운 목사는 탄리제일교회에 부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교회에 반치고 사역을 시작했다. 당시 성낙운 목사의 경제적 상황 역시 좋지 않았다. 교회에서 사례를 제때 못받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언제나 교회 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심방을 가서 어려운 가정을 보면,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현금을 몰래 넣어두고 나왔다. 성도들을 그냥 성도로 본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한 영혼이 힘들어 하는 것을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꼭 닮아 양 떼인 성도들을 사랑한 목회자가 성낙운 목사였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안정되어 성장되었을 때까지 성낙운 목사는 차량봉사를 하고 강단에 올라갔다.

예배시간이 다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시지 않아 장로님들이 밖에 나가 기다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운행하시고 바로 강대상에 올라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안금란 인터뷰 2018.11.7)

성낙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사역은 늘 이랬다. 늘 성실했고 자신보다는 영혼을 생각하는 목사였다.

당시에 교인은 별로 없었지만, 성실히 목회하면, 성도들을 보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겨 주실것을 믿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운행을 했던 것뿐입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7)

이러한 성실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보게 되었다. 자신이 봉고로 운행하던 교회는 버스를 사게되었고, 차량관리 집사님까지 두는 교회로 크게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함께하는 교회

태평제일교회는 일보다는 사람을 소중히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다. 태평제일교회가 사역가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세워주고 교회’이다. 성도들을 세워가며,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역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세금을 융자해 주어 정착하여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25)

성낙운 목사는 태일신용협동조합 뿐아니라 보육시설 운영,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생활보호 대상자의 학교 급식비 지원, 공부방 운영, 복지회관 운영 등 지역과 함께,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었다.

이러한 성낙운 목사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철학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를 주어 교회가 지역과 이웃의 일부분이 되게 만들었다.

같이하자 함께하자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은 모든 일에 술선수범이었다. 가라~ 돌진하라~ 돌격하라~는 스타일의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고 권면하는 지도자였다. 존 맥스웰은 보스와 지도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보스는 ‘네가 가라’고 말하며, 지도자는 ‘함께 갑시다’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Maxwell 2005, 31).

성낙운 목사는 늘 ‘같이하자’ ‘함께하자’는 목회를 하였다. 성낙운 목사는 교회를 보수하거나 새롭게 지을때도 언제나 자신이 제일 앞에 서서 돌을 짐을 져고, 옮겼으며 어떤

일을 할때든지 가장먼저와서 돌보고 본을 보여주려 애썼다. 물론 당시 육체적인 무리한 부분으로 인하여 지금은 허리가 좋지 않고 신체여러부분에 무리가 되어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낙운 목사는 그러한 모습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마땅한 모습이다 생각했다.

교회 일은 목사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다른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7)

성낙운 목사의 솔선수범하는 움직임이 성도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 현재의 태평제일교회가 된 것이다.



<그림 3>

맨 앞에서 벽돌을 옮기는 성낙운 목사

목회 유혹

성낙운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어 목회를 하였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쁨도 얻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성낙운 목사에게

성남교회에서 청빙이 온 것이다. 성남교회와 태평제일교회는 직선 거리상 3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 당시 태평제일교회보다 세속적 관점으로 볼 때 성남교회는 더 괜찮고 매력적인 교회가 분명했다. 먼저 성남교회는 성남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모교회 같은 교회이다. 그리고 당시 성남에서 가장 규모 있는 교회 중 하나였다. 그 교회에서 성낙운 목사를 청빙한 것이다.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성낙운 목사는 “저의 목회를 돌아볼 때 가장 큰 시험이자 유혹 된 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성낙운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인지도와 규모에 의해서 그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생애를 다루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쓰임받기를 기뻐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태평제일교회가 있게 하였고, 성낙운 목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진실한 목사 외부 사례는 교회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물질적 유혹으로 정체를 겪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 사역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된다. 성낙운 목사도 목회과정에서 여러 번의 진실성 검증을 겪었다. 그중에 하나가 물질적 검증이다.

성낙운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신앙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스스로 물질에 대한 유혹앞에 더욱 깨끗하고 투명하려는 노력하는 모습 끊임없이 지속하였다. 그는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쓴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성낙운 목사는 교회에서 매년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한번도 자신의 임의로 교회 돈을 사용한 적이 없고, 교회 물건 하나 하나까지 아껴쓰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사용한 교회 봉투를 번거로운 수 작업을 거쳐 뒤집어 다시 사용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부흥회를 나가 받은 사례를 고스란히 교회에 다시 넣었던 사람이 성낙운 목사이다. 진실성에 대한 순종반응은 지금의 성낙운 목사가 유종의 미를 경험하는 이유의 방증이 된다.

제5 단계: 수렴단계, 교회개혁

사역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수렴단계는 리더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을 것을 사역에 활용하는 때이며, 삶의 성숙과 사역의 성숙이 함께 절정을 이루는 황금기이다(Clinton 2017, 71).

또 다른 도전

태평제일교회의 사역은 성낙운 목사에게 있어 개인적으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품이 온유해지고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경험한 현장이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험은 깊어가고 그 경험적인 이해는 발전하였다.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삶의 모습과 만족스런 신앙의 환경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낙운 목사에게 꼭 맞는,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오신 최선의 것을 사역에 활용하여 교회개혁을 하게 하신다.

믿는다

성낙운 목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다. 또한 잠재적 리더들에게도 믿음을 주는 사람이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할때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맡기면 끝까지 믿어준다. 혹 그 일이 잘안되거나 한계에 다다르게 될 때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회철학이다. 교회를 개혁할 때도 동일했다. 태평제일교회에서 교회를 개혁할 때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 주었다.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갔다. 그럼에도 성낙운 목사는 개혁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들에게 전권을 주어 교회를 살피도록 했다. 개혁된 교회에 어떤 간섭이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

개혁한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연락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했습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25)

성낙운 목사는 수렴단계를 거치면서 믿고 맡기면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리더가 아니라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그의 헌신은 개혁한 교회를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그가 개척한 교회 양지기념교회는 작은 시골교회이지만 80명의 성도들이 매주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천기념교회도 5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다.

제6 단계: 회상단계

현재 성낙운 목사에게는 5단계와 6단계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6단계인 회상단계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회상한다. 효도를 가르쳐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회상하고, 죄인을 부르시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 지도자로 삼아주시며,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격한다. 특별히 성낙운 목사는 어릴적 아버지가 소를 팔아 교회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4곳의 교회를 세운 것을 보고 자랐는데, 자신도 2004년에 양지기념교회와 2011년에 이천기념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전 생애를 다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또한 성낙운 목사는 오늘도 교회와 잠재적 리더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한다. 끝으로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기만을 소망한다(딤후 4:7).

교회를 설립한지 48여년이 지난 지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교회인 태평제일교회의 축복에 그치지 않고 양지기념교회와 이천태평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세워주는 교회”라는 목적으로 복음에 힘쓰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 자체에 큰 감사와 감격스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7)

효도 정신

성낙운 목사의 아버지 성의영 장로는 102세가 되었다. 매주 태평제일교회에 출석하여서 기도하며 교회오는 것을 가장 기쁜 순간이라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부친이 장수하는 것은 성의영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했다.

2014년 폐렴과 장염 등 합병증으로 약 3주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아이들도 내가 몇 달 넘기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중증 질환이었는데도 아이들의 헌신적인 간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했다. 그 후로도 몇 년째 주일성수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성의영 2018, 107).

성낙운 목사는 올해 74세이다. 그러나 아들 성낙운은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안부전화하며, 아직까지도 10년전(2008년1월7일 오후3시경) 고인이 된 어머니 남상순 권사를 생각하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효자가 바로 성낙운목사이다.

너를 낳아서 양육한 부모님께 감사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은혜 신학

성낙운 목사는 자신의 삶을 회상한다. 지금까지 멀고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찬양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목사도 없을겁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목회를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이렇게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7)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8.11.25)

태평제일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하였다. 성남에서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 교회를 개척했다. 양지기념교회와 이천기념교회이다. 두 곳 모두 지역에 요긴한 교회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멘토인 아버지

성낙운 목사는 자신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과정가운데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강화요인가운데 하나는 아버지 성의영 장로가 있었기 때문이라 고백한다.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 아버지 성의영장로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 뿐아니라 기도, 생활의 본이 되신 것들이 저의 목회에 큰 도움과 영향이 되었습니다. (성낙운 인터뷰 2018.11.7)

너를 모태에서 택하여

성낙운 목사는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전생애를 다루시어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성낙운 목사가 늘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은 그의 삶을 대변한다.

이 고백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인도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부분이다.

부모님께 감사하라

성낙운 목사의 아버지 성의영 장로는 언제나 “너를 낳아서 양육한 부모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한다. 성낙운 목사 역시 너를 낳아서 양육한 ‘부모님께 감사하라’ 말한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언약이 있는 계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길이었고, 그의 삶으로 증명된 신앙의 경험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가장 큰 축복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행 16:21)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경기도 과주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받은 근본적 시작점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그의 아버지 성의영장로로부터 시작된다. 주 예수를 믿은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성낙운 목사의 삶에 적용되고 있다. 욕심없이 목회에만 전념한 목사였지만 물질적인 은혜를 허락받았고, 목회가 바빠 가정을 돌보지 못했지만 그의 두 아들들은 믿음 좋은 안수집사와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다만 예수를 믿고 삶에 순종하는 바른 반응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성낙운 목사는 그의 자녀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리고 후학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기만을 소망한다(딤후 4:7).

리더는 배워야 합니다

만 7년동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 본 성낙운 목사는 독특한 점이 많다. 특별히 배울것이 참으로 많았다. 그 중에서도 그는 항상 배우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클린턴은 “효과적인 지도자는 그가 어떤 수준에 있던지 전 생애를 통해 배우는 자세를 견지한다”(Clinton 2017, 251)라고 말하였는데, 성낙운 목사는 그의 삶, 전 생애에서 배움의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매일 교회에 와서 독서를 한다. 성낙운 목사는 아직도 놀라운 지적 호기심이 있어, 여느 동년배 사람들과 달리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룬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고 답할정도로 스마트폰도 잘 사용한다. 어떤 배움에 있어도 게을리 하지 않고 끊임없이 책을 보고 확실하게 이론을 먼저 연구한다. 그리고 자신것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성낙운 목사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배움을 추구하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배움을 추구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사모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사이고,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요약

본 장에서는 클린턴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의 방법론에 따라 성낙운 목사의 생애를 기술하였다. 그의 목회리더십은 여섯 단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 성장을 위해 리더를 키우신다. 전 생애를 통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통해 발전시키신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리더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 소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 교회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천은 리더의 리더십 철학에 있으며, 그 철학은 인격, 사람 됨됨이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권위에 있다(Clinton 2017, 26, 215-16).

리더십 철학은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은 다음 여섯 단계를 통해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을 발견한다.

첫째 단계를 통하여 성낙운 목사는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 어릴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정직함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복음의 열정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소년시절 울젠을 가지고 노는 것을 통해 음악적 기술을 터득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된다.

둘째 단계인, 울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군중병으로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목회에 대해 더 친밀하게 다가서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목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보다 리더십 철학이 생기고 성숙해진다. 잠재적리더로서 세 분의 군중목사들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리더십 철학은 더욱 또렷해졌으며, 군에서 훈련받는 동안 복음 전파에 대해 사명과 충성심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리잡혔다.

셋째 단계인, 신학생과 전도사 사역을 통하여 성낙운은 공동체적 관계에서 분별, 이해, 순종 가운데 리더십 성장을 이룬다. 나아가 관계성 안에서 성품을 개발시키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되며, 내면의 성숙을 이루게 된다.

넷째 단계인 태평제일교회 사역을 통해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 철학은 선교적인 양태를 갖게 되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며 눈물로 교회를 지키는 사역은 그 자신에게 복음의 대한 소중함과 확신을 갖게 하였으며, 전도 중심의 목회, 개척중심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다섯째 단계를 통해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나라의 복음선포에 최적의 수단이었고, 이를 통해 태평제일교회도 큰 복을 경험하게 된다. 새로운 교회설립은 태평제일교회의 영역을 뛰어넘는 복음의 확장,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회상단계이다. 이 단계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직 다섯 번째 단계가 완성되지 않아서, 클린턴의 다섯 단계 단계와 여섯 번째 단계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자신의 여정을 회상하며 성낙운 목사는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갖는다.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이다. 전 생애를 다루신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과 인도를 찬양한다. 성낙운 목사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성경에서 두 분을 멘토로 삼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적 삶, 둘째는 모세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 철학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몸부림과 모세의 순종적 리더십이 나타난다(임윤택 2009, 159).

다음 장에서는 태평제일교회 성장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5 장

태평제일교회 성장과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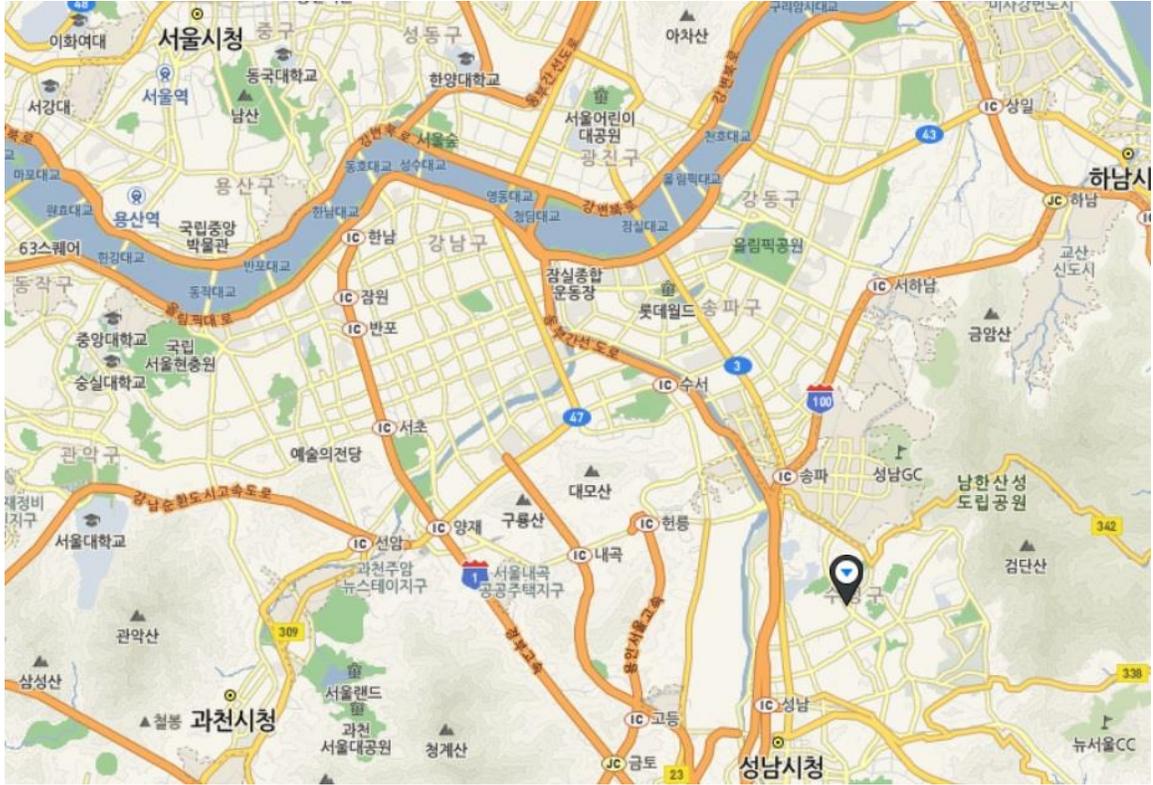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과 목회철학이 태평제일교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쳤고, 성장을 통하여 그 결실을 맺게했다. 본 장에서는 태평제일교회에 부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회성장의 현황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교회는 탄리제일교회였으나 성낙운 목사가 부임후 태평제일교회라고 개명하였으며 이후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과 목회철학이 반영되어 크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와그너의 말과 같이 어떠한 속도의 성장이 빠른 속도의 성장인지? 또한 어느정도의 성장이 큰 성장인지? (Wagner 1997, 89) 어떤 다른 비율과 대비되지 않을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지 모른다. 또한 리더 앤드슨의 말처럼 성공을 수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Leith 1998, 100) 모르겠지만, 태평제일교회 자체로 단정하여 본다면 현재 태평제일교회는 비약적인 내외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룬 것이 분명하고 건강한 구조의 교회가 된 것이사실이다.

그러면 태평제일교회의 교회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태평제일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태평제일교회의 이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15(태평동)에 위치한 태평제일교회의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교회의 지역과 역사 그리고 현재 사역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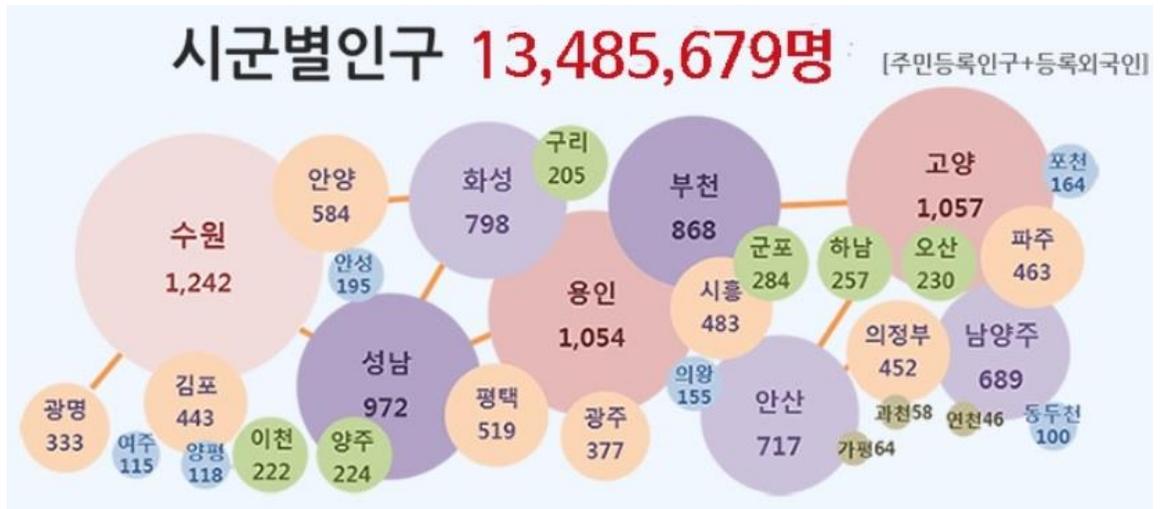


<지도 1>

태평제일교회 위치
 (https://map.naver.com/)

교회가 속한 지역 및 사회적 연구

태평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소속된 교회로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회적 상황 가운데 인구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31일 경인지방 통계청에서 발표한 아래 그림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나 등록외국인 인구는 약 13,486(천명)이다.



<그림 4>

경기도 총인구 및 시군별 인구 현황 (<https://stat.gg.go.kr/statgg/main.html>)

여기에 경기도에 속한 성남시 인구는 2018년12월31일 성남시청에서 발표한 아래 도표 기준으로 398,412세대 954,347명이다.

구별, 성별 인구현황

행정기관	인구수			65세 이상			세대수	재외국민
	계	남	여	계	남	여		
성남시 합계	954,347	472,506	481,841	120,100	52,317	67,783	398,412	2,517
수정구 합계	234,133	118,563	115,570	33,491	14,647	18,844	108,396	312
중원구 합계	224,885	113,912	110,973	31,039	13,628	17,411	99,495	215
분당구 합계	495,329	240,031	255,298	55,570	24,042	31,528	190,521	1,990

<그림 5>

성남시 인구 통계

(<https://www.seongnam.go.kr/city/1000011/10008/contents.do>)

태평제일교회 설립 당시 성남은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와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 제한 및 합리적인 육성에 대한 국가 정책으로 인해 광주군에 소속되어 있던 성남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14만 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1973년 7월 1일에 성남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성남시는 분당지구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 급증이 가속화되어 지금은 수정구 (27.2%), 중원구 (25%), 분당구 (47.8%)의 3개구와 50개동, 1,340통, 8,064반으로 인구는 954,347명 (2018년 12월 31일 기준)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성남시 기본현황” n.d).

본 교회가 위치한 성남시 수정구는 234,133명이 거주하고 있다. 교회개척 초기 당시 태평동은 서울시의 인구 분산 정책과 무허가 건물 철거 대책으로 인해 철거민들을 강제로 쓰레기차에 실어 이주 시킨 곳으로 강제 이주민의 생활은 대부분 말할 것 없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성남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 특성상 서울로부터의 전입이 많았던 반면에 생활이 나아지면 서울로 진출하는 유동인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많은 도시이다(성낙운 2001, 1).

현재 성남시민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성남 주변은 도시개발로 인해 이주현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예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진출 지역 대상이 서울뿐 아니라 분당(판교)과 경기도 주변 신도시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의 독특한 특징은 구도시(수정구, 중원구)와 신도시(분당구)의 경제적 차이와 거주지 환경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태평제일교회의 역사적 연구

본 교회는 1970년 4월 19일, 경기도 광주군 성남 출장소 중부면 탄리 161-121번지에서 제송기 목사를 중심으로 11명의 성도들이 모여 탄리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5일 경기노회에 가입하였다.

교회 창립 다음 해에 교회는 교회당을 신축했다. 이후 1973년 7월 1일 지역인구성장으로 인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광주군 성남에 속해있던 지역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성남은 성남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탄리제일교회 역시 유입된 인구로 말미암아 거듭된 성장기를 맞이하기도 했으나, 교회 신축 후 교회내 신앙적 갈등으로 인해 임직자들과 성도들이 여러 차례 갈등으로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1978년 3월 1일 교회를 설립한 제승기 목사가 위암으로 별세한 후,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등의 소문으로 인해 함께하였던 성도들이 더욱 흩어져, 본 교회는 창립 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1979년 7월 1일에 성낙운 목사가 제2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 당시 교인은 50명 정도 되었으나, 대부분 노인이었다. 성낙운 목사는 부임후 성도들을 향한 애뜻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교회 안정과 성장을 위해 애썼다. 먼저, 당시 교회에 부정적인 소문과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지역명칭이 탄리에서 태평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회의 이름을 탄리제일교회에서 태평제일교회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암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한 전임목사로 인한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 교인들에게 장수하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애썼다. 또한 흩어졌던 교인은 다시 돌아온다는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실천방안으로 잃은 양 찾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방관자였던 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성도들이 새로워진 교회의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신용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세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성도들이 성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성낙운 목사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매 주일 성도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었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림 6>

성낙운 목사 부임 초기 태평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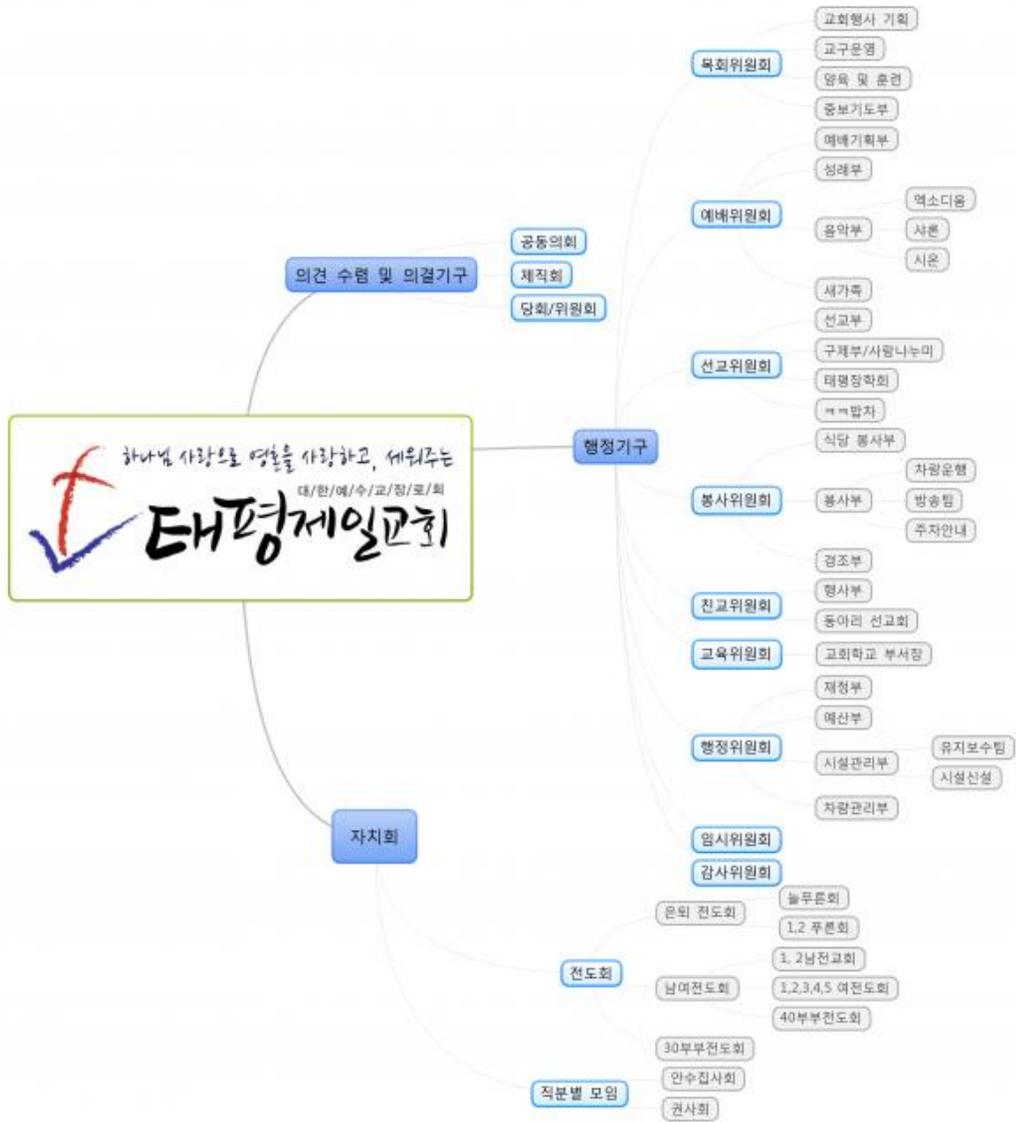
성도들의 수적 증가에 따른 교회 성장은 수용에 한계를 맞이하였다. 즉, 예배당의 증축과 교회 이전, 교육관 건축, 본당 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고, 1985년 1월 31일 교회는 현 위치로 이전하여,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태평제일교회 현재적 상황

2019년 1월 현재 시무장로 7명, 원로 및 은퇴장로 16명, 시무권사 113명, 안수집사 45명을 포함한 610명의 제직이 태평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다. 주일 장년 출석 700여명, 교회학교 150여명의 학생이 모이고 있다. 교역자는 목사 6명, 전도사 6명, 파송 선교사 3명, 그리고 관리집사와 간사가 봉사하고 있다.

조직 구성 현황

태평제일교회의 조직은 위원회 체제를 중심으로 주요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그림 7>

태평제일교회 조직도
(<http://www.taepyung.net/>)

태평제일교회 사역 연구

교회 성장을 한 특정한 것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교회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본적인 촉매 역할을 분명 목사가 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성장한 교회들이나, 성장하는 교회들은 거의 예외없이, 한 사람의 리더의 특별한 지도하에서 성장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특정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했던 것이다(Wagner 1997, 76). 여기에는 태평제일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태평제일교회 성장에도 성낙운이라는 목사의 전 생애를 통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태평제일교회라는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나타내어 성장케 한 것을 보게 된다(Clinton 2017, 17).

이 성장에는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이 반드시 반영된다. 따라서 필자는 태평제일교회 사역 연구를 위해서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과 그의 다른 교회사역을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리더십 철학

목사는 영적 지도자이다. 리더는 분명한 리더십 철학, 또는 사역철학을 전 생애를 통해 개발해야 한다. 클린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focused life)을 살기 위해 그리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또한 잘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지도자 철학을 가져야 한다 말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리더십 철학을 바탕으로 사역하기 때문이다(임윤택 2009, 331).

지도자는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가 사는 시대의 도전을 수용하며, 그들의 특수한 은사에 적합하고 전 생애를 통하여 생산적인 지도자로서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역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Clinton 2017, 270)

리더십 철학은 성경말씀, 개인적인 은사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적응력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루어진다. 리더십 철학은 배운 교훈을 자신의 지혜로

승화시켜 삶에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철학적 가치로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좋은 리더십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된다.

효과적인 지도자는 끝없이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다. 배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다. 그들은 모든 자료에서 배운다. 성경을 매일 연구하며 성경에서 배운다. 성경말씀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를 진단한다. 자신의 천부적인 가능성을 개발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상황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배운다.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자신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2017, 269)

성낙은 목사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목사였다. 그리고 성낙은 목사는 분명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철학을 가졌다. 그의 리더십 철학은 목회 전반에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충직한 사역자이다. 성령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평생 배우는 자세로 발전시켜 나갔다. 삶의 터전을 잃고 성남이라는 외딴곳에 와서 정착하는 가난한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그들과 함께하였던 사역자이다. 그가 가진 리더십 철학, 리더십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아래에 계속 이어진다.

성낙은 목사의 리더십 철학

C. 피터 와그너는 핵심적인 교회성장 원리에 대해 대담하게 선언했다. 즉 “미국의 한 개교회에서 성장을 위한 제 1차적인 촉매요소는 목회자이다. 나는 모든 성장하고 역동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장이 일어나도록 쓰시고 있는 핵심적인 사람을 발견하였다”(Rainer 2009, 225).

와그너는 강한 목회지도력이 여러 가지 교회성장의 건강한 증거중에 제일 먼저 오는 증거임을 덧붙여 “건강한 교회의 생동적인 제1증표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역동적 지도력으로 전 교회를 성장에 참여하도록 촉매시켜 쓰임받은 목회자이다”(Rainer 2009, 225)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지도력, 특히 목회적 지도력은 교회성장 과정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Rainer 2009, 225).

태평제일교회가 성장한 과정에도 성낙은 목사의 리더십 철학이 교회를 성장케 한 것을 보게 된다. 성낙은 목사는 교회를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성장이라는 말하는

교회성장학자들의 말과 일치를 이룬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을 교회성장으로만 한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영혼구원에 힘쓸 때에 교회는 수적, 영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성낙은 목사는 태평제일교회의 목표를 영혼구원을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에 두고 목회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낙은 목사가 가장 집중한 사역은 교회 개척과 섬김의 사역이다. 태평제일교회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과 함께 교회개척 사역과 지역봉사 섬김사역에 집중하였다. 또한 그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나라의 바른 방향제시와 섬김이며, 술선수범 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의 목회철학이다(성낙은 인터뷰 2018.11.25).

성낙은 목사는 태평제일교회 초창기 교회사역을 하면서 설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에 정착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설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교 준비를 잘하는 것이 성도를 교회로 모이게 하고 정착시켜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낙은 목사는 “설교 준비에 성실하라. 그래야 교회는 성장한다!”는 철학을 반복되는 목회 현장 경험에서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설교 한편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착실히 준비하려고 노력한다.

후에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성낙은 목사는 누군가에게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할 때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영향력 있고, 힘이 있어 성도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삶을 움직이게 하는데 빠름을 알게 되었다. 이 단순한 진리에 따라 “사람이 중요하다” “술선수범해라” “섬김을 나타내라” “리더가 먼저 움직이라” 강조한다. 그에게 균형있는 건강한 사역 철학이 생긴 것이다. 특별히 성낙은 목사는 이 철학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동안 사셨던 모습에서 재차 확인 검증하게 되었고, 이것이 목회철학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성낙은 목사는 마지막으로 교회개척은 숙명적 선택이었다 말한다. 지상 최대명령인 마 28:19,20과 막 16:15과 눅 26:46,47 그리고 행 1:8절에 나타난다. 이 성경 구절들을 찬찬히 분석해 보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첫째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이며, 셋째는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요소를 알고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주로 교회를 주님의 지상최대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필연적 움직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지상최대의 명령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낙은 목사는 독특한 어조로 말한다. “주님의 말씀 복음이 먼저다”.

태평제일교회 성장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와그너는 교회성장의 유형에 대하여 내적 성장, 양적 성장, 개척 성장, 교량적 성장으로 분류하였는데(Wagner 1997, 141), 이를 근거로 하여 1979년 태평제일교회에 부임하여 교회를 성장시킨 세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내적성장에 대하여는 태평제일교회 헌신을 중심으로, 둘째, 양적성장에 대해서는 출석장년수와 선교비 지출 그리고 교회의 각기관현황을 중심으로, 셋째 개척성장과 교량적 성장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한 4대 선교 현황을 중심으로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헌신을 통해 본 태평제일교회의 내적성장

내적 성장에 대하여 와그너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리스도께로 전적으로 헌신한 제자들의 수가 증가한다”(Wagner 1987, 141)고 말한다. 태평제일교회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전교인의 헌신을 목표로 한다. 전교인이 복음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감당하기를 꿈꾼다. 그래서 현재의 태평제일교회는 사역에 있어 강압적인 임명이나 권유가 아니라 자원하는 지원형태를 추구한다.

가장 중요한 내적헌신은 중보기도 사역의 자원함이다. 중보기도팀은 1990년 2월에 조직되었는데 매일 저녁 9시에 모여 교역자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개척한 각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헌신은 모든 부서 및 봉사의 자원함이다. 태평제일교회 교사는 자원하여 봉사한다. 식당봉사도 자원하여 봉사한다.

주차봉사 역시 자원하여 섬기도 있다. 화요 청소년 밥차인 ㅋㅋ밥차, 전도특공대, 등 모두가 자원하여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조직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섬김이 마음에 우리나라의 사람들로 채워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태평제일교회가 창립하여 49년을 맞이하면서 내적으로 성장한 증거는 강압적이거나 임명위주의 섬김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자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태평제일교회의 양적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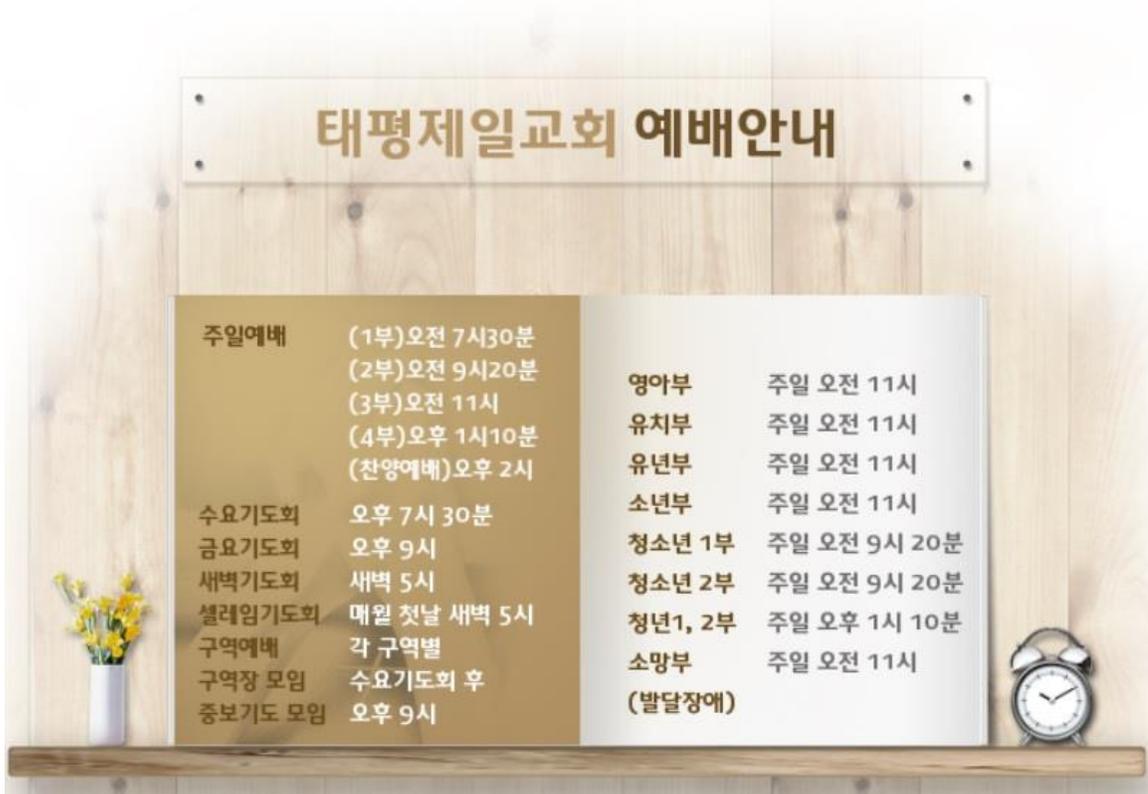
태평제일교회는 지난 48년간 비약적인 양적성장을 이루어왔다. 이 양적성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출석 장년 수와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들의 성장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이외에 다양한 변화된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태평제일교회는 현재 매주 700명의 장년과 250명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1970년 11명으로 탄리제일교회를 개척한지 48년만에 성인만 기준으로 63배이상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낙운목사 부임 당시 50명의 성도를 기준으로 하여도 650명이 증가한 것을 보게 된다. 재정적인 구조는 창립 48년이 지난 현재 사례비 지금이 어려웠던 교회가 본교회와 교육관을 제외하고, 7개의 사택 건물이 있고, 양지기념교회와 이천기념교회를 소유하고 있다. 빛이 하나 없는 건강한 재정구조의 교회가 된것이다. 전교인이 속해있는 구역은 2018년도 기준으로 4개의 대교구와 74개의 구역으로 편성되어있고, 전도회는 4개의 남선교회와 7개의 여선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예배의 풍성함

교회성장에 관점에서 태평제일교회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주일예배 및 각 부서 예배의 풍성함이다. 태평제일교회가 성장했음을 주일 마다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하고 탄탄한 예배가 있다는 것이다. 주일 예배는 1부(7시30분), 2부(9시20분), 3부(11시), 4부(1시10분)로 진행된다. 그리고 오후찬양예배(2시)가 있다.

교육부 예배는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1부(중학생), 청소년2부(고등학생), 소망부(장애우)로 운영되고 있다. 성인예배와 교육부 예배의 다양화는 태평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내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림 8>

태평제일교회 예배안내
(<http://www.taepyung.net/>)

다양한 전도 방법과 선교 확장

태평제일교회가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먼저, 미 자립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섯 개 교회의 재정을 보조하는 사역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태평제일교회는 직접적인 전도사역으로 화요일에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밥차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성남 구시가지 변화가에 저녁6시에 텐트를 치고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가까운 카페에서 지역 청소년 상담사와 연계하여 차를 마시며 상담할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였다. 밥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경험하게 하는데 있다.



<그림 9>

태평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밥차
(<http://www.taepyung.net/>)

성인을 대상으로는 토요일 마다 전도특공대를 운영한다. 전도특공대는 계절마다 다양한 전도용품을 가지고 교회와 가까운 지역의 학교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며, 간접적으로는 지역 안에 태평제일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인식시킨다. 이러한 전도사역에 의해 교회로 인도되는 비율은 등록교인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도특공대 사역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전도학교를 통해 사역 헌신자들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뿐만 아니라 영혼구원의 중요성과 열심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태평제일교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웃음치료나 문화센터(바이올린, 플룻 교실)운영, 지역에 어려운 이웃에게 쌀전달과 김치전달, 명절때마다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태평2동과 4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전할하며,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그림 10>

웃음치료 운영 실태

(<https://blog.naver.com/hmh6090/221304819932>)

태평제일교회는 이천태평제일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목회자 사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홍천은평교회와 군부대인 천지답교회를 돕고 있다. 국내 전도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전해숙 선교사(남아프리카 공화국), 강명숙 선교사(캄보디아)를 파송하였고 캄보디아에 꺼꿍교회를 세웠다. 꺼꿍교회가 귀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 할 수 있도록 최성한, 최예순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태국에는 이홍진 선교사를 도와주며 멕시코에 성낙서, 제왕희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해외 선교로 통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정기적이지만 해외선교지 교회설립을 지원하고, 청년부의 해외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다

교회정착 및 신앙성장 프로그램

태평제일교회는 정착 및 신앙성장을 위한 훈련으로 새가족교육, 알파코스, 토라학교 등 신앙생활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알파코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3기씩 운영되었다. 토라학교는 2007년부터 시작했으나 3~4년 후에 그 훈련을 종료되었다. 2018년 현재 태평제일교회의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으로 제자훈련, 사역반훈련, 전도훈련, 말씀묵상Q.T 학교가 진행 중이다.

교제 활성화

태평제일교회는 두개의 든든한 큰 기둥인 구역과 자치기관인 전도회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구역과 전도회를 통한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바치는 든든한 기둥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3개의 대교구와 58개의 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구역모임은 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행된 구역예배 교제를 통해 구역예배와 친교가 진행되고 모임 시간은 구역 사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구역은 매주 금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구역장 모임이 수요일 예배 후에 진행되며 구역장 참석률은 50퍼센트 정도이다. 구역장 충원하는 방법은 부구역장을 구역장으로 세움으로 이루어진다. 구역은 매해 12월에 보완 편성되며, 대개 2년간 편성된 구역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구역은 성장 후 분립을 원칙으로 한다.

각 전도회는 매달 한번 정기모임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다. 또한 주요 행사나 교제를 위해 특정한 만남을 통해 친교를 나눈다.

태평제일교회는 구역모임과 전도회 모임을 통한 교제뿐 아니라 다양한 취미를 통한 교제를 활성화 하고 있다. 현재 볼링동아리, 축구동아리, 찬양동아리, 말씀동아리, 독서동아리, 기악동아리를 통해 매주 모임을 갖고 교제하고 있다

봉사의 다양화

태평제일교회가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지역봉사와 전도의 관계적 다리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일신용협동조합, 보육시설 운영,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생활보호 대상자의 학교 급식비 지원, 공부방 운영, 복지회관 운영 등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해왔다.

199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태평제일교회 부설 관인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현재는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성낙운 목사는 이러한 어린이집 사역에 통해 불신자 가정이 자녀로 인해 교회에 오고가면서 교회로 인도된다 말한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태평제일교회는 이어서 2011년 1월-2015년까지 태평4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위탁운영하였고, 지역사람들에게 유익한 행사와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태평제일교회는 1990년 12월 3일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과 그 뜻,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 장학회를 설립하여 1기 장학생을 선발한 이래 현재까지 39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992년에 지급한 1기부터 39기까지 213,411,500원을 연인원 47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요약

교회성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피터 와그너의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수(數)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시며 또 교회의 수(數)도 늘어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Wagner 1997, 44)는 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장에 있어서 분명 수에 대한 성장을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나 교회성장 성공의 기준을 단지 수에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배 참석자의 수, 혹은 전교인의 수, 헌금의 액수 등에 따라 교회의 성공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방법인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을 수(규모)로 우선하는 것의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따지는 것이 편리하기에 그런 식의 접근을 계속 하고 있다(Anderson 1997, 100).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 태평제일교회의 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수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수적 성장과 더불어, 수와 함께 변화된 교회에 여러가지 모습, 수적 성장과 함께 이면에 형성된 건강한 교회로 변화된 내면에 집중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태평제일교회는 수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예배와 전도 프로그램, 정착 프로그램, 교제, 봉사가 교회 내에 생겨나 자리잡은 것을 보게 된다. 성도간의 친목도모와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다양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노인보호사업,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여가지원 사업으로 그 사역을 점차 확장시켜 지역을 섬기고, 나눔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복음으로 이루어 내는 태평제일교회의 성장을 보게 된다.

여기에는 성낙운 목사의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을 세워주는 교회’라는 분명한 목회철학과 안정적 지도력이 태평제일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목회철학은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목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권위를 인정했다. 이러한 지도력에 바탕위에 성도들의 동참은 태평제일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고, 본교회 넘어 하나님나라를 위한 교회개혁으로 한단계 더 나아가게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 가운데 세워진 개척된 교회들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6 장

태평제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들의 상황과 비전

태평제일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 때문이다. 성낙운 목사는 본교회의 편함이나 화려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교회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추구한다.

교회 개척 의미

맥가브란이 목적하는 교회성장은 새로운 땅에 교회를 늘려나가고 또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말한다(Wagner 1997, 12).

그래서 맥가브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라는 선교 지상명령에 대해 헬라어로 자주 되풀이해서 강조했다(McIntosh 2009, 50).

선교 지상명령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주께 복종하도록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역은 지역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새로 개척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교회 성장의 핵심은 전도와 양육을 감당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다. (2009, 50)

피터 와그너는 교회개척을 “하늘 아래서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 이라고 부른다. 가장 바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교단들은 교회개척을 강조하는 교단들이다 말하며, 와그너는 교회개척을 강조하는 나사렛교회, 하나님의 성회, 남침례교연맹을 칭찬한다. 와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침례교회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비밀 중에 우선적인 것은, 남침례교회들이 끊임없이 지역 회중(개교회)들로부터 연합회들까지는 물론 남침례교회 애틀란타 국제선교위원회의 전국연맹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차원들에서 개척하는 교회들 및 바탕이 되는 인재와 재원들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록

남침례교회가 첫째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들은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는다. 남침례교회들은 매해마다 지난 해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나 교회 형태의 선교단체들을 시작하려 한다. 나는 교회개혁에 관해 배운 것 중에 상당수를 남침례교회들로부터 배워왔다. (Rainer 2009, 249에서 재인용)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살펴보면, 전도 성공에 있어서 교회개혁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사역은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시작하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울과 마나바 같은 중요한 지도자들과 더불어 시작되었다(행13: 2-3).

오늘날 역시 교회는 기꺼이 개교회들의 편안함을 떠나 하나님을 위해 전에 없던 위대한 일을 행하려 하는 더 많은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기존교회들이 자신들에게 행하라 명령한 것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다시금 부르고 계신다. 지상 최대명령의 본질이 “내 교회로 오라”가 아니라 지상 최대명령을 위하여 “그러므로 가라”이다. 즉, 교회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교회 개혁 필요성

성장하는 교회란, 그 교회가 잃은 양떼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규모가 넉넉해진(충분한) 교회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또 아울러 그 교회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새로운 개혁 교회를 세움으로써 교회를 확대시켜 나갈 때, 그 성장하는 교회는 스스로 규모가 넉넉해진 교회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Wagner 1997, 145).

이와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 특징은 교회지도자들이 단지 자신의 교회를 현상그대로 유지하는데만 관심을 기울린 것을 보게 된다(McGavran 2003, 249).

교회 개혁의 장점들

태평제일교회가 교회개혁을 선언하면서 개혁하는 태평제일교회 뿐아니라 개혁된 양지기념교회와 이천기념교회에 다양한 장점들, 각 교회에 유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새로운 교회가 기존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교회개혁의 첫번째 장점은 새로운 교회가 오래되고 안정된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하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교회 개혁 전문가 오브리 맬퍼스는 미남침례교 연맹의 보고를 인용한다.

1972년에서 1981년 사이에 개혁한 교회들은 1971년 이전에 개혁한 교회들과 대조된다. 이 교회들은 1-50, 51-100, 101-200, 201-400, 401-600, 601-1000, 그리고 1000명 이상의 범주를 포함한 교인 크기별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 보고서가 기초를 둔 성장 기간은 1981년에서 1986년까지 이 모든 교회들의 성장률이었다. 그 결과는 1972년에서 1982년 사이에 시작된 규모의 교회들이다. 60~80%의 성장률로 자란 것이다. 1971년 이전에 시작된 교회들은 20-60%의 성장률로 자랐는데, 전통있고 큰 교회들이 20%정도 안팎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과 대조할 만하다. (Malphurs 2004, 62)

새로운 교회가 기성교회보다 성장률에 있어서, 보다 확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 라일 살러는 새로운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마도 이 패턴(양식)의 가장 간단한 설명은 새로운 교회들의 예배 공동체 삶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접촉해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것이리라. 반대로, 오랫동안 터를 잡은 교회들의 힘은 내적 기관의 압력들 때문에 저들 대부분의 재원들을 교인들을 돌보는 데 할당하도록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2004, 62)

이는 태평제일교회에서 개혁한 양지기념교회와 이천기념교회에도 적용되었다. 개혁 1-2년사이에 등록하고 정착한 인원이 성인기준으로 양지의 경우 50명이었고, 이천의 경우도 30명 내외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새로운 교회가 전통교회보다 더 잘 복음화한다

교회개혁의 두번째 장점은 새로운 교회가 오래되고 터를 잡은 교회보다 더 잘 복음화한다는 것이다. 오래된 연구보고서이지만 *크리스찬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지 1991년 1월호에 실린 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인터레스트 미니스트리(흥미있는 목회단, InterestMini-stries)를 주도하는 브루스 맥니콜(Bruce McNicol)은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서 3년 이상 된 교회들은 1년에 교인 100명당 10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임을 보여준다. 3년에서 15년 교회들은 1년에 교인 100명당 5명을 인도할 것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15년 된 교회는 1년에 교인 100명당 3명을 인도하는 데로 감소된다는 것이다. (Malphurs 2004, 63)

조지 바나는 “과거 7년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세주로 영접한 장년의 비율(34%)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복음주의 계통의 많은 교회가 전입 성장에 권태를 느껴 회심 성장을 요청받고 있다(2004, 63).

지도자들은 새로운 교회에서 더 빨리 신임을 얻는다

교회개혁의 세 번째 장점은 교회 지도자는 전통적 교회 목회자보다 개혁된 교회 목회자가 교회에서 더 빨리 지도자로서 신임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교회에 있는 지도력을 가정함

준켈(Zunkel)은 *작은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책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한 패턴을 따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플린(교육/군목)에서 당회장으로 또 당회장에서 지도자로 목회를 진행한다”(Malphurs 2004, 63) 라고 말했다. 새로운 목회자는 안정된 교회를 맡을 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다음 세 가지 단계의 양식을 통하여 진보한다(Malphurs 2004, 63).

첫째, 채플린 단계는 1년 내지 3년 사이에 지속된다. 이때 사람들은 이따금씩 교회 지도자를 ‘목사’로 부른다. 이 목회자인 지도자는 채플린들로서 역할을 하며, 설교하고 목회적 돌봄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도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둘째, 목회자 단계는 3년 내지 최고로 5년까지 몇 년간만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교회에서 그 목회자의 전체 임기(계약기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 경우 후자가 되는 것은 교회가 그 목회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지도자를 ‘우리 목사’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과 각 단계에 걸쳐 목사의 움직임이 신임과 신뢰로 이어져 증가된다. 목사가 신임과 신뢰를 구축할 때 사람들은 그가 지도하도록 할 공산이 크다.

셋째, 마지막 단계는 지도자 단계로써, 목사가 그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성도의 비전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에 오른 한 시점의 패턴을 말한다. 한 가지 문제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대부분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에서 이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새로운 목회지를 향해 떠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80년 남침례교 목사들의 평균 임기는 2.7년이었고, 1987년에는 4.7년이었다”(2004, 64).

개척된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정함

개척하는 목회자는 때때로 처음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된다. 안정된 교회를 맡는 목회자는 신임과 신뢰를 얻어야 하는 반면에, 교회 개척자는 신임과 신뢰를 처음부터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신뢰를 유지하거나 잃게 된다.

때때로 이 신임은 기성교회에 있는 목사는 ‘기성교회에 몸담아가기’ 그로 하여금 부여받고, 기성 교회에 있는 성도는 ‘목사에게 참여하러 올’ 공산이 매우 크다. 그러나 새로 개척한 교회는 기성교회가 수년간 기다리는 것과 대조되며, 또 결코 도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과 대조된 목회 비전을 처음부터 성취할 무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한 장점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의 변화에 더 열려 있다

교회개척의 네 번째 장점은, 교회 개척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성교회, 곧 전통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변화에 더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낡은 부대와 새 부대 간의 차이와 상관있다.

‘낡은 부대’의 문제

기성 교회들은 오랫동안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수많은 전통들을 구축해 간다. 이것은 기성교회들이 과거에 소중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대들이 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통들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 변화는 수없이 많은 기성 교회에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목회자는 이 전통교회를 변화시키려는 식견을 갖고 일단 그 전통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는 전통교회에서 오래 배기지 못하고 상당히 빨리 다른 목회지로 이동한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기성교회에 전통을 바꾸려 할때, 보통 일어나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자신의 목회에 반대하는 성도들 상당수에게 “떠나가라”고 요청하는 경우와, 반대로 그 목사에게 “떠나라”고 요청받는 경우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낡은 부대’의 문제이다. 이것은 오늘날만 있는 특유한 것이 전혀 아니다. 마 9:16~17을 보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 9:16-17)

예수께서는 기존 전통들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전통들을 평가하시지 않으시고, 또 어떤 새 것이 다른 옛 전통보다 더 낫다고도 말씀하시지 않는다. 다만 예수께서는 구조들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난관에 대해 경계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있는 교회, 기성교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는 시도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질문해야 된다. 낡은 옷에다가는 아예 생베조각을 붙이지 말라! 교회가 살아남으려 한다면, 시대적 상황의 변화앞에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점진적이고 교회 상황에 맞는 시간을 요구된다. 생베 조각으로 낡은 옷을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베 조각으로 옷의 헤어짐이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

‘새 가족부대’ 해결책

교회 개혁의 장점은 사람들이 기성교회의 ‘낡은 부대’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열려있는 자세로 지향하길 좋아한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도 새 옷에 낡아빠진 헌옷감을 꿰매어 넣으려는 사람이 없다. 또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 한다. 낡아빠진 헌옷이나 헌 부대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변화를 환영하고 기꺼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일구어 더 새롭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교회개혁과 본 교회 성장에 영향

툼 S. 레이너는 교회개혁은 긍정적으로 교회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에 대한 대답에 무제한적인 ‘예’라고 답한다(Rainer 2009, 250). 즉, 하나님나라의 성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총체적인 교회 성장이 더욱 고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회들은 더 높은 성장률과 더 높은 회심(개종)적 성장률을 갖는다. 좀 오래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센터 클래리티 밸리(Santa Clarita Valley)에서 연구한 모든 교단들에 속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실행된 통계를 보면, 오래된 교회들은 100명의 교인 중 4명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반면, 새로 설립한 교회들은 100명 교인 중 16명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 회심성장 차이가 새로 시작한 교회들과 오래된 교회들 간에 존재하는 것인가? 한 가지 이유는, 새로 시작한 교회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택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새로 시작한 교회는(대도시의 경우) 위치와는 상관없이 기존 교회들이 접근 할 수 없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기 때문이다.

교회개혁은 전체적인 하나님나라 성장에 유익할 뿐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는 큰 환상이 있는 지역 교회에도 유익하다. 후원하는 교회는 새로운 교회에 교인들과 재정을 보낼 수 있고, 또 후원하는 교회는 그 헌신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청지기직의 기본적인 이해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것에 복을 주심은 새로운 교회들이 시작될 때 분명하고, 새로운 교인들에게 후원하는 교회는 그 신바람으로 인해 매력을 갖게 된다. (2009, 251)

또한 와그너는 후원하는 교회가 항상 여섯 달 안에 신설교회에 보낸 교인들만큼 메꾸진 것을 증명하는 연구사례를 증빙하였다. 동일한 사실이 재정에도 적용된다.

와그너는 또한 그러한 패턴이 모교회의 태도, 목회자의 태도에 크게 좌우됨을 발견하며,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모교회의 종속적인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말한다(2009, 250-53). 그러므로 개척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과 논의는 교회안에 반드시 필요로 요구된다. 아래는 교회개척의 방법들을 기술한다.

교회 개척 방법

교회 개척방법은 다양하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지역 사회 등 고려 대상이 넓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떤것이 옳고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인 교회개척의 모델은 후원하는 교회가 한 지리적 장소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여 핵심적인 교인들을 함께 보내는 방법이다. “새로 시작하는 교회는 항상 후원하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데 놓여 있다”(Rainer 2009, 255). 목표는 새로운 교회가 가능하면 빨리 완전히 자립적으로 발전하여 교회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교회들의 성공률은 아주 높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교인들은 전형적으로 헌신된 헌금하는 자들이요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좋은 바탕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최고에 달한다. 회중(개교회)적으로 다스려진 교회들에서 개척방법을 사용할 때 오는 특별한 단점은 새로운 교회가 다시 모교회로 될 책임소재(mechanism of accountability)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교회가 그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책임성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한 단점이다.

식민화(Colonization)

식민화는 한 가지 중요한 예외를 가진 전통적인 모델로 알려진 것이다. 이는 모교회에서 파송받은 핵심적인 교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 그 교인들은 저들의 집을 팔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저들 자녀들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야 한다. 여기서 지상 최대명령에 혁신적인 차원의 헌신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식민화이다.

입양(인수)

번창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어려운 교회들의 사정을 듣고, 그 교회들이 재개되도록 사람들, 기금, 지도자들을 제공하는 데 헌신하였다.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지 않았더라도, 그 교회들은 살아남아 비슷한 영향을 끼쳤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어린아이들을 갖는 것이 더 쉽듯이 하나님은 죽어가는 교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선교적인 사명을 깨달은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신다(Rainer 2009, 255).

교회 분립

교회들이 갈라설 때 결과는 항상 갈라선 양쪽에 고통과 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악화된 상황에서 분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한국장로교회의 교단들은 세계적적인 실례이다). 그래서 와그너는 분립의 곤경을 긍정적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 분립현상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맥가브란과 헌터가 열거한 교회 분립(갈라섬)이나, 그 갈라서는 원인들을 인정하지 않으심을 확신한다. 나는 교회분립을 교회개척 방법으로 열거하는 데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조화를 이루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란스런 일이 정리될 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가져온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임을 믿을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발적인 부모의 자손을 통하여 영광받으실 수 있다. (Rainer 2009, 255)

위성 모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성모델은 교회성장에서 가장 흥미있는 발전이다.

존 본(John Vaughan)은 대형교회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즉 “위성그룹들을 가진 큰 교회들은 두 가지 성장전략의 최선책을 결합한다.... 이 교회들 중 대다수가 큰 중앙(본부)교회를 짓는데 헌신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모교회를 통해 충분히 조정된 작은 그룹들의 이용을 통하여 한 위성도시에 침투하여 뻗어나는 데 헌신되어 있을 뿐이다. 위성모델은 세속적인 지부은행 모델과 흡사하다. 새로 신설한 각 지부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같은 본부 교회의 일부이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 지부를 가진 한 교회의 한 교회의 지부교회에 불과한 것이다. 새로운 교회를 지부(지교회)로 세우는 것은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모교회와 다른 위성교회의 모든 결합된 자원들을 갖는다. 또 이 모델은 책임성에 있어서도 위험수위가 올 수 있다. (Rainer 2009, 256-57)

체인점 형태의 각 지부는 서로 새로운 교회들을 시작하는 것을 구경만 할 수 있다. 교회개척 비전에 대한 상호책임성은 아마도 위성모델의 한 가지 가장 강한 장점인 것 같다.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미동양선교교회, 성락교회는 대표적 모델이다(Rainer 2009:257).

다원적 회중모델(Multicongregational)

교회 개척 전략의 일환인 다원적 회중모델은 기존교회의 시설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있다. 이 방법은 미국 같은 다원적인 종족그룹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가장 잘 적용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영어만을 말하는 교회는 한국인 교회 및 중국인 교회와 자기 시설들을 공유하여 사용한다. 각 교회는 한 빌딩을 다른 시간에 사용한다. 다른 그룹들은 자율적으로 되도록 선택할 수 있거나, 더 크거나 단일한 교회의 하부 그룹들이 될 수도 있다(미국의 장로교, 침례교, 나사렛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다원적 캠퍼스(Multicampus)

이 개척모델은 위성모델방법과 약간 다르다. 다원적 캠퍼스 교회는 위성모델과는 달리 한 교회 등록제, 한 가지 예산, 한 운영진을 갖는다. 다만 캠퍼스 형태로 운영관리 되는 것을 말한다.

소달리티 모델들(Sodakity Models)

교회 성장 모델들 가운데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기구는 지역(개)교회였다. 교회개척의 소달리티 모델에서는 한 개교회 외의 어떤 기관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구는 교단기관, 초교과기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구는 개개인들에 의한 교회의 시작을 말할 수 있다(대학생선교회, 네비게이토선교회가 대표적이다).

태평제일교회의 교회 개척방법

클린턴은 “성장해가는 리더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특별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도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말한다(Clinton 2017, 322).

성낙은 목사는 정체된 리더가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는 리더였음을 방증하는 주요한 사건은 그가 왕성하게 사역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개척을 실행한다.

성낙은 목사는 일찍 교회개척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준비하였다. 그는 교회가 여력이 되는 한 10년마다 기념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기도로 준비한다.

성낙은 목사의 이런 비전과 꿈은 그가 태평제일교회에 부임하여 성실히 목회한지 24년이 지난 2004년에 결실을 맺게 된다. 태평제일교회는 교회창립 30년을 기념하여 양지기념교회(2004년 4월 13일 창립)를 개척하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창립 40주년 기념으로는 이천태평교회(2011년 1월 30일 창립)를 개척하였다. 태평제일교회의 교회개척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세워 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기념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태평제일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목회자의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양지태평제일교회는 성도 80명이 예배하고 있으며, 이천태평교회는 성도 5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기념교회들은 태평제일교회 소속 교회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교회 형태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2011년 5월 8일 각 지역교회로 분리하였다. 이러한 교회개혁의 형태는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이라 성낙은 목사는 말한다(성낙은 인터뷰 2018.12.14).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개혁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최선의 뜻을 깨달아 이루어진 일이다. 즉 분명한 목회철학에 따라 이루어진 사역에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태평제일교회는 개혁된 교회의 모교회이지만 개혁된 교회에 어떤 권리나 주장을 하지 않고 독립된 교회로써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념교회의 목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 개혁의 효과

교회개혁은 표면적으로는 본 교회 자체에 성장이나 유익을 얻기 위해 한 행사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 교회개혁은 개혁되어 세워진 교회를 통해 교회 본질인 하나님의 선교를 통한 회복과 지역에 변화와 변혁을 주도하는 역할하였고, 복음의 확장을 통한 하나님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회개혁 선교적 목회리더십 방향성이 모교회가 되는 태평제일교회에는 하나됨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교회내에 이뤄지는 사역으로만 채워져 있었다면 태평제일교회의 독특한 상황적인 면, 즉 성남은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적 색깔이 다른 지역보다 뚜렷하고 강해, 다툼과 갈등 요소를 품고 있는 지역 특징적 모습 가운데 안정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밖으로 사역의 시선을 확장함으로 특별히 교회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동참함으로 교회내에 일치와 단합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교회개혁이라는 사역을 통해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됨의 힘을 가지고 더욱 성장한 것을 보게 된다. 놀라운 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태평제일교회는 교회개척이라는 순종함을 통해 얻게 된다.

양지기념교회

태평제일교회는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교회개척을 통한 영원구원에 힘쓸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설립한다. 3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40주년, 50주년 매 10년마다 기념교회를 세울것을 목표로 목회를 하였다. 그리고 태평제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지 24년이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그 결과를 보게 하신다.

30주년 교회를 위한 준비

교회개척은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시작한다. 성낙운 목사는 교회개척을 위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양지기념교회가 설립되기까지 태평제일교회는 약5년동안 기도로 준비 한다. 또한 물질적으로는 건축제정을 통해 교회개척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30주년 기념교회는

드디어 성낙운 목사는 자신의 생애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양지기념교회는 2003년 3월 15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93-1에 400평 대지를 구입한다. 2003년 5월 18일 기념교회 명칭을 양지태평제일교회로 정한다. 2003년 8월 27일에는 교회 부지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2003년 11월 13일에 건축 허가를 받는다. 2003년 12월 31일 기념교회 토목공사 완료 및 준공 허가를 받고, 2004년 4월 13일 지상3층에 건평 199.41평의 양지기념교회가 기공예배를 드린다. 그 후 2004년 7월 15일 양지기념교회 부지(145평)를 추가로 매입한다. 태평제일교회에서 양지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당시 기준으로 약 11억원에 이른다. 그후 2004년 11월 01일 양지기념교회 초대 사역자로 이현찬 부목사를 양지기념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한다.



<그림 11>

태평제일교회에서 세운 양지기념교회

양지기념교회 성장

교회가 개척된 후 양지기념교회는 1-2년 사이에 괄목할 성장을 이루게 된다. 벤 앵젠은 “교회에 수적인 성장을 향한 갈망이 필요하다”(Van Engen 2014, 137)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적인 성장을 갈망함’(yearning for the growth)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말한 것처럼 양지기념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어 수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창립 후 120여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 된다. 양지기념교회는 바로 자립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예배가 신설되었고, 5개의 구역과 3개의 여선교회, 2개의 남선교회가 조직되었다. 봉사는 지역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확장되었다. 그래서 양지기념교회는 매년 3곳의 국내선교 미자립교회를 도와주고 3곳의 해외선교를 지원하여 감당하게 된다.

양지기념교회 비전

양지기념교회는 하나님나라 확장과 영혼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성낙운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 개척 설립된 교회이다. 그래서 양지기념교회 목적은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다리(bridge)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면 태평제일교회와 같이 교회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복음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꿈꾸고 있다.

이천기념교회

성낙운 목사는 양지기념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 또 다시 교회개척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약 8년만인 2011년 1월 30일에 경기 이천시 단월동 363번지에 이천기념교회를 세우고 창립예배를 드린다. 이천기념교회 초대 사역자로 변영광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한다.



<그림 12>

태평제일교회에서 세운 이천기념교회

지금 이천기념교회 역시 양지기념교회와 같이 태평제일교회와 분립된 교회이다. 이천기념교회는 이천에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개척된다.

40주년 기념교회는

성낙운 목사는 자신의 생애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곳이 바로 이천기념교회이다.

이천 기념교회는 양지기념교회와 달리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이천시 단월동 363, 362-4, 362-5번지)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교회로 바꾸어 드리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비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양지기념교회는 약 540평 대지에 건평 200평의 교회를 세운 것이고, 이천기념교회는 160평 대지에 약320평(1,045.92)을 구입하여 2010년 11월부터 리모델링을

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다. 교회개척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이천기념교회는 당시 기준으로 매입 4억5천만원, 수리 및 성물에 1억 5천만원 등 6억원이 들어갔다. 기념교회가 설립된 후에도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보수 확장 등으로 추가적인 물질이 들어갔다.

이천기념교회 성장

이천기념교회가 개척된 후 이천기념교회 역시 양지기념교회와 마찬가지로 1-2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수적성장을 이루게 된다. 교회 설립 후 50여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 된 것이다. 이천기념교회는 양지기념교회처럼 바로 자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양지기념교회처럼 이천기념교회에도 교회학교가 신설되었고, 구역과 여선교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지역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실을 열어 가르치고 있다.

교회개척 당시 태평제일교회

태평제일교회가 교회개척을 선택하고 기념교회들이 개척될 때 당시 태평제일교회 건물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가건물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아래는 당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3>

기념교회 개척 당시 태평제일교회

교회개척 당시 태평제일교회의 외부건물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은 그 당시 건물 내부 시설은 더 형편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낙운 목사는 자신의 목회의 편안함이나 태평제일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치장하거나 내외부를 채우는 목회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불편을 감수할것을 권면하고, 교회개척을 해야함을 피력한다. 그리고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과감하게 교회개척을 통한 복음 전파를 선택한 것이다.

교회개척 후 교회 돌봄

성낙은 목사의 목회철학은 교회개척, 즉 건물 건축으로 끝내지 않는다. 개척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보게 된다. 개척된 교회의 교역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례를 지원하여 준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성낙은 목사와 태평제일교회는 개척 된 기념교회를 지교회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물리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개교회로써 독립된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분립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2011년 5월 8일에 제48회 강동노회에서 양지기념교회와 이천기념교회는 개 교회로 분립되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개척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이 된다.

교회개척을 통해 받은 은혜

교회개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한다. 하나님나라 확장 복음전파를 위한 부르심에 대한 성낙은 목사의 선한반응 교회개척이라는 순종은 놀랍게도 본 교회인 태평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되는 복으로 찾아온 것을 보게 된다.

교회개척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평제일교회는 교회 앞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뜻하지 못한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 도로 확장은 성남에서 가장 넓은 도로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를 통해 얻어진 유무상의 가치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것이다. 또한 교회개척 이후에는 구입할 수 없는 교회 옆 공공토지를 구입하게 하셔서 지금의 교육관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태평제일교회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 재정적으로 건강한 구조를 갖춘 교회가 된 것이다.

교회개척은 개척된 교회뿐만 아니라 개척한 교회인 태평제일교회에도 더 큰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된다. 성도들은 교회개척이라는 이 선한 일을 통해 연합을 이루었고, 이러한 신선한 동기부여는 태평제일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었을 뿐아니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 것이다. 아래는 확장된 도로에서 태평제일교회를 바라본 모습이다.



<그림 14>

현재(2018.12.30) 태평제일교회 교육관 모습

태평제일교회는 40주년 기념교회인 이천기념교회가 자리잡고 난 이후 본교회를 수리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16년 4월 17일(교육관 봉헌)에 되어서야 태평제일교회는 가건물이 아닌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상최대의 명령에 성낙운 목사는 순종함으로 반응한다. 자신이 목양하는 태평제일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거나 확장하는데 집중하여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양지기념교회와 이천기념교회 그리고 본 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외에는 캄보디아 꺼꿍교회를 개척한 것을 보게 된다.

더욱이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완전한 교회로써 교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교회를 건축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먼저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양지기념교회를 개척하는데 10억이 넘는 재정과

이천기념교회를 개척할 때 8억원이 넘는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그럼에도 그 당시 태평제일교회는 어느 교회처럼 외형적으로도 온전한 모습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부유한 교회도 아니었다. 하루하루 생계에 치여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태평제일교회이다. 그런데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을 통한 교회개척이 하나님 나라 확장뿐 아니라 태평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요약

본 장에서는 태평제일교회에서 개척한 기념교회들의 상황과 비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이 있었고 이를 통해 개척된 교회뿐 아니라 개척한 교회인 태평제일교회가 큰 복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되었다.

다음 장은 결론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에 이른 후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함으로 논문을 마칠 것이다.

제 7 장

결론

본 논문은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에 관한 연구이다. 본 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 한 후에 후속 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 마친다.

본 논문을 통해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은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지도자를 찾으시고 세워나간다.

지도자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전 삶의 여정을 통하여 지도자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 이 때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올바른 반응을 보임으로 지도력의 지평을 넓혀가며 사역의 장이 더욱 넓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된 지도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과 선교의 장을 확대시키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는 데 쓰임받게 된다(Clinton 2011, 20-21).

본 논문은 하나님께서 성낙운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형성시킨 리더십 철학과 그로 인한 태평제일교회의 성장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다. 특히 필자가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를 통하여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 형성과정을 분석한 이유는 클린턴의 분석방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선교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지도자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며, 그 일꾼이 좋은 일꾼으로 형성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에 필자는 주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인 교회성장을 위하여 성낙운 목사를 태평제일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의 삶의 전 생애를 통하여 리더십 철학이 형성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목회철학을 통해 태평제일교회는 성장하였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릴적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 형성된 교회 개척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성낙운 목사를 통해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게 하신 것이다. 이제 필자는 이러한 본 연구의 전체 내용을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하며 정리하고자 한다.

요약

본 논문은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 본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에 관한 연구로 총7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에 관한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개관을 살펴 보았다.

제2장은 교회성장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교회성장학에 대해 정의하고, 교회 성장학의 세 거장인 도널드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 그리고 벤 앵겐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성장의 의미와 유형, 주요 원인, 그리고 교회성장과 리더십 철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리더십 철학의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클린턴의 영적지도자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4장은 본 연구의 실제로서 성낙운목사의 리더십 철학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분석했다. 먼저 성낙운목사의 리더십 철학 형성과정은 시간선에 따른 단계별 사역과정과 리더십 개발 과정상의 주요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의 리더십에 대하여 목회철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은 태평제일교회 성장과 성낙운 목사의 리더십 철학에 대해 다루었다. 이를 통해 성낙운목사의 목회철학이 태평제일교회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알아보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지도 살펴보았다.

제6장은 성낙운 목사의 선교적 목회철학 가운데 세워진 개척한 교회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7장은 결론으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및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성낙운 목사는 전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신앙적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목회철학으로 연결되었고, 이 목회철학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성장시켰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개척케 하였음을 보게 되었다. 이는 교회성장과 복음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며, 모든 목회자들의 모델이 됨을 다시금 확인케하였다.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이 하나님나라와 교회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개척은 개척된 교회뿐 아니라 개척한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된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의 원리이다.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 몇 가지 분야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낙운 목사의 목회철학에 대한 보다 폭넓은 분석과 효과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한국 교회가 직면한 리더십 위기가 극복되어야 한다.

둘째, 성낙운 목사의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있는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낙운 목사의 목회리더십 철학과 교회개척을 기반으로하여 한국교회성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21세기 교회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교회성장의 방향을 제시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 송실대. 2002. “한국 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 정병관. 2009. “복음혁명을 주도하는 도시교회 성장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장중열. 1979.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 김균진. 2009. “교회론의 성서적, 신학적 기초.” *교회론*. 한국조직신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아영. 2018. “혼자쓰는 연구 논문-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 김아영, 차정은, 이채희, 주지은, 임은영 공저 서울: 학지사
- 박원호. 1999. “예배를 통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개론(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박용배. 2018.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서울: 매경출판.
- 성의영. 2018. “아름다운 평신도 성의영, 성의영 기억의 책.” 제주: 꿈틀.
- 임운택. 2001. *소망교회 이야기*. 서울: 베드로서원.
- _____. 2009. “디아스포라 설교신학.” *임동선 목사의 설교신학에 관한 연구*. 서울: CLC.
- 이연주. 2018. *김근수 목사의 교회성장 설교에 관한 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이찬수. 2004. “세상에 없는 것” *분당우리교회 개척*.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최병현. 1998.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크리폼.
- 최윤배. 2009. “존 칼빈의 교회론.” *교회론*. 한국조직신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최민숙. 2010. “연구 방법과 논문 작성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Aubrey, Malphurs. 2004.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Plantion Growing Church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홍응표 역. 서울: 예찬사.
- Anderson, Leith. 2002. *21세기를 위한 교회(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 _____. 2017. 목적이 이끄는 리더십 (Leadership That Works). 전의우 역, 서울: 브니엘.
- Clinton, J. Robert and Richard W. Clinton. 2005.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 (Unlocking Your Giftedness)*. 황의정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 _____. 2016. 인생 주기에 따른 리더십 개발 (The Life Cycle of a Leader). 이영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 Clinton, J. Robert. 2011. *지도자 평생 개발론 (Leadership Emergence Theory)*. 장남혁 ·황의정 역. 서울: 하늘기획출판사.
- _____. 2015. *유종의 미(The Mantle of the Mentor-An Exhortation to finish Well)*. 이영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 _____. 2017. *영적 지도자 만들기 (Revised & Updated 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이영규 공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 Erickson, Millard J. 2001. *조직신학개론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Gibbs, Eddie. 1991. *나는 교회성장을 믿는다 (I Believe in Church Growth)*. 송용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 출판부.
- Glasser, Arthur F. 2006.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Announcing The Kingdom)*. 임운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Kraft, Charles H. 2006. *기독교와 문화 (Christianity in Culture)*. 임운택, 김석환 공역. 서울: CLC.
- Maxwell, John C. 2005a. *리더십의 법칙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강준민 역. 서울: 비전과리더십.
- _____. 2005b.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왜 되어야 하는가 (Wanted: World Christians)*. 민명홍 역. 서울: 조이선교회.
- _____. 2015. *리더십 불변의 법칙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홍성화 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 McGavran, Donald A. 2002. *하나님의 선교전략(The Bridges of God)*.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_____. 2003. *교회성장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전재욱, 이용한, 김종일 공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_____. 2007. *기독교와 문화의 충돌 (The Clash between Christianity and Cultures)*. 이재완 역. 서울: CLC.

- _____. 2017. *교회성장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third Edition)*. 최동규, 박보경, 이대현, 황병배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cIntosh, Gary L. 2004. *성경적 교회 성장 (Biblical Church Growth)*. 이재강 역. 경기도: 크리스찬출판사.
- Moltmann, Jurgen. 1994.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Mancini, Will. 2010. *10년 후 우리 교회 (Church Unique)*. 이은이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Pierson, Paul E. 2009. *기독교 선교운동사 (The Dynamics of Christian Mission)*. 임윤택 역. 서울: CLC.
- Rainer, Thom S. 2009. *교회성장 교과서 (The Book of Church Growth)*.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 Rainer, Thom S. and Eric Geiger. 2009. *단순한 교회 (Simple Church)*.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Schwarz, Christian A. 2000. *자연적 교회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외 2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 Tippett, A. R. 1992.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Church Growth and the Word of God)*. 장중열 역. 서울: 보이즈사.
- Van Engend, Charles. 1994.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서원.
- _____. 2009.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Evaluating the Church Growth Movement)*.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 _____. 2014.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Rethink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hurch)*. 임윤택 역. 서울: CLC.
- Van Gelder, Craig. 2003.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 (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 Wagner, C. Peter. 1982.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_____. 1984. *성서적 교회성장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서정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_____. 1997. *교회성장원리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_____. 2002. *건강한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 요인들 (The Healthy Church)*. 홍용표 역. 서울: 왜그너 교회성장연구원/도서출판 서로사랑.
- Warren, Rick. 1996.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공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 성낙운. 2001. “새 신자 양육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태평제일교회를 중심으로.” D. Min 학위논문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 안금란. 2018. 성낙운 목사와 개인 인터뷰(Interview with Rev. Nak Un Soung). Taepyeongjeil Presbyterian Church 2018년 10월 7일.
- 성낙운. 2018. 성낙운 목사와 개인 인터뷰(Interview with Rev. Nak Un Soung). Taepyeongjeil Presbyterian Church 2018년 11월 7일.
- _____. 2018. 성낙운 목사와 개인 인터뷰(Interview with Rev. Nak Un Soung). Taepyeongjeil Presbyterian Church 2018년 11월 12일.
- _____. 2018. 성낙운 목사와 개인 인터뷰(Interview with Rev. Nak Un Soung). Taepyeongjeil Presbyterian Church 2018년 11월 25일.
- 성남시청 홈페이지. n.d. “성남시 기본현황.” Accessed Dec, 31, 2018. <<https://www.seongnam.go.kr/city/1001536/11029/contents.do> >
- _____. n.d. “성남시 인구.” Accessed Dec, 31, 2018. <<https://www.seongnam.go.kr/city/1000011/10008/contents.do> >

약력(VITA)

1979년 12월 19일 아버지 고 김희진과 어머니 권순옥의 2남 2녀 중 막내로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1999년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2003년 학부 졸업 후 군 복무 중 군중병으로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재확인하였다. 2006년 부산장신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였다.

신대원 입학 후 가야교회(통합측)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다. 2008년 신대원 졸업 후 경남에 있는 고성교회에서 전임사역을 하였고, 2011년 1월부터 경기도 성남 태평제일교회(성낙운목사)에서 교구사역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다가 2013년 11월 서울강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태평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교구담당, 전도, 중보기도 및 선임목사로 계속 사역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양지아름다운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2010년 5월 8일 김민정과 결혼하여 아들 성동이와 딸 예나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 김요한 목사는 목회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과 배움을 위해 2015년 10월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 D. Min과정에 입학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사역을 통해 좋은 목회자 성낙운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목회를 보며 많은 것을 깨달게 하셨다. 특별히 교회개척은 하나님나라 확장 뿐아니라 본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원리임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에 깊은 이면에는 이미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자 성낙운 목사의 전생애를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원리를 성낙운 목사는 목회철학으로 순증함으로 받들었던 것을 알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신앙적 청사진과 과정들을 2019년 “태평제일교회의 성장과 성낙운목사의 목회철학 연구” 논문으로 정리하게 되었다.